

유령 이야기 속편

More Ghost Stories of an Antiquary

M.R. 제임스 (M.R. James) (1862-1936)

1911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2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R. 제임스 (M.R. James), "More Ghost Stories of an Antiquary" (Edward Arnold 1911)

저자

M.R. 제임스 (M.R. James) (1862-1936)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9629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2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잔나 셀, 토머스 버거, 그리고 PG Distributed Proofreaders가
제작했습니다.

제2부: 유령 이야기 속편

M.R. 제임스

고고학자의 유령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제각기 다른 시기에 이들을 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바
친다.

목차

제1부: 고고학자의 유령 이야기

캐논 알베릭의 스크랩북 잃어버린 심장들 메조틴트 물푸레나무 제
13호 카운트 마그누스 “호루라기를 불면, 내가 올게요, 젊은이” 아벗
토마스의 보물

제2부: 유령 이야기 속편

학교 이야기 장미 정원 미도스 논고 룬 문자 던지기 바체스터 대성
당 성가대석 마틴의 폐원 험프리스 씨와 그의 유산

* * * * *

일곱 편 중 첫 여섯 편은 모두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 쓰인 작품들
이다. 그중 가장 먼저 나온 ‘학교 이야기’는 킹스 칼리지 합창단 학교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 ‘바체스터 성당의 스톨’은 『컨템포러리 리뷰』에 실렸고, ‘험프리스 씨와 그의 유산’은 책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 썼다.

‘학교 이야기’를 쓸 때는 이스트 신의 템플 그로브를 염두에 뒀다. ‘트랙테이트 미도스’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을 배경으로 삼았고, ‘마틴스 클로즈’는 데본의 샘포드 커트니를 모델로 했다. 바체스터 성당은 캔터베리, 솔즈베리, 헤리퍼드의 성당을 섞어 상상해 낸 곳이다.

M.R. 제임스

* * * * *

학교 이야기

두 남자가 흡연실에서 과거 사립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수군거렸다.

“우리 학교 계단에 유령의 발자국이 있었어.” A가 말했다.

“어땠어?”

“아주 설득력 없었지. 기억이 맞다면, 구두코가 각진 구두 모양의 자국 하나였어. 계단은 돌로 된 거였지.”

“그 발자국에 관한 전설 같은 건 없었어?”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생각해보니 이상하군. 왜 누군가 그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어린이들은 정말 알 수 없는 법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잠깐, 그건 좋은 소재가 될 것 같다. ‘사립학교의 민속학’ 같은 제목으로 말이야.

“그렇긴 합니다만, 수확량은 다소 빈약하군요. 예를 들어 사립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돌려 듣는 유령 이야기들의 계보를 조사해 보면, 결국 다 책에 실린 이야기들을 극도로 압축해 놓은 것들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요즘이라면 『스트랜드』 나 『피어슨스』 같은 잡지들이 자료로 폭 넓게 활용되었을 것이다.

물론이지. 그 잡지들은 내 시대에는 태어나지도, 생각지도 못했어. 한번 보자. 내가 들었던 그 기본 골격들, 기억이 나나?

첫 번째는, 누군가 한밤중을 보내야 하는 방이 있는 집이야. 거기에 묵은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모두 한쪽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채 발견됐지. 그리고는 단 한 마디, “내가 그걸 봤어.”라고 말한 뒤 죽음을 맞이했어.

‘그게 버클리 스퀘어의 그 집이었나?’

“그럴 법도 하지. 밤에 복도에서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네 발로 기어오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의 눈은 뺨에 매달린 채였지.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래! 이마에 말굽 자국이 남은 채 침대에서 죽어 있는 남자가 발견된 방도 있었어. 침대 아래 바닥에도 말굽 자국이 가득했지. 도대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또 낯선 집에서 침실

문을 잠그자, 침대 커튼 사이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이제 밤새 우리 가뒤흔네’라고 하는 소리도 들렸고.”

“그 어떤 이야기에도 해답이나 이후의 일은 없었어. 그 이야기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까?”

“아마도 그럴 거야. 내가 말했듯이 잡지에서 가져온 내용도 섞여 있겠지. 사립학교에 진짜 유령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당신도 그걸 본 적이 있는 모양이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렇습니다. 서른 해쯤 전, 제가 다니던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의 원인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학교는 런던 근처에 있었다. 꽤 오래된 큰 저택을 개조해 세운 곳으로, 주변에는 넓은 부지가 둘러져 있었다. 하얗게 칠해진 거대한 건물이었다. 정원에는 커다란 삼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템스 강 유역의 오래된 정원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다. 우리가 운동장으로 쓰던 서너 개의 들판에는 늙은 느릅나무들이 우뚝 서 있었다.

나는 그 학교가 아마도 꽤 매력적인 곳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년들은 대체로 자기 학교에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고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나는 1870년 직후, 어느 해 9월에 학교에 들어섰다. 같은 날 들어온 학생들 중, 내가 눈여겨본 아이가 있었다. 하이랜더 소년, 맥클로이드로 부르자. 그의 생김새를 길게 묘사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내가 그를 아주 잘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아이는 어디 하나 특출난 점이 없었다. 공부는 물론이고 운동도 평범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 잘 맞았다.

그 학교는 규모가 꽤 컸다. 평소에는 학생이 120명에서 130명가량 있었다. 그만큼 많은 교사가 필요했고, 교사들의 이직도 꽤 잦았다.

한 학기, 아마도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학기쯤 되었을 때, 새로운 교사가 우리 학교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샘슨이었다. 키는 다소 크고 체격도 약간 굼직한 편이었으며, 얼굴빛은 창백했고 검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우리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는 여행을 많이 다녔고, 우리들이 학교 산책을 할 때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듯 그의 근처로 다가갔다.

나는 또 하나 기억난다. 그 후로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의 시곗줄에 매달린 부적 같은 것이 있었다. 어느 날, 그 것이 나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허락해 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금으로 된 비잔틴 동전인 것 같다. 한쪽 면에는 이상한 황제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었다. 다른 한쪽 면은 거의 마

모되어 매끄러워졌고, 그는 거기에 다소 야만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니셜 G.W.S.와 날짜 1865년 7월 24일을 새겨 넣었다.

예, 지금도 그 동전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는 그 동전을 콘스탄티노플에서 주웠다고 말해 주었다. 크기는 플로린 동전과 비슷하거나, 아마도 조금 더 작았다.

그때 일어난 첫 번째 기이한 일은 이랬다. 샘슨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라틴어 문법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분은 학생들에게 규칙을 익히게 하기 위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시키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셨다. 아마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방식은 엉뚱한 소리를 내뱉으며 장난을 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좋은 구실거리가 된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샘슨 선생님은 엄격한 지도자셨기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장난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그날 그 시간, 샘슨 선생님은 라틴어로 ‘기억하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주고 계셨다. 그리고 각자에게 동사 ‘메미니(Memini, 나는 기억한다)’를 넣은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명하셨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평범한 문장을 지어냈다. “나는 아버지를 기억한다”라든가, “그는 자신의 책을 기억한다” 같은,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문장들이다. 아마도 많은 아이들이 ‘메미노 리브룸 메움(Memino librum meum, 나는 내 책을 기억한다)’ 같은 틀린 문장을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한 맥클로이드라는 아이는 분명히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머지 우리는 문장을 검토받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었기에, 그에게 책상 밑에서 발로 차고, 그 옆에 앉았던 나는 그를 툭 치며 재촉했다.

하지만 그는 반응이 없었다. 내가 그의 종이를 보니, 그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나는 그를 더 세게 흔들며, 우리를 모두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날카롭게 나무랐다.

그제야 효과가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 정신이 든 듯했고, 급하게 종이에 두 줄 정도를 흘려 적더니 다른 아이들과 함께 종이를 들어 보였다.

그가 제출한 종이는 마지막에 가까운 것이었고, 샘슨 선생님은 ‘메미니스쿠스 파트리 메오(Meminiscus patri meo, 나는 내 아버지에게 기억한다)’ 같은 문장을 쓴 아이들에게 할 말이 많으셨다. 그 결과, 시계가 정각 열두 시를 치기 전까지 샘슨 선생님은 맥클로이드의 종이에 도달하지 못하셨다. 맥클로이드는 문장을 수정받기 위해 남아서 기다려야 했다.

내가 교실을 나왔을 때 밖에는 별일 없었기에, 나는 맥클로이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가 도착했을 때 걸음이 매우 느렸다.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어떻게 됐어?” 내가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어. 별일 아니야. 하지만 샘슨 선생님이 나한테 좀 화가 나신 것 같아.” “왜? 엉뚱한 소리를

적었어?” “아니, 전혀. 내가 보기엔 괜찮았어. 이렇게 썼어. ‘메멘토(Memento)’—기억한다는 뜻이지, 속격사를 취하고. ‘메멘토 푸테이 인테르 콰투르 타크소스(Memento putei inter quatuor taxos).’”

“미친 소리야! 왜 그런 걸 적었어? 무슨 뜻이야?” “그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나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그냥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적었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뜻은 있어. 적기 직전, 머릿속에 그런 풍경이 그려졌거든. ‘네 그루의 주목 사이 우물을 기억하라’라는 뜻인 것 같아. 붉은 열매가 달리는 그 어두운 나무들은 뭐라고 하지?” “마가목을 말하는 거지?” “그 나무 이름은 들어본 적 없어. 아니, 내가 알려줄게. ‘주목(Yews)’이야.” “그럼 샘슨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아, 아주 이상하셨어. 그 문장을 읽으시더니, 벽난로 쪽으로 걸어 가셨지. 그리고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서 계셨어. 그러더니 돌아보지도 않으시며, 아주 조용히 물으셨지. ‘네 생각엔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생각하는 뜻을 말했어. 하지만 그 이상한 나무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 그러자 그분은 왜 그런 문장을 적었는지 물어보셨고, 나는 어쨌든 대답해야 했지. 그 후로는 그 화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으시고, 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는지, 부모님은 어디 사는지 같은 다른 질문들을 하셨어. 그리고 나는 떠났지만, 선생님의 안색은 아주 좋지 않으셨어.”

그 일 이후 우리 둘 사이에 오간 말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다음 날 맥클로드는 오한 같은 증세로 침상에 눕게 되었고, 그가 다시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렸다. 그리고 눈에 띄는 일은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없었다. 샘슨 선생이 맥클로드가 생각했을 정도

로 정말로 놀랐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샘슨 선생의 과거에는 매우 기묘한 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가 소년들이라 그런 사실을 간파할 만큼 날카로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건과 성질이 같은 일이 하나 더 있었다. 그 날 이후로 우리는 여러 차례 수업 시간에 예문을 만들어 각기 다른 문법 규칙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가 문법을 틀리게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침내 ‘조건절’이라는 지루한 단원을 배우게 되는 날이 왔다. 우리는 미래의 결과를 나타내는 조건문을 만들어야 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고,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종이쪽지를 제출했다. 샘프슨이 그것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책상 옆에 있던 문으로 뛰쳐나갔다. 우리는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나는 부끄럽지만, 몇몇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샘프슨의 책상에 올라가 종이를 살펴보았다.

나는 누군가가 엉터리 같은 것을 적어서 샘프슨이 그 아이를 보고하러 간 줄 알았다. 하지만 뛰쳐나갈 때 그는 종이를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책상 맨 위에 놓인 종이는 붉은 잉크로 적혀 있었다. 그 수업 시간에는 아무도 붉은 잉크를 쓰지 않았다. 또한 그 글씨는 우리 반 아이들 중 그 누구의 필체도 아니었다. 맥클로드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죽을 맹세라도 하듯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그때 나는 종이를 세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책상 위에는 열일곱 장의 종이 조각이 있었고, 우리 반에는 열여섯 명의 소년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 여분의 종이를 주워 보관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종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제 당신은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단순했고, 충분히 무해해 보였다.

“네가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리라.” 라틴어 구절이다. 아마도 “네가 내게 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 종이를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청자가 끊어 말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도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그것을 사물함에서 꺼냈습니다. 분명히 같은 쪽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위에 손가락 자국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그쪽지에는 어떤 글씨도, 단 한 자국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쪽지를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이후로는 비밀 잉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이쯤에서 접자. 약 반 시간쯤 지나서 샘슨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몸이 많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떠나라고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상 쪽으로 다가갔고, 맨 위에 쌓여 있던 종이를 단 한 번 훑어보았다. 그는 아마 자신이 꿈꾸고 있었나 보다 생각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날은 반휴일이었다. 다음 날 샘슨은 평소처럼 학교에 다시 등교했다. 그리고 그 밤, 내 이야기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다.

나와 맥클로드스는 본채와 직각으로 이어진 기숙사에서 자고 있었다. 샘프슨은 본채 1층에서 잤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한 시에서 두 시 사이쯤 되었을 때였다.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맥클로드가 내 곁에 서 있었다. 그는 심히 당황한 기색이었다.

“자, 가자.” 그가 말했다. “샘프슨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오고 있어.”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럼 왜 다 깨워서 소리라도 지르지?”

“아니, 아니.” 그가 말했다. “누구인지 모르겠어. 소란을 피우지 마. 그냥 와서 봐.”

당연히 나도 따라나섰다. 그리고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속으로 맥클로드를 온갖 욕으로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뭘

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기운은 내가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나는 곧 맥클로드에게 물었다. “무슨 소리를 들었어? 아니면 무언가를 봤어?”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깨어나기 약 5분 전, 나는 이 창문 너머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 샘프슨의 창틀 위에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가 있었지.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나는 그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어.”

“어떤 남자였어?” 맥클로드는 몸을 비틀었다.

“나는 몰라.” 그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해 줄게. 그는 매우 마른 남자였어. 그리고 젖어 있는 것 같았어.”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마치 자신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은 듯했다. “나는 그가 살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우리는 잠시 더 속삭이며 수군거렸다. 그러다 결국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방 안의 다른 이들은 그 내내 잠에서 깨지도, 몸을 움직이기도 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잠들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음 날은 매우 피곤했다.

다음 날샘프슨 씨는 사라졌다.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흔적이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세상에 드러난 적이 없다고 믿는다.

이 일을 되돌아보면, 가장 기묘한 점은 맥클로드나 나나 우리가 본 것을 제3자에게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다. 만약 질문이 있었다면, 나는 우리가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제 이야기입니다.” 화자가 말했다. “학교와 관련된 유령 이야기 중 제가 아는 한 유령 이야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근접한 이야기라고는 생각합니다.”

* * * * *

이 이야기의 속편은 다소 진부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어지는 서사는 분명 존재하며, 따라서 반드시 옮겨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해 말, 혹은 이듬해에 그 중 한 명이 아일랜드의 한 시골 저택에 머무르고 있었다.

어느 저녁, 그의 주인은 흡연실 서랍에서 잡동사니들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작은 상자를 하나 손에 쥔 것이다.

“이거, 옛날 물건에 대해 잘 아는 당신에게 물어볼게요. 이게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내 친구는 그 작은 상자를 열어 보았다. 안에는 얇은 금사슬과 그 끝에 달린 낫선 물체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 물체를 잠깐 바라보더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안경을 벗어 들었다.

“이것의 사연이 무엇입니까?”

“꽤 이상한 이야기지요.” 주인이 대답했다. “당신은 관목 숲에 있는 주목 덩불을 아시죠? 그런데 일년 전쯤, 이곳 빈터에 있던 오래된 우물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시체를 발견하셨나요?” 방문자가 이상한 긴장감을 느끼며 물었다.

“그렇게 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야말로 두 구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거야.”

“세상에나! 둘이라니?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있었는가? 이 물건이 그들과 함께 발견되었는가?”

“맞아요. 한 시체의 옷조각 사이에 있었죠. 그 이야기의 진위가 어찌 되었든, 이건 아주 나쁜 일이었습니다. 한 시체가 다른 시체의 팔을 꼭 감싸고 있었거든요. 두 시체는 우리가 이 곳에 오기 최소한 서른 해, 어쩌면 그 이상 전에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물을 금방 메웠습니다. 당신도 그 금화에 새겨진 무언가를 읽어내셨나요?”

“읽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친구가 금화를 빛에 비춰 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G.W.S., 1865년 7월 24일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장미 정원

앤스트러더 부부는 에식스주 웨스트필드 홀의 거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날의 일정을 잡느라 분주했다.

“조지,” 앤스트러더 부인이 말했다. “말든으로 차를 몰고 가서 내가 전에 말한 그 손뜨개 제품들을 좀 구해 봐. 바자회 내 부스에서 팔 그런 거 말이야.”

“그래,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메리. 하지만 오늘 아침 제프리 윌리엄슨과 라운드 한 판을 하기로 거의 약속이 돼 있었어. 바자회는 다음 주 목요일이지, 그렇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조지? 내가 말든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할 수 없다면, 당연히 시내의 여러 상점에 편지를 써서 주문해야 하지. 첫 주문에는 가격이나 품질이 전혀 맞지 않는 물건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 실제로 윌리엄슨 씨와 약속을 잡았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좋겠어.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데.”

“아니, 아니요. 정말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뜻이 이해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뭘 할 거야?”

집안일도 정리했으니, 이제 새 장미 정원을 준비할 차례야. 그런데 말인데, 말든으로 가기 전에 콜린스를 데리고 내가 정해둔 장소를 한번 구경시켜 주겠어. 물론 그 장소는 알겠지?

“글쎄, 내가 정말로 알기는 한 건지 잘 모르겠어, 메리. 그쪽이 마을 쪽, 위쪽 끝이야?”

“어머, 아니야, 조지; 내가 그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작은 개활지 말이야. 교회 쪽으로 이어지는 관목 숲길 바로 옆에 있는 곳.”

“아, 맞아요. 옛날에 정자가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던 곳 말이에요. 낡은 좌석과 기둥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은 햇볕이 충분히 들까요?”

“조지, 내가 상식이 좀 있다고 봐주게. 내가 너처럼 여름 별장을 만드는 데 미쳐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 박스나무들을 치워버리면 햇볕이 얼마든지 들어올 거야. 네가 하려는 말은 다 안다. 나도 이 곳을 텅 비우는 건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건 콜린스에게 한 시간 뒤 내가 나오기 전에 낡은 벤치와 기둥 같은 것들을 치워달라는 거야. 너도 빨리 일을 끝내고 내려가길 바래. 점심을 먹고 나면 성당 스케치를 계속할 생각인데, 괜찮다면 골프장으로 가거나……”

“아, 좋은 생각이예요. 정말 좋군요. 메리, 그 스케치 계속 그려요. 저도 한 라운드 치면 좋겠군요.”

“사실 주교를 찾아뵙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하지만 내 제안이 소용없을 거라는 건 알겠지. 이제 준비나 시작하시오. 안 그러면 오전 내내 허비하게 될 테니까.”

앤스트러더 씨의 얼굴이 잠시 긴장되어 길어졌다가, 이내 다시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는 급히 방을 나서더니, 곧 복도에서 명령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십여 살의 장중한 여주인 앤스트러더 부인은 아침에 온 편지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본 뒤, 집안 살림을 돌보기 시작했다.

몇 분 후, 앤스트러더 씨는 온실에서 콜린스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계획된 장미 정원 부지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나는 묘목 재배에 적합한 조건에 대해 그리 많이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앤스트러더 부인이 스스로를 ‘훌륭한 정원사’라 칭하면서도, 그 용도로 장소를 고르는 데 있어 잘못된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곳은 한쪽으로는 길이, 다른 한쪽으로는 두꺼운 박스나무와 월계수, 그리고 기타 상록수들로 둘러싸인 작고 습기 찬 빈터였다. 땅에는 풀이 거의 자라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빈터 중앙쯤에서 시들어진 농촌식 벤치들의 잔해와 구부러진 낡은 참나무 기둥이 발견되었다. 이 흔적들은 앤스트러더 씨로 하여금, 이곳에 한때 정자가 서 있었다고 추측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콜린스는 이 땅에 대한 여주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듯했다. 앤스트러더 씨로부터 그 뜻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전혀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그 좌석들은 곧장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것들은 이 장소에 장식이 될 만한 것도 아니요, 게다가 썩어빠진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선생님.” 그는 말을 끊고 큰 조각 하나를 부러뜨렸다. “안쪽까지 완전히 썩었습니다. 네, 치워버리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기둥도요,” 앤스트러더가 말했다. “그것도 없애야 해요.”

콜린스가 다가와서 기둥을 양손으로 흔들었다. 그러고는 턱을 문질렀다.

“그 말뚝은 땅에 단단히 박혀 있군요.” 그가 말했다. “여러 해 동안 그대로 서 있던 것 같습니다, 앤스트러더 씨. 저 말뚝을 뽑아내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 의자들에 비하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지요.”

“하지만 자네 여주인께서는 그걸 한 시간 안에 치워달라고 특별히 원하시네.” 앤스트러더 씨가 말했다.

콜린스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직접 만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니요, 선생님, 누구도 자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는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지난 후면 이 기둥을 들어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꽤 많은 땅을 파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선생님,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기둥 주변 흙을 푸는 일입니다. 저와 소년

은 그 작업을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의자들에 관해서는,”라고 콜린스는 마치 이 계획의 일부가 자신의 재치에서 비롯된 것처럼 내세우며 말했다. “왜, 저는 이 의자를 치우고,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요. 다만—”

“무엇이요, 콜린스?”

“글쎄요, 제가 명령에 반항하는 건 당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테니…”(그는 다소 급하게 덧붙이며) “하지만 실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라면 이 곳을 장미 정원으로 고르지 않았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 박스와 로레스타이너스 나무들이 얼마나 뻗뻗하게 자라고 있는지, 햇빛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잖아요.”

“아, 맞아요. 물론 일부는 치워야 하죠.”

“아, 맞아요. 저들을 없애야 해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죄송합니다, 앤스트러더 씨--”

“미안하네, 콜린스. 이제 가야겠네. 문간에 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는군. 네 여주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설명해 줄 테니, 그제서야 너도 바로 좌석을 치우고 오늘 오후엔 저 기둥을 처리할 수 있겠지. 안녕.”

콜린스는 턱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앤스트러더 부인은 그 보고를 받아들이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계획 변경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월킨스 양은 앤스트러더 가가 몇 해 전 웨스트필드 영지를 매입할 때부터 남아 있던, 드문 가족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이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아마도 작별 방문인 듯했다.

“월킨스 양을 여기로 모셔올 수 있겠어요?” 앤스트러더 부인이 말했다.

잠시 후, 성숙한 나이의 월킨스 양이 다가왔다.

“내일 애시스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럼 오빠께 이 곳이 얼마나 멋지게 변했는지 직접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오빠도, 저도 그렇지만, 옛집이 조금은 그리울 수밖에 없겠지만요. 하지만 지금 정원은 정말로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말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선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장미 정원을 만들려던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근처입니다.”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은 월킨스 양에게 길게 설명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분명히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네, 정말 아름답군요.” 그녀는 마침내, 약간 정신이 다른 곳에 있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앤스트러더 부인, 죄송하지만 저는 옛날 일을 생각하다 보니 무심코 있었어요. 당신이 이 장소를 바꾸기 전, 이 자리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프랭크와 저는 이 곳에 얽힌 로맨틱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네?” 앤스트러더 부인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도대체 뭐였는지 꼭 말해 주세요. 분명히 기묘하면서도 매력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별다를 것 없는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늘 묘하게 느껴졌어. 우리 어릴 적에는 절대 이 곳에 혼자 있는 적이 없었거든. 지금도 어떤 기분일 때는 이곳에 혼자 있는 게 꺼려질지도 몰라. 이런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나 같은 자에게는 특히 더—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우스꽝스럽게 들리기 마련이야. 하지만 우리 둘이 이 곳에 혼자 있을 때 느꼈던, 음산한 공포의 실체를 조금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건 매우 더운 가을날 저녁 무렵의 일이었다. 프랭크는 정원에서 갑자기 실종되었고, 나는 그를 찾아 차를 마시러 부르러 다녔다. 그 길을 따라 내려가던 중, 나는 갑자기 프랭크를 보았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관목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구석에 있던 옛 여름 별장—여기 나무로 된 여름 별장이 있었지—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끔찍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가 아플지도, 혹은 죽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흔들며 깨우라고 외쳤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정말로, 그 불쌍한 소년은 공포에 질려 정신이 나간 듯했다. 그는 나를 집 안으로 재촉하며 데려갔고, 그 밤 내내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누군가가 그의 곁을 지켜야 했다. 그는 곧 낮기 시작했지만, 며칠 동안이나 그토록 극단적인 상태에 빠진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결국 그가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그는 정말로 잠들어 있었고 매우 기묘하고 단편적인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크게 보지는 못했지만, 장면들을 매우 생생하게 느꼈다고 한다. 먼저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넓은 방에 있는 자신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에게 ‘매우 강력한’ 존재가 마주 서 있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받고 있었는데, 그가 답할 때마다 누군가—그는 마주 서 있던 사람이거나 방 안의 다른 사람—가 그에게 불리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목소리는 그에게 매우 멀리서 들렸지만, 그가 기억한 대화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10월 19일 당신은 어디에 있었소?” “이것은 당신의 필적이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는 재판에 관한 꿈을 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서류들을 본 적이 없었고, 여덟 살짜리 소년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생생한 인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었다. 그는 내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때 내내 가장 격렬한 불안과 압박감, 그리고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 후 잠시 동안 그는 극도로 초조하고 불행한 기억을 떠올렸고, 그 다음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다. 어둡고 쌀쌀한 아침, 눈이 조금 쌓인 거리로 나간 자신을 의식한 것이었다. 그것은 거리였거나, 적어도 건물들 사이였으며, 그곳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빼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어떤 종류의 플랫폼에 섰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근처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 하나뿐이었다.”

“그의 팔을 잡고 있던 누군가가 손을 놓치고 그 불꽃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그의 공포는 꿈의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더 컸다고 한다. 내가 그를 깨우지 않았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꿈이었지, 그렇지 않은가?”

“그 일 이후, 그해의 늦은 무렵에 프랭크와 내가 이 곳에 있었다. 해 질 무렵, 나는 정자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내가 읽고 있던 책의 장을 다 읽을 때까지 프랭크에게 차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러 안으로 가라고 했다. 프랭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머물렀고, 빛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책을 읽기 위해 몸을 굽혀야 했다.”

“그때 갑자기, 정자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속삭이는 것을 의식했다. 내가 구분할 수 있거나,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유일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당겨, 당겨. 내가 밀어, 너는 당겨.””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거칠고 분노에 찬 톤으로 들렸다. 동시에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프랭크의 꿈에서 들렸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놀랐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돌려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리고… 이걸 매우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다. 나는 그 소리가 오래된 기둥에 귀를 대었을 때 가장 강하게 들린다고 확신했다. 그 기둥은 벤치의 일부였다. 나는 그 확신이 너무 강해서, 작업 바구니

에 있던 가위로 기둥에 깊게 표시를 남겼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른다. 그런데 그 기둥이 바로 저것은 아닐까? 글썄, 그럴 수도 있다. 저 기둥에도 자국과 굵힌 자국이 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그 기둥은 당신이 가진 것과 정확히 같았다.

아버지는 우리 둘 다 정자에서 놀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 후 어느 날, 아버지는 직접 정자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정자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철거되었다. 나는 아버지가 그 일로 마을에서 잡일을 하던 노인과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노인은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그는 그 안에 단단히 갇혀 있습니다. 누가 데려가 풀어주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에 대해 묻자, 나는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다. 아마도 내가 자랐을 때 부모님이 더 많은 것을 알려주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다.

나는 그 일이 항상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거나, 말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늘어놓아 지루하게 했네요. 하지만 그 정자는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들을 상상할 수 있겠지요? 이제 저는 떠날게요, 앤스트러더 부인. 이번 겨울에 도시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의자와 기둥은 각각 치워지고 뿌리째 뽑혔다. 늦여름의 날씨는 소문대로 번덕이 심했다. 저녁 식사 시간쯤, 콜린

스 부인이 남편이 심하게 감기에 걸려 다음 날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브랜디 한 잔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왔다.

앤스트러더 부인의 아침 생각은 평온하지 않았다. 밤새 불량배 몇 명이 조림지 안으로 들어왔다는 확신이 들었다. ‘또 다른 일도 있어, 조지. 콜린스가 다시 나타나면, 부디 부엉이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해야 해. 나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나는 한 마리가 우리 창문 바로 밖에 앉아 있었다고 확신해. 만약 안으로 들어왔다면 나는 정신이 나갈 뻔했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매우 큰 새였다고 확신했어. 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 물론이지, 너는 평소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으니까. 그래도 말해볼게, 조지, 너의 밤이 너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아.’

“내 사랑,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나면 나는 정말 미쳐 버릴 것 같아.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너는 상상도 못 할 거야. 깨어나서는 그 꿈에 대해 말조차 할 수가 없었지. 그리고 이 방이 이렇게 밝고 햇살이 가득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꿈을 떠올리고 싶지 않을 거야.”

“정말 그래, 조지. 너라면 좀처럼 하지 않을 행동이야.”

“너 분명 뭔가—아니, 넌 어제 나랑 똑같은 것만 먹었잖아—그 형편 없는 클럽 하우스에서 차를 마신 게 아니라면 말이야. 그랬어?”

“아니, 아니야. 차 한 잔과 버터 빵만 있을 뿐이었어. 내가 어떻게 그 꿈을 꾸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군. 아마도 사람들이 흔히 하듯, 내가

보거나 읽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 꿈이 만들어졌겠지. 들어봐, 메리, 이런 식이었어—너에게 지루하게 들리지나 않겠지?”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소, 조지. 내가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말해.”

“좋아요. 이건 다른 악몽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말을 걸거나 손을 대는 누군가를 본 적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져 극도의 공포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오래된 판넬이 붙은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벽난로가 있고, 그 안에는 타버린 종이들이 쌓여 있었죠. 저는 어떤 일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인 같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을, 가능한 한 빨리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린 뒤,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자 바닥에 박차가 부딪치는 듯한 소리가 났죠.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습니다.”

“그래, 그런데 저건 대체 뭐였지?”

“보셨습니까, 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겪는 그런 충격이었거든요. 깨어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검은색으로 변하죠. 저에게 일어난 일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자 저는 커다란 어두운 벽의 방 안

에 서 있었습니다. 벽은 나무로 판넬을 입힌 것 같았고, 다른 방과 비슷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분명히…”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거겠지, 조지.”

“세상에, 그래요, 메리. 그런데 당신도 그걸 꿈꿨어요? 정말 이상하군요!”

“아니, 아니요. 그럴 만큼 충분히 자지 못했어요. 계속하세요, 조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제 상태가 어땠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생사를 건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 말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판사석에는 가장 끔찍한 자가 앉아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판사라고 해야 하지만, 그 자는 저를 너무 부당하게 몰아세우고, 제가 한 말을 왜곡하며, 정말 추악한 질문들을 던졌거든요.”

‘무엇에 대해?’

“왜 하필 그 날짜들, 내가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들, 내가 썼다는 편지들, 그리고 왜 일부 서류를 없앴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지. 내가 대답하자 그는 비웃듯 웃었어. 그 웃음소리에 나는 완전히 위축되었어.”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 메리, 그때는 정말로 숨이 막힐 듯 무서웠단다. 그런 남자가 정말로 존재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끔찍한 악당이었는지는 틀림없어. 그가 던진 말들……”

“고맙소. 그 이야기는 듣지 않을 테니. 나는 언제든 직접 골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소. 결국 어떻게 끝났소?”

“아, 나를 막았지. _그_가 그랬어. 메리, 그 후의 그 긴박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내가 보기엔 그 상태가 며칠 동안이나 이어졌는지 너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것들을 쓰기도 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고. 그러다가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때—”

‘아!’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제가 뭘 봤는지 아시나요?”

날이 어둡고 추웠던가. 거리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너 근처 어딘가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맙소사, 그랬구나! 너도 같은 악몽을 꿔구나! 정말 아니라고? 세상에, 참 이상한 일이군. 응, 나는 그 일이 고등 반역죄를 위한 처형이었다고 확신해. 내가 짚 위에 누워 몹시 거친 진동을 느끼며 이동했고, 몇 단계의 계단을 올라야 했으며, 누군가가 내 팔을 잡고 있었지. 그리고 작은 사다리 일부와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 것도 기억나. 정말, 사람들이 모여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그 속에 있는 건 이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실제 처형 장면까지 보지 못했어. 꿈은 머리 속에서 천둥치는 듯한 느낌으로 사라졌지. 그런데, 메리--”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어. 아마 이건 일종의 독심술 같은 거겠지. 윌킨스 양이 어제 찾아와서, 그들이 이 집에 살 때 그녀의 남동

생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을 말해줬어. 그리고 어제 밤, 그 끔찍한 부영이 소리와 수풀 속에서 떠돌고 웃는 남자들 소리를 들으며 깨어 있었는데, 그 무언가가 그 꿈을 떠올리게 했을 거야. (참고로, 그들이 어떤 손해를 줬는지 확인해 보고 경찰에 말해줬으면 해.) 그래서 내 뇌에서 네 뇌로 넘어갔을 거야. 네가 잠자고 있을 때 말이야. 확실히 신기하지. 네가 그렇게 밤을 새우게 해서 미안해. 오늘 하루는 가능한 한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셔.”

“이제야 괜찮은데. 나는 로지로 가서 거기서 함께 놀 사람 하나 구해볼까 해. 너는?”

“오늘 아침 할 일이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방해받지 않는다면, 제가 그 그림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그 작업이 끝나는 모습을 꼭 보고 싶거든.”

수풀에는 어떤 손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앤스트러더 씨는 미미한 관심으로 장미꽃밭이 있던 자리를 살폈다. 뿌리째 뽑힌 기둥이 그대로 누워 있었고, 그 기둥이 서 있던 구멍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채였다.

콜린스에게 물어보니 상태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출근할 힘이 없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말을 대변해, “저런 것들을 치우다가 잘못된 게 아니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콜린스의 아내는 덧붙여 말했다. 웨스트필드에서는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노인들이 가장 심했는데, 자신들이 그 지역에 다른 이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듯했

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콜린스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으며, 결국 그 모든 것은 헛소리에 불과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점심과 짧은 낮잠으로 기력을 보충한 앤스트러더 부인은 교회당 측문으로 이어지는 관목길을 따라 자리한 스케칭 의자에 편안히 앉았다. 그녀는 나무와 건물을 가장 좋아하는 소재로 여겼고, 여기서는 두 가지를 모두 훌륭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녀는 열중해서 작업을 이어갔다. 서쪽의 울창한 언덕이 해를 가리기 시작할 무렵에는, 그림이 정말로 보기 좋은 작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하려 했으나, 빛은 빠르게 변했고 마지막 다듬질은 내일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일어나 집 쪽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잠시 멈춰 서서 맑은 녹색의 서쪽 하늘을 만끽했다. 그 후 그녀는 어두운 회양목 사이를 지나쳤다. 길이 잔디밭으로 이어지는 지점 직전, 그녀는 다시 한번 멈춰 서서 고요한 저녁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메모했다. 하늘 선에 보이는 것이 바로 루팅의 한 교회당 탑이라는 것을.

그때 왼쪽 회양목에서 새(아마도)가 날갯짓하며 소리를 냈다. 그녀는 놀라 돌아서서 처음에는 11월 5일의 가면을 쓴 누군가가 나뭇가지 사이로 엿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가면이 아니었다. 얼굴이었다. 크고 매끄럽고 분홍빛을 띤 얼굴. 그녀는 이마에서 땀하던 땀방울 하나하나를 기억한다. 턱수염이 깔끔하게 면도되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한다. 그리고 입은 벌어져 있었고, 윗입술 아래로 단 한 개의 이가 드러나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한다. 그 기억은 너무 선명해서,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가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얼굴은 덩불의 어둠 속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집의 피난처로 달려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그제야 주저앉고 말았다.

앤스트러더 부부는 브라이튼에서 일주일 이상 휴양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에식스 고고학 협회로부터 회람장이 도착했다. 협회가 간행 예정인 『에식스 초상화』에 수록할 특정 역사적 초상화가 부부에게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동봉된 서기장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담겨 있었다.

“저는 동봉한 사진과 같은 판화의 원본을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지 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찰스 2세 시기 대법관이었던 서----- 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하도 아시겠지만, 그는 실각 후 웨스트필드로 은퇴했고, 그곳에서 자책감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웨스트필드가 아닌 프라이어스 루팅의 등록부에 이상한 기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서 경이 죽은 후 교구가 심하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필드의 목사가 모든 루팅의 목사들을 소집해 그의 혼령을 잠재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말뚝은 웨스트필드 교회당 서쪽 옆 들판에 있다.’

혹시 귀하의 교구에 이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봉된 사진’이 불러일으킨 사건들은 앤스트러더 부인에게 극심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결국 그녀는 겨울을 해외에서 보내기로 결정했다.

앤스트러더 씨는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 웨스트필드로 내려갔다. 그는 이 이야기를 당연하게도 교구목사(노령의 신사)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목사는 별다른 놀람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저는 스스로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지 대부분 추측해 냈습니다. 노인들이 나누던 이야기와 이곳 정원에서 본 것들 덕분이었죠. 물론 우리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당신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같기도 했죠. 어느 날 밤에는 이 정원에서 소리가 났는가 하면, 다른 때에는 여러 오두막 주변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곧 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기록에는 매장 기록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가족의 표어라고 믿었던 것도 있지만, 이번에 다시 보니 나중에 추가된

글씨였습니다. 17세기 후반의 어느 교구장인 A.C., 오거스틴 크롭턴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더군요. 여기 있습니다. _Quieta non movere_.
‘고요한 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죠. 음, 저는 아마도…… 음, 정확
히 뭐라고 추측해야 할지 망설여지네요.

미도트 논고

가을 오후의 끝자락이었다. 날카롭게 마른 얼굴에 회색의 긴 구레나
룻을 기른 노인이, 유명한 도서관 중 한 곳의 현관으로 이어지는 여닫
이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는 안내원에게 다가가, 자신이 이곳을 이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책을 반출해도 되는지 물
었다.

안내원은 물었다. 그 특권을 가진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면 가능
하다고. 노인은 자신의 명함, 존 엘드레드 씨의 명함을 건넸다. 명단을
확인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이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오랜만에 이곳을 찾
아왔어서 건물 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 계다가 폐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계단을 급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저에게는 무리입니다. 제가
원하는 책의 제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찾아다 줄 수 없겠
습니까?”

안내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지나가던 젊은이를 불렀다.

“가렛 씨, 이 분을 도와줄 시간이 있으신가요?”

“기꺼이 기꺼이.” 가렛 씨의 대답이었다.

제목이 적힌 쪽지가 그에게 건네졌다.

“이 책이라면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에 제가 조사한 분류대에 있는 책인 듯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카탈로그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특정 판본이시죠, 경?”

“네, 그 판본만 원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존 엘드레드 씨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경. 별일 아닙니다.” 가렛 씨가 대답하고는 재빨리 자리를 떴다.

그는 손가락으로 카탈로그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특정 항목에서 멈췄다.

‘맞는군.’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탈무드. 미도트 논고, 나흐마니데스의 주석 포함. 암스테르담, 1707년. 기호 11.3.34. 히브리어 분류군이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군.”

엘드레드 씨는 현관석에 의자를 마련받아, 보낸 사환의 귀환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계단 아래로 비어 있는 손으로 내려오는 가렛 씨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실망감은 여실히 드러났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기대에 못 미치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 책은 이미 반출되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그런가? 실수는 없겠지?”

“실수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신다면, 바로 그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곧 도서관을 나가실 테고, 제가 그분이 책장에서 바로 그 책을 꺼내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모양이군. 교수님 중 한 분이었나, 아니면 학생이었나?”

“아닙니다. 확실히 교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인물이었다면 기억했을 텐데, 이 시간대 도서관의 그쪽 구석은 조명에 그리 밝지 않아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키가 작달막한 노신사였는데, 아마 신부님일 겁니다. 망토를 두르신 채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그분이 그 책을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엘드레드 씨가 말했다. “지금은 기다릴 수 없어요. 고맙지만요. 저는 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책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만약 저희가—”라고 말했지만, 엘드레드 씨는 이미 자리를 뜨고 있었다. 그는 평소라면 건 강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급하게 서두르고 있었다.

가렛은 잠시 시간이 남았다. 그는 생각했다. ‘그 서가로 다시 가서 그 노인을 찾아볼까. 아마 그는 그 책 쓰는 일을 며칠 미룰 수 있을 거야. 다른 한 사람은 오래 보관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히브리어 서가 칸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고, 11.3.34로 표시된 책은 책장 제자리에 있었다. 가렛의 자존심에는 작은 이유 하나만으로 문의자를 실망시킨 것이 불쾌했다. 그는 도서관 규칙이 아니라면, 엘드레드 씨가 방문할 때를 대비해 그 책을 현관으로 가져다놓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를 기다리며 눈여겨보겠다고 다짐했고, 문지기에게 그 순간이 오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실제로 그는 엘드레드 씨가 도착했을 때 현관에 있었는데, 이는 도서관이 문을 연 직후였으며 직원들 외에는 거의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다.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한 적이 드물지만, 제가 본 그 노신사는 책을 꺼내어 펼치지 않고 손에 쥔 채로 들고 계셨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갈 때는 보통 그렇게 하죠, 선생님. 단순히 참고용이 아니라 실제로 가져가려는 의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바로 올라가서 책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엘드레드 씨는 복도를 거닐며 벽에 붙인 안내문을 모두 읽어 내려갔다. 시계를 꺼내 확인하고는 계단 위를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그는 초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모든 행동을 다 해 보았다. 약 스무 분이 지나서야 그는 마침내 문지기를 향해 말을 걸었다. 가렛 씨가 들어간 도서관의 그 부분이 얼마나 먼 곳인지 물었다.

“아,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상하군요, 선생님. 가렛 씨는 평소엔 아주 빠른 분인데, 확실히 사서가 그를 부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전성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가 전성관에 말을 걸었다. 그의 얼굴이 답변을 듣는 순간 달라졌다. 그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고, 곧바로 답이 돌아왔다.

그가 카운터 앞으로 나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좀 불쾌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렛 씨가 갑자기 몸이 나빠지셨더군요. 사서가 그를 다른 쪽으로 택시에 태워 보내셨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발작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누군가 그를 다치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폭력은 아닙니다. 제가 추측하기엔, 말씀하신 대로 질병의 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렛 씨는 체력이 약하시더군요. 하지만 책에 관해서는, 어쩌면 직접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실망시키다니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음--아, 하지만 가렛 씨가 제 부탁을 들어주다 갑자기 쓰러지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책을 두고 다시 들르겠습니다. 그분 상태를 물어봐야겠군요. 주소라도 알려주실 수 있겠죠?”

이건 쉽게 해결되었다. 가렛 씨는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방을 구해 살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떠난 후, 노신사 한 분이 도서관을 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마 신부님이실 텐데, --네, --검은 망토를 입으신 분이요. 아마 머무르고 계셨거나, 아니면 제가 알던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검은 망토를 입지는 않았습시다, 선생님. 아닙니다. 그 시간 이후로 남은 신사는 두 분뿐이었습니다. 둘 다 비교적 젊은 남자였죠. 카터 씨가 악보집을 꺼내 들고, 한 교수는 소설책 두 권을 챙기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는 차 한 잔 하러 갔죠.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엘드레드 씨는 불안에 떨며 택시를 타고 가렛 씨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젊은이는 아직 방문객을 받을 상태가 아니었다. 컨디션은 나아졌지만, 여주인은 그가 심한 충격을 받은 게 틀림없다고 여겼다. 그녀는 의사 말에 따르면 내일쯤 엘드레드 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저녁 무렵, 엘드레드 씨는 호텔로 돌아갔고, 나는 그가 지루한 저녁을 보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음 날 그는 가렛 씨를 만날 수 있었다. 평소 건강할 때 가렛 씨는 밝고 친근해 보이는 젊은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매우 창백하고 떨리는 존재로, 난로 옆의 안락의자에 기대 앉아 떨기를 반복하며 문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환영할 준비가 되지 않은 방문객이 있었다면, 엘드레드 씨는 그중 한 명이 아니었다.

“실은 제가 먼저 사과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주소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찾아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토록 번거로운 일을 끼쳐 드려 싫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이 발작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의학적 지식이 좀 있습니다. 여쭙봐도 될까요? 확실히 좋은 조언을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넘어지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충격이었죠.

“당신은 무언가 당신을 놀라게 했다는 뜻이군요. 혹시 당신이 본 것 같은 것이 있었나요?”

“이 일에는 별다른 ‘생각’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직접 본 것이거든요. 처음 도서관에 찾아왔을 때 기억나시죠?”

“네, 물론이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기억해 내는 게 당신에게 좋을 게 없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당신 같은 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바로 당신 책이 있는 칸으로 들어갈 때였어요.”

“정말이지, 가렛 씨, 부디 그러지 마세요. 게다가 제 시계가 알려주기에, 짐을 정리하고 기차에 타기까지 남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아마도 상상하시던 것보다 더 당신에게 고통이 될 테니까요. 이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간접적으로나마 당신의 이 병에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음, 그렇지 않습니까?--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단호히 거절당했다. 엘드레드 씨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곧장 자리를 떴다. 그러나 가렛 씨는 그가 떠나는 순간까지, 『미도트』 논편의 분류 기호를 적어 가라고 고집했다. 직접 가서 나중에 편하게 찾아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엘드레드 씨는 다시는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았다.

* * * * *

윌리엄 가렛은 그날 또 한 명의 손님을 맞았다. 도서관 동료인 조지 얼이었다. 얼은 가렛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이들 중 한 명이었다. 가렛이 쓰러진 곳은 히브리어 서고가 있는 작은 칸막이

안쪽, 중앙 복도와 연결된 공간이었다. 얼은 친구의 상태가 매우 걱정스러웠다.

도서관이 문을 닫자마자 얼은 가렛의 숙소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가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말했다.

“무슨 일로 몸이 망가졌는지 나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도서관 공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 내가 쓰러지기 직전, 난 데이비스와 함께 복도를 걷고 있었어. 내가 그에게 물었지. ‘여기 냄새 좀 봐. 이렇게 썩은 냄새를 본 적이 있나? 건강에 좋을 리가 없어.’”

“이런 냄새를 오래 마시면 몸속까지 스며들 거야. 언젠가 폭발하지. 너도 그렇지?”

가렛이 고개를 저었다.

“냄새에 대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최근 이틀 정도는 느껴졌죠. 마치 인위적으로 강하게 퍼진 먼지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무너진 원인이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래층에서 그 책을 찾는 분을 위해 한 권의 책을 가져오려 히브리어 수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어제 그 책과 관련해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분을 위해 그 책을 찾으러 갔다가, 망토를 걸친 늙은 목사가 서서 그 책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빌려갔다고 말했고, 그 분은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에게 직접 책을 가져갈 수 있는지 확인하러 다시 갔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없었고, 책은 그대로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오전 10시였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수업실은 언제나처럼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가 찾던 책 선반을 바라보고 서 있는, 바로 그 목사가 있었습니다. 등 뒤를 보였습니다. 그의 모자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는 대머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말씀드립니다만, 그의 대머리는 매우 불쾌해 보였습니다. 말라 비틀린 듯했고, 먼지가 앉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은 머리카락이라기 보다는 거미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소리를 내어 기침을 하고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자 그가 돌아서서 얼굴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의 아랫부분은 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윗부분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피부는 완전히 마른 상태였고, 눈은 매우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썹부터 뺨뺨까지, 그 위를 두꺼운 거미줄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 * * * *

이 현상에 대해 일이 어떤 설명을 내놓았는지는 우리가 깊게 파고들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그 설명들은 그가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가룻을 납득시키지는 못했다.

* * * * *

윌리엄 가렛이 도서관으로 복귀하기 전, 관장은 그가 일주일간 쉬며 공기를 바꾸라고 고집했다. 며칠 뒤, 그는 가방을 들고 역에 도착해 번스트우온시(Burnstow-on-Sea)행 기차에 탈 만한 적당한 흡연실 좌석을 찾았다. 그곳은 그가 이전에 방문한 적이 없는 곳이었다.

적합해 보이는 좌석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 칸으로 다가가려던 순간, 문 앞에 선 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은 최근의 불쾌했던 기억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는 숨이 턱 막히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는 바로 옆 칸의 문을 힘껏 열어젖히고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발밑을 쫓아오는 듯이 급하게 말이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마도 완전히 기절했을 것이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누군가 정신이 들게 하는 냄새약 병을 코에 대주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의사는 외모가 단아한 노부인이었고, 그녀의 딸과 함께 그 차 안에는 그들 두 사람만이 유일한 승객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동행자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감사의 인사나 문안, 그리고 일반적인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렛은 여행이 끝나는 시점까지 의사뿐만 아니라 한 여관 여주인까지 만나게 되었다. 심슨 부인이 번스토우에 방을 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은 여러 면에서 조건이 완벽해 보였다.

그때는 한산한 시기라 숙소는 비어 있었다. 그래서 가렛은 어머니와 딸의 곁에 자주 있게 되었다. 그는 그들을 매우 좋은 동반자로 여겼다. 그의 체류 삼일째 되는 저녁, 그는 그들과 충분히 친밀한 사이가 되어, 그들의 사적인 거실에서 밤을 보내는 초대를 받게 되었다.

그들 사이의 대화 끝에 드러난 사실은, 가렛의 일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아, 도서관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심슨 부인이 한숨을 쉬며 손에 들고 있던 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책이 저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죠. 정확히 말하면, 한 권의 책이요.”

“글쎄요, 책들은 제 생계를 책임져주는 것이지요, 심슨 부인. 그것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하기는 싫습니다. 당신에게 해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마 가렛 씨라면 우리 수수께끼를 풀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심슨 양이 말했다.

“가렛 씨를 평생 쓸데없는 사냥에 나서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사랑. 우리 사사로운 일에 그의 신경을 쓰게 하지도요.”

“하지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심슨 부인, 그 수수께끼가 무엇인지 꼭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그 일이 책에 관한 어떤 사실을 밝혀내는 일이라면, 저는 이를 해결하기에 꽤나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아시죠.”

“네, 그건 저도 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책의 제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시고요?”

“네, 그것도 몰라요.”

“영어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말고는, 별다른 단서가 없어요, 어머니.”

“가렛 씨,” 심슨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아직 일을 재개하지 못한 채, 불꽃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

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다른 이들에게는 말하지 말아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게는 란트 박사라는 늙은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가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습니
다. 다만, 그가 묻히기로 택한 기이한 방식 때문에 유명할 뿐이었습니
다.”

‘어딘가 안내책자에서 그 이름을 본 것 같기도 하군.’

“그렇겠죠.” 심슨 양이 말했다. “그는 죽어서도 잔인한 명령을 남겼
어요. 무서운 노인이었죠. 평소 입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 그대로 매장하라고 했습니다. 집 근처 들판에 그가 직
접 지시해 만든 붉은 벽돌로 된 지하 방에요.”

물론 시골 사람들은 그가 낡은 검은 망토를 걸친 채 그 근처를 배회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들 말해요.

“음, 사랑하는 사람아. 그런 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그
는 이미 스무 해가 넘게 죽었지. 그는 성직자였어. 내가 어떻게 그가 그
런 신분이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는 마지막 생
애를 보내는 동안 아무런 의무도 다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제 더 나왔
다고 봐.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살았지.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좋은 영지가 있었어. 그는 아내나 가족이 없었어. 조카딸인 나와
조카아들 하나뿐이었지. 그는 우리 둘 중 누구에게도 특별한 애정을 느
끼지 않았어. 그건 다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였지. 오히려 그는 내 사
촌인 존을 나보다 더 좋아했어. 존은 성품이 그에게 훨씬 더 닮았고, 유
감스럽지만, 그 아주 비열하고 날카로운 성미까지 닮았거든. 내가 결

혼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랐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결혼했고, 그는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지.

어쨌든 그는 그 영지와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었어. 그가 절대적인 처분권을 가졌던 돈이었지. 그리고 그가 죽은 후 그 재산은 우리, 즉 내 사촌과 내가 똑같이 나누기로 되어 있었어. 스무 해 전의 어느 겨울, 그가 병에 걸렸을 때 나는 그를 간호하러 보내졌지. 그때 내 남편은 아직 살아 있었지만, 그 노인은 그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내가 마차를 몰아 집에 다다랐을 때, 나는 내 사촌 존이 지붕 없는 마차를 타고 집을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 그는 매우 좋은 기분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 나는 올라가서 할 수 있는 한 나의 삼촌을 돌봤어. 하지만 나는 곧 이것이 그의 마지막 병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 역시 그것을 확신했어.

그가 죽기 전 날, 그는 내내 그 곁에 앉아 있도록 했어. 그리고 나는 그가 나에게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아마도 불쾌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것을 가능한 한 늦게까지 미뤘어. 아마도 의도적으로 나를 긴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결국, 그는 그것을 말했어. ‘메리,’ 그가 말했어. ‘메리, 나는 존을 위해 유언장을 만들었어. 그는 모든 것을 가질 거야, 메리.’

물론 그것은 나에게 쓴 충격이었어. 왜냐하면 우리, 즉 내 남편과 나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가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었다면, 나는 그것이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

만 나는 삼촌에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가 할 말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더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는 정말 더 말했어. ‘하지만, 메리,’ 그가 말했어. ‘나는 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너를 위해 다른 유언장을 만들었어. 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너는 그 유언장을 찾아야 해. 그리고 나는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더니 그는 혼자 낄낄 웃었고, 나는 그가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다렸어. ‘좋은 아이야,’ 그가 잠시 후 말했어. ‘너는 기다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존에게 말한 만큼만 말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상기시켜 주자.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법정에서 가져갈 수 없어. 너는 너의 말 외에는 어떤 보조 증거도 제시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존은 필요하면 조금 더 단호하게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건 이해되었지. 이제, 나는 이 유언장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쓰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책에 썼어, 메리. 인쇄된 책에. 그리고 이 집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건 그 중 하나가 아니야. 그것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 존이 갈 수 있고, 만약 그가 안다면 찾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너는 갈 수 없는 곳. 그것은 좋은 유언장이야. 제대로 서명되고 증인도 있었어. 하지만 너는 그 증인들을 쉽게 찾지는 못할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 늙은 악당을 붙잡아 흔들어야 했을 것이다. 그는 그곳에 누워 혼자 웃고 있다가, 마침내 말했다.

“자, 자. 너희는 제법 침착하게 받아들이는군. 나도 둘을 동등한 출발선에 세우고 싶으니, 존이 책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만큼,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던 두 가지만 너에게 알려주마. 유언장은 영어로 되어 있다. 하지만 네가 그것을 본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내가 죽은 후 내 서랍에서 너를 향해 부쳐진 봉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다. 그 안에는 네가 그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들어 있다. 다만, 그걸 사용할 지혜만 있다면 말이다.”

그는 그로부터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 나는 존 엘드레드에게 그 일에 대해 간곡히 호소했지만—

존 엘드레드? 죄송합니다, 심슨 부인. 존 엘드레드라는 분을 뵈는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 외모가 어땠나요?

그를 본 지 꼭 10년은 지났다. 지금쯤이면 그는 말라비틀어진 노인이 되어 있을 테고, 만약 수염을 깎지 않았다면, 예전에 ‘던드리’라든가 ‘피카딜리’ 같은 이름으로 부르던 그런 수염을 달고 있을 것이다.

“—워퍼스쥬.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렛 씨, 그분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렛이 거짓말을 하며 말했다. “어떤 공공장소에서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사실 나는 덧붙일 말이 많지 않았다. 존 엘드레드는 내 편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이후로 그 유산을 마음껏 누려 왔다는 것뿐이다. 반면 나와 딸은 이곳에서 여관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결코 불쾌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봉투에 관해서 말이지.

“당연하지! 그 퍼즐의 핵심이 바로 그거야. 내 책상에서 종이를 꺼내서 가렛 씨에게 주시오.”

손바닥만 한 작은 종이조각이었다. 위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오직 다섯 자리 숫자, 11334가 있을 뿐이었다. 숫자 사이에는 칸도, 구두점도 없었다.

가렛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엘드레드 씨가 그 책의 제목에 대해 당신보다 더 많은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심슨 부인이 말했다. “내 생각이 맞다면, 이렇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유언장을 작성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삼촌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한 직후, 그 책을 즉시 치워버리셨겠죠.”

하지만 삼촌의 모든 책은 매우 철저히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 목록은 존이 가지고 있고, 존은 집안에서 단 한 권의 책도 팔지 말라

는 점을 유독 신중하게 지시했다. 게다가 존은 항상 서점이나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책을 찾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저는 존이 목록에 등재된 책들 중 삼촌의 도서관에서 정확히 어떤 책들이 사라졌는지 알아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누락된 책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가렛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침묵에 잠겼다.

* * * * *

다음 날, 그는 심슨 부인에게 큰 유감을 표하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편지 내용은 그가 번스토우에서의 체류를 강제로 줄여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그들도 적어도 그만큼은 그를 보내기 아쉬워했다), 심슨 부인, 아니 (덧붙이자면) 심슨 양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위기가 곧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기차 안에서는 가렛이 안절부절못했다. 그는 머리를 쥐어짜며, 엘드레드 씨가 찾아보던 책의 서가 번호(press mark)가 심슨 부인의 작은 종이 조각에 적힌 번호와 어떤 식으로든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려 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지난 주에 받은 충격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책의 제목이나 성격에

대한 흔적조차 기억해 내지 못했다. 더구나 그 책을 찾으러 갔던 장소에 대한 기억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서관의 다른 모든 지리적 구조와 업무에 대해서는 그가 평소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화가 나 발을 동동 구르며 생각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결국 잊고 말았던 것이다. 심슨 부인에게 엘드레드가 사는 곳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것쯤이야 그는 충분히 글로 써낼 수 있었다.

적어도 그는 종이에 적힌 숫자라는 실마리를 손에 쥐고 있었다. 만약 이 숫자가 그의 도서관에 있는 책의 서가 번호(press mark)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제한되어 있었다. 숫자는 1.13.34, 11.33.4, 혹은 11.3.34로 나눌 수 있었다. 그는 몇 분이면 이 모든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만약 어떤 책이 없다면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곧장 일을 시작했다. 다만, 너무 일찍 돌아온 것에 대해 여주인과 동료들에게 설명하는 데 몇 분을 더 써야 했다.

1.13.34는 제자리에 있었고, 다른 글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복도에서 11번 대목 가까이에서 다다랐을 때, 그 숫자가 주는 연상 작용은 그를 오히려 얼어붙게 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계속해야 했다.

그는 먼저 시선을 마주친 11.33.4를 대충 훑어보았다. 그 책은 완전히 새로운 책이었다. 이어 그는 11.3번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는 4판본(quartos)들의 줄을 따라 시선을 흘렸다. 그가 두려워하던 빈자리가 있었다. 34번이 빠져나간 자리였다.

그 책이 잘못 꽂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데 잠시 시간을 보낸 후, 그는 복도 입구로 향했다.

“11.3.34호가 이미 나갔나요? 그 번호를 유심히 보셨나요?”

“숫자 보셨나요? 제게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 건가요, 가렛 씨? 자, 여기 티켓을 받아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앞으로 한가한 날이 있다면 말입니다.”

“자, 엘드레드 씨가 또 찾아왔나요? 제가 알아누웠던 날 왔던 그 노신사요. 기억나시죠?”

“무슨 말씀이시죠? 물론 그 사람 기억나죠. 아니요, 그 이후로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당신이 휴가 떠나신 이후로는요. 그런데 웬지…… 음, 로버츠라면 알 거예요. 로버츠, 헬드레드라는 이름 기억나?”

“아무렴요.” 로버츠가 말했다. “그건 소포 값에 보너스를 얻어 보낸 그 남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엘드레드 씨에게 책을 보내고 있었다는 건가요? 제발, 분명히 말해 주시겠어요? 정말로 그러셨나요?”

“자, 가렛 씨. 한 신사가 표를 정확히 작성해 보내고, 비서가 이 책이 보내도 된다고 하며, 주소가 적힌 상자를 준비해 그 메모와 함께 보낸다면요. 그리고 철도 운임으로 충분할 만큼의 돈을 함께 보내온다면요. 가렛 씨라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귀찮더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셨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셨겠습니까?”

당신이 완전히 옳았어요, 호드슨씨. 정말로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엘드레드 씨가 보내준 티켓을 좀 보여주시고, 그의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렛 씨. 제가 제 의무를 모른다고 꾸짖거나 당황하게 하지 않는 한, 저는 제 능력껏 모든 면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 위에 티켓이 놓여 있죠. J. 엘드레드, 11.3.34. 작품 제목: T-a-l-m--글쎄요, 여기서는 마음대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설은 아닐 것 같네요. 제가 추측건대요. 그리고 여기서 엘드레드 씨가 해당 책을 요청한 메모가 있네요. 그는 그것을 ‘추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하지만 주소는? 쪽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군.”

“아, 맞습니다. 글쎄요, 잠깐만요, 가렛 씨. 알았어요. 그 쪽지는 소포 안에 들어 있었죠. 소포에는 책이 들어 있고, 그대로 돌려보내도 될 수 있도록 주소가 미리 적혀 있었어요. 만약 제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실수는 단 한 군데에 있어요. 제가 이 작은 책에

그 주소를 적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 작은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물론 제가 그 주소를 적지 않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이유를 따져볼 시간도, 가렛 씨에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아니요, 가렛 씨, 저는 그 주소를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굳이 이 작은 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이 작은 책은 평범한 일반 노트예요.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이름과 주소를 여기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정말 알찬 구성이군요. 물론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소포는 언제 발송했죠?”

오늘 아침 열 시 삼십 분이었다.

“좋아, 이제 막 1시군.”

가렛은 깊은 생각에 잠겨 계단을 올랐다. 어떻게 해야 그 주소를 알 수 있을까? 심슨 부인에게 전보를 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답장을 기다리는 사이 기차를 놓칠 수도 있었다. 아니, 다른 방법이 하나 있었다. 그녀가 말했듯이, 엘드레드가 삼촌의 토지에서 살고 있다면, 그 장소를 기부록에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는 그 책의 제목을 알고 있었으니, 빠르게 훑어볼 수 있었다.

그는 곧장 기록장을 앞에 두고, 노인이 이미 스무 해 이상 전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충분한 여지를 두고 1870년으로 되돌아갔다. 가능한 항목은 하나뿐이었다. 1875년 8월 14일. _탈무드: 미도트 논술

및 라비 나흐마니데스의 주석._ 암스테르담, 1707년. J. 란트 신학박사 (D.D.), 브레트필드 저택 기증.

지도집을 펼쳐 보니 브레트필드는 본선상의 작은 역에서 불과 3마일 떨어져 있었다. 문지기에게 물었다. 소포에 적힌 이름이 브레트필드와 비슷한 것이었는지 기억나느냐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 생각나네요, 가렛 씨. 브리드필드였는지, 브리트필드였는지…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다른 이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상황은 아직 양호했다. 다음은 시간표였다. 기차는 20분 안에 탈 수 있었다. 여정에는 두 시간이 걸렸지만, 그건 유일한 기회였고,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그리고 기차는 실제로 타게 되었다.

그는 올라갈 때는 조바심을 부렸지만, 내려오는 길에는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엘드리드를 만나면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 ‘그 책이 희귀본이라 회수해야 한다’고 말할 수나 있을까? 명백한 거짓말이다. ‘중요한 필사본 주석이 담겨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엘드리드는 당연히 책을 보여줄 것이고, 그때면 이미 한 장이 뜯겨 나간 뒤일 것이다. 아마도 여백의 한 장이 찢겨 나간 자국이라도 남아 있겠지. 하지만 엘드리드가 ‘나도 그 훼손을 보고 유감스럽게 여겼다’고 단정 지을 때, 누가 그 말을 반박할 수 있겠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추격은 거의 희망 없는 일처럼 보였다. 유일한 기회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 책은 열시 삼십 분에 도서관을 떠났다. 열

한 시 이십 분에 떠나는 첫 번째 열차에 실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책과 동시에 도착해 엘드리드를 설득할 핑계를 꾸며낼 수도 있겠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는 자신의 역 플랫폼에 내려섰다. 시골 역답게 이곳은 유난히도 고요했다. 함께 내린 한두 명의 승객이 사라져갈 때까지 기다린 뒤, 그는 역무원에게 엘드레드 씨가 근처에 있는지 물었다.

“네, 거의 다다랐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는 받을 소포를 받으러 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미 한번 찾으러 왔었죠, 밥?”(짐꾼에게)

“네, 맞습니다. 그분은 두 시 열차로 오지 않은 게 다 제 탓인 줄 아시는 눈치였어요. 어쨌든 이제 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짐꾼이 손에 든 네모난 소포를 힘차게 흔들었다. 한눈에 봐도 그 안에 가렛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모두 들어 있다는 게 확실했다.

“브레트필드요, 선생님? 네, 거의 삼 마일 정도 됩니다. 이 세 필드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이 반 마일가량 거리를 줄여주죠. 어, 저기요. 엘드리드 씨의 마차가 있네요.”

작은 이륜마차(도그카트)가 정거장 옆으로 들어섰다. 마차 안에는 두 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다. 가렛은 작은 정거장 마당을 가로질러 뒤를 돌아보며 그중 한 사람을 쉽게 알아봤다.

엘드리드가 마부를 맡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약간의 희망을 줬다. 아마도 그는 하인 앞에서 소포를 열지 않을 테니까. 반면에 마차는 집으로 빨리 도착할 것이고, 만약 엘드리드가 도착한 지 몇 분 이내에 가렛이 그곳에 닿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끝장 날 것이다. 그는 서둘러야 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랬다.

그가 선택한 지름길은 삼각형 모양의 길 중 한쪽 변을 따라가는 것이었지만, 마차는 두 변을 지나야 했다. 게다가 마차는 정거장에서 잠시 멈춰 서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그 결과 가렛이 세 개의 들판 중 세 번째에 들어섰을 때, 그는 마차 바퀴 소리가 꽤 가까이서 들리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는 가능한 한 최선의 속도로 달렸지만, 마차가 다가오는 속도는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이대로라면 마차는 자신보다 십 분 일찍 집에 도착할 것이었고, 십 분이면 엘드리드 씨의 계획이 충분히 성사될 시간이었다.

그때쯤 되자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밤공기는 고요했고,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그가 지금 듣게 된 소리만큼 안도감을 안겨준 적은 없었다. 수레가 멈춰 서는 소리였다. 몇 마디 말이 오간 뒤, 수레는 다시 움직였다.

가렛은 극도의 불안에 떨며 멈춰 섰다. 수레가 옆에 서 있던 계단(스타일)을 지나갈 때, 그 안에 엘드리드 대신 하인만 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엘드리드가 도보로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도 알아챘다.

길로 이어지는 높은 hedge(수풀) 뒤에서 가렛은 그 가늘고 강단 있는 형체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팔 아래에는 소포를 끼고 있었고, 주머니를 더듬고 있었다. 그가 스타일을 지나가는 순간, 무엇인가가 주머니에서 떨어져 풀밭에 떨어졌다. 하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 엘드리드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잠시 후, 가렛은 스타일을 넘어 길로 나가기에 안전한 상황이 되었다. 그는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들었다. 성냥 상자였다.

엘드리드는 계속 걸어갔다. 그는 급한 손짓을 했는데, 길 위로 드리운 나무 그림자 때문에 그 동작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가렛이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자, 그 이유를 여러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줄 한 가닥, 그리고 소포의 포장지였다. 그것들은 hedge 위로 던져지려다 걸려 있던 것이었다.

엘드레드는 이제 걸음걸이가 더뎠다. 희미하게 보기에, 그는 책을 펼쳐 들고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듯했다. 어둠이 내려앉자 그는 분명히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가렛은 곧장 길가 문틈으로 몸을 숨겼지만, 시선은 놓지 않았다.

엘드레드는 급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길가 쓰러진 나무 통나무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책을 눈앞에 바짝 들이댔다. 그러다 갑자기 책을 열린 채 무릎 위에 내려놓더니, 주머니를 뒤적였다. 빈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는 모습은 헛수고였으며, 그의 짜증이 역력했다.

‘지금 성냥 한 개만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가렛은 생각했다.

그가 한 장의 페이지를 잡으려다 찢으려던 찰나,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 먼저, 하얀 페이지 위에 무언가 검은 것이 뚝 떨어져 내려가며 번져나갔다. 엘드레드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나무 통나무 뒤 그림자 속에서 작은 검은 형체가 솟구쳐 올랐다. 그 그림자에서 두 개의 팔이 검은 덩어리를 감싸 안은 채 엘드레드의 얼굴 앞으로 드러났고, 그의 머리와 목을 뒤덮었다.

엘드레드의 사지와 팔이 제멋대로 허공을 휘저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후 더 이상 움직임은 없었다. 엘드레드는 홀로 남았다. 그는 나무 통나무 뒤 풀밭으로 쓰러져 내려갔다. 책은 도로 위에 던져진 채였다.

이 끔찍한 몸부림을 목격한 순간, 가렛의 분노와 의구심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갔다. 그와 거의 동시에, 맞은편 밭에서 막 나온 한 노동자도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그로서는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드레드 곁으로 다가가 그를 부축했지만, 소용없었다. 그가 이미 죽었다는 결론은 불가피했다.

그들이 그를 눕힌 뒤 가렛이 노동자에게 물었다.

“불쌍한 분이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스콰이어 엘드레드가 책을 읽고 있는 걸 이백 야드도 안 떨어진 곳에서 봤어요.” 노동자가 말했다. “내 생각엔 돌연 발작이 온 것 같은데, 얼굴이 온통 새까맣게 변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가렛이 말했다. “당신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누군가 습격한 것은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이나 제가 보지 못했으면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자, 이제 도움을 부르도록 합시다. 의사도, 경찰도요. 그리고 아마 이 책은 제가 맡는 게 좋겠군요.”

당연히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는 공식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고, 가렛은 브레트필드에 머물러 증언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자명했다.

의사의 부검 결과, 시신의 얼굴과 입안에서 검은 먼지가 약간 발견되기는 했지만, 사망 원인은 질식이 아니라 약한 심장에 가해진 충격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그 ‘운명적인 책’이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그것은 제법 훌륭한 4절판 책으로, 전체가 히브리어로 인쇄되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극도로 민감한 사람조차 경악할 만한 외모는 아니었다.

“가렛 씨, 말씀하시길, 발작 직전 그 고인이 이 책의 한 장을 찢어내려던 듯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아요. 먼지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기 먼지 한 장이 일부만 찢겨 있습니다. 그 위에 히브리어 글씨가 적혀 있군요. 부디 확인해 주시겠소?”

“영문 이름이 세 개와 날짜도 적혀 있긴 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는 읽을 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름들은 서명처럼 보입니다. 존 란트, 월터 김슨, 제임스 프로스트, 그리고 날짜는 1875년 7월 20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 이 이름들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석에 있던 교구장은 한 가지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혔다. 고인이 물려받은 삼촌의 성이 란트(Rant)였다는 것이다.

책을 건네받자 그는 당혹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배운 히브리어와는 사뭇 다르군.”

“그것이 히브리어가 맞는지 확인하는가?”

“뭐라고요? 음, 그렇군요…… 아니요, 친애하는 선생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정확히 그 지점을 찌르는 제안이군요. 물론, 그것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영어로 된 유언장입니다.”

그렇게 몇 분 지나지 않아, 여기가 정말 존 란트 박사의 유언장임이 드러났다. 존 엘드리드가 최근까지 소유하고 있던 재산 전체가 메리 김슨 부인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문서가 발견된다면, 엘드리드 씨의 격앙된 반응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페이지 일부가 찢어진 것에 대해서는, 부검관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미 입증할 수 없는 추측을 늘어놓아 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 * * * *

검시관은 자연스럽게 「트랙테이트 미도트」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인수했다. 가렛 씨는 검시관에게 사적 이력을 설명했고, 그가 알고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사건의 상황도 밝혔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역으로 가는 길, 그는 엘드레드 씨가 비참한 일을 당했던 그 장소를 지나쳤다.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다시 한 번 둘러봐야만 했다. 비록 아침 햇살이 밝고 환했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기억이 그의 등을 식게 만들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잘려 나간 나무 뒤로 돌아갔다. 여전히 그 곳에 누워 있던 검은 무언가가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잠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 검은 것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두꺼운 검은 거미줄 덩어리였다. 그는 지팡이로 그것을 조심스레 건드렸다. 그러자 몇 마리의 거대한 거미가 거미줄에서 나와 풀밭으로 달아났다.

* * * * *

윌리엄 가렛이 어떻게 거대한 도서관의 사서 보조원 신세에서 브레트필드 매너의 차기 소유주가 되었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현재 그 매너는 그의 장모인 메리 심슨 부인이 살고 있다.

문을 치다

190_년 4월 15일

친애하는 선생님,

---- 협의회는 귀하가 차기 모임에서 낭독해 주시겠다고 기꺼이 제안해 주신 「연금술의 진실」 논문 초안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또한 협의회는 이를 프로그램에 포함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귀하께 올림

비서

* * * * *

4월 18일

친애하는 귀하,

죄송하지만, 저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귀하가 제안하신 논문에 관해 면담을 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제안하신 대로 우리 이사회 위원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출하신 초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었음을 확신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초안은 가장 유능한 전문가의 판단을 거친 끝에 거절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결정에 개인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을 리가 없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위 참조)

* * * * *

4월 20일

---- 협회의 서기는 카스웰 씨에게 정중히 다음과 같이 알린다. 카스웰 씨의 논문 초안이 제출된 인물이나 인물들의 이름을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건과 관련된 추가 서한에는 답장을 드릴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전달한다.

* * * * *

“그렇다면 커즈웰 씨는 대체 누구죠?” 비서의 아내는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사무실을 방문했고, 아마도 지나친 호기심에서였겠지만, 타이피스트가 방금 가져온 세 통의 편지 중 마지막 것을 건네받았다.

“왜냐고요, 내 사랑? 지금 카스웰 씨는 화가 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과, 주소는 워릭셔주의 러퍼드 아베이라는 것, 그리고 알케미스트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 말고는 별다른 정보가 없다는 것, 그리고 한두 주 동안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 정도만 알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곳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면, 저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그분을 화나게 하신 거요?" 장관 부인이 물었다.

“당연한 일이지, 내 친구. 당연한 일이야. 그가 다음 회의에서 발표하려던 논문 초안을 보내왔거든. 우리는 그 논문을 거의 영국에서 유일하게 그 분야를 꿰고 있는 에드워드 던닝에게 검토를 맡겼지. 던닝은 그 논문이 완전히 헛수고임을 단언했고, 우리는 결국 거절했어. 그 이후로 카스웰은 편지를 쏘아붙이고 있어. 그가 가장 원치 않았던 건, 바로 그 논문을 검토해 준 사람의 이름이었지. 내 답장을 보면 알 수 있어. 하지만 절대 이 일에 대해 말하지는 마, 제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불쌍한 더닝 씨라니?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군요. 더닝 씨는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취미도 많고 집안도 넉넉하며, 시간도 온전히 자기 것일 테니까요.”

“그 사람이 그 남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찾아와 귀찮게 구는다면, 저는 그 남자가 불쌍할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음, 네. 그렇다면 그는 가난한 더닝 씨였겠군요.”

비서 부부는 외출 중이었고, 그들이 방문할 친구들은 워릭셔 출신이었다. 비서 부인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커스웰 씨에 대해 신중하게 질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주제에 접근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여주인이 남주인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 러퍼드 대주교님을 보았어요.”

남주가 휘파람을 불었다.

“정말요? 대체 무슨 일로 상경한 거죠?”

“글쎄요, 누가 알겠어요. 제가 지나갈 때 그가 영국 박물관 정문을 나오고 있었거든요.”

비서 부인이 이것이 진짜 대주교를 말하는 것인지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니요, 내 사랑. 우리 시골의 이웃일 뿐이에요. 몇 년 전에 러퍼드 사원을 산 사람이죠. 그의 진짜 이름은 커스웰이에요.”

“그분이 당신 친구인가요?” 비서가 아내에게 은밀히 눈짓을 하며 물었다.

그 질문은 일방적인 비난의 홍수를 불러일으켰다. 커스웰 씨에 대해 말할 만한 미덕은 전혀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의 하인들은 끔찍한 일당이였다.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종교를 발명했고, 어떤 끔찍한 의식을 행하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실천했다. 그는 쉽게 기분이 상했고,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끔찍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부인이 단호하게 주장하는 반면, 남편은 다소

주저했다). 그는 자선 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그가 행사하는 영향력은 모두 악의적이었다.

“가엾은 그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해 주세요, 내 사랑.” 남편이 끼어들었다. “그가 학교 아이들에게 준 대접을 잊으셨군요.”

“잊다니요! 하지만 당신이 언급해줘서 다행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제 들으세요, 플로렌스. 그가 러퍼드에 처음 겨울을 보낼 때, 이 훌륭한 이웃이 그의 교구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학교 아이들에게 환등기(매직랜턴)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우리 교구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를 잘 알고 있죠.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종류의 슬라이드가 있어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목사는 약간 놀랐습니다. 커스웰 씨는 아이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무단 침입을 했다는 따위의 불평을 하곤 했죠. 하지만 당연히 그는 승낙했고, 저녁 시간이 정해졌으며, 우리 친구가 모든 것이 잘 진행되도록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 집에서 열린 아이들의 파티에 참석 중이었거든요.

이 커스웰 씨는 분명히 이 가엾은 마을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는 의도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계속할 수 있었다면,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비교적 온화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빨간 모자’가 그중 하나였는데, 파러 씨에 따르면 늑대가 너무

끔찍해서 몇몇 어린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파러 씨는 커스웰 씨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멀리서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를 내었는데, 그것은 그가 들어본 가장 음산한 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든 슬라이드는 매우 정교했다고 파러 씨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사실적이었고, 그가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작업했는지 그는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잘, 쇼는 계속되었고, 이야기는 매번 조금 더 무서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침묵하여 마비된 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녁 무렵 자신의 공원——즉 러퍼드를 지나가는 한 소년을 묘사한 일련의 슬라이드를 꺼냈습니다. 방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그림에서 그 장소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없는 소년은 미행을 당했고, 결국 쫓기다 따라잡혔으며, 하얀색의 끔찍한 도약하는 생물에게 찢어지거나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 생물은 처음에는 나무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다가 점차 더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파러 씨는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가장 끔찍한 악몽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 많았고, 그는 커스웰 씨에게 매우 날카롭게 말했고,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커스웰 씨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아, 당신은 우리가 작은 쇼를 끝내고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는 또 다른 슬라이드를 켜었습니다. 그것은 뱀, 지네, 그리고 날개가 달린 혐오스러운 생물들의 큰 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하여 그것들이 그림에서 기어나와 관객들 사이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거의 미치게 만든 듯한 마른 소리와 함께 진행되었고, 물론 그들은 우르르 도망쳐 나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방을 빠져나가다가 다쳤고, 그 밤에 눈을 감지 않은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가장 끔찍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은 파러 씨에게 비난의 상당 부분을 돌렸고, 만약 그들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들은 사원의 모든 창문을 깨부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커스웰 씨입니다. 이것이 러퍼드의 대주교님입니다, 내 사랑.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그의 사교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네, 카스웰은 훌륭한 범죄자가 될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주인이 말했다. “그의 미움을 사면 정말 불쌍해질 거예요.”

“그가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과 혼동하고 있는 건가?” 비서가 물었다. 그는 몇 분 동안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사람 특유의 찌푸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가 이전에 _마술의 역사_(History of Witchcraft)를 출간했던 그 사람인가? 10년 전, 혹은 그 이전의 일이었다.”

“그 사람이오. 그 책에 대한 서평들, 기억나시나요?”

“물론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중 가장 날카로운 글을 쓴 저자를 제가 직접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기억나시죠? 존 해링턴 말입니다. 우리 시절 그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다녔으니까.”

“아, 아주 잘 기억하죠. 하지만 제가 내려간 이후부터 그 사건 심문 기사를 읽던 날까지, 그와 관련해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시라고요?’ 한 부인이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는 나무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진 겁니다. 하지만 수수께끼는, 그가 왜 그곳까지 올라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묘한 일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특이한 행동이나 기이한 성향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늦게, 그가 시골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는 노숙자 같은 사람들도 없었고, 그는 그 마을에서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자와 지팡이도 버리고 말이지. 그리고 마침내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는 울타리 사이에 자라고 있었는데, 오르기 꽤 어려운 나무였습니다.

죽은 가지가 끊어지면서 그는 함께 떨어졌고,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끔찍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무엇인가에게 쫓겼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맹견이나 동물원 탈출 짐승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주장으로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188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헨리(캠브리지 시절 잘 알고 지냈지만,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가 그 이후로 해명을 찾기 위해 줄곧 노력해 왔습니다. 그는 분명히 악의가 작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악의가 개입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잠시 후 대화는 다시 『마술의 역사』로 돌아갔다.

"그 책, 깊이 파고들어 본 적 있소?"

주인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그것을 읽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꼼직했을까?”

“문체나 형식 면에서는 완전히 가망이 없었어. 망할 만큼 분쇄당해도 모자랄 정도였지.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어. 그 책은 악의 서적이었어. 그 남자는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었거든. 그리고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그가 제시한 처방전 중 대부분을 실제로 시도해 보았을 거야.”

“음, 내가 기억하는 건 해링턴의 평론뿐이야. 솔직히 말해서, 만약 내가 그 책을 쓴 사람이었다면 문학적 야망은 완전히 꺾였을 거야.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을 테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 시 삼십 분이니, 저는 떠날 시간입니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 * *

* * * * *

현관문에서 약 3백 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탔을 무렵 이미 독서할 기운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다. 게다가 차내 조명은 그를 더 이상 읽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앉아 있는 자신의 정면에 놓인 유리창에 붙은 광고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 노선의 차들에 붙은 광고들은 그가 자주 응시해 왔던 대상이었다. 라믈로프 씨와 저명한 법률가 K.C.가 ‘피레틱 살라인’에 대해 주고 받았던 눈부시면서도 설득력 있는 대화 광고를 제외하면, 그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다만 그는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다. 차의 가장 끝자락, 그가 앉은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는 낫선 광고 하나가 붙어 있었다. 노란 배경 위에 파란 글씨로 적힌 그 광고에서 그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존 해링턴’이라는 이름과, 날짜처럼 보이는 문자 몇 개뿐이었다. 그 이상의 정보를 알 필요가 없었지만, 차 안의 승객들이 하나둘 내려가고 빈 좌석이 생기자 그는 호기심이 발동해 자리에서 일어나 광고를 자세히 읽어보려 했다.

그는 약간의 보람을 느꼈다. 그 광고는 평범한 유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애쉬브룩의 로렐스에 거주하던 존 해링턴, F.S.A.의 녀을 기리며. 1889년 9월 18일 사망.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차량이 멈춰 섰다. 던닝 씨는 노란 바닥 위에 적힌 파란 글씨들을 여전히 응시하고 있었다. 차장으로부터 한 마디의 충고를 받아야 비로소 몸을 일으켰다.

“실례합니다. 그 광고를 보고 있었소. 참으로 기묘한 광고가 아니요?”

차장은 천천히 광고를 읽어 내려갔다.

“세상에, 난 처음 보는 광고군. 음, 이건 확실한 치료법인가 보군.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는 형짚을 꺼내 침을 뱉으며 창유리에 대고 닦았다. 그리고 바깥 쪽도 닦아냈다. 돌아온 차장은 말했다.

“아니요, 이건 전사(轉寫)가 아닙니다. 글씨요, 유리에 새겨진 것 같소. 말하자면 유리 자체에 박혀 있는 거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던닝 씨는 그것을 살펴보고 장갑으로 문질러 보며 동의했다.

“이 광고들을 관리하고 설치 허가를 내주는 곳은 어디인가? 당신에게 그 일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소. 나는 이 광고의 내용을 메모해 두겠소.”

그때 운전기사가 외쳤다.

“빨리 해, 조지. 시간이 다 됐어.”

“알았소, 알았소. 이쪽에도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소. 와서 이 유리창을 좀 봐.”

운전기사가 다가오며 물었다.

“유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내가 묻고자 했던 것은, 당신의 차에 광고를 붙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광고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요.”

“음, 회사 사무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 일은 우리 팀의 팀스 씨가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차를 세울 때 말씀해 두면, 내일 이 근처를 지나가실 때 알려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이것뿐이었다. 던닝 씨는 애쉬브룩이라는 지명을 찾아보기 위해 조금은 귀찮은 일을 감수했다. 그리고 그것이 워릭셔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시내로 향했다. 아침에는 차가 너무 붐비어 차장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틈이 없었다. 다만 이상한 광고가 사라진 것은 분명했다.

하루가 저물자 사건의 이면에 또 다른 수수께끼가 드리웠다. 그는 전차를 놓쳤거나, 아니면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듯했다. 밤이 깊어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녀 한 명이 달려와

두 사람이 찾아왔다고 알렸다. 전차 회사의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매우 급하게 말을 걸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이 거의 잊고 있었던 광고 일을 떠올렸다. 그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그들은 바로 그 차의 운전사와 차장이었다. 간단한 대접을 끝내고 그는 물었다. 팀스 씨가 광고 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이다.

“네, 신사님. 그래서 저희가 들러 본 거죠.” 차장이 말했다. “팀스 씨가 윌리엄에게 그 광고 때문에 심한 꾸지람을 하셨어요. ‘그런 광고는 보내지도, 주문하지도, 지불하지도, 부착하지도 않았다. 그런 건 아무 것도 없다. 애초에 거기에 없는데 우리가 그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신사님,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라고요. ‘만약 거기에 없다면, 신사님 마음대로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라고요.”

“‘좋다’고 그는 말했어요. ‘내가 직접 보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자, 신사님, 말씀드려요. 하링턴이라는 글자가 적힌 그 광고는 보신 적 있는 그 어떤 광고보다도 또렷했습니다. 노란 유리에 파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유리에 새겨진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행주로 닦았을 때요.”

“물론 기억합니다. 아주 선명하게요. 자, 계속.”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팀스 씨는 전차에 타시더니, 등불을 들고 오셨어요. 아니, 월리엄에게 밖에서 등불을 들고 있게 하 더군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자네들이 그토록 떠들던 그 소중한 광고 는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팀스 씨.’ 제가 말하며 손을 댔습니다.”

차장이 말을 멈췄다.

“글쎄요,” 던닝 씨가 말했다. “아마 사라졌겠죠. 부러진 걸까요?”

‘깨졌나? 아니, 그렇지 않아. 정말 믿어주길 바라지만, 그 유리조각 위에 파란색 글씨라든가 그런 흔적은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어. 그건 마치—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 나 같은 놈이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월리엄에게 물어봐. 하지만—아, 내가 말했지, 이걸 가지고 뭐가 좋겠어?’

“팀스 씨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그는 제가 허락한 대로 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마음대로 온갖 별명들을 붙였죠. 저도 그걸 크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월 리엄과 제가 한 일은요, 그 편지글, 아니 그 글씨에 대해 당신이 메모를 적으시는 걸 봤거든요.”

“물론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죠. 내가 직접 팀스 씨에게 말하 고 그것을 보여주길 바란 거요? 그게 바로 당신이 들어온 이유인가 요?”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윌리엄이 말했다. “만약 어떤 신사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와 거래하는 게 내 생각이다. 이제 어때, 조지. 오늘 밤 내가 당신을 크게 잘못 인도하지는 않았지?”

“좋아요, 윌리엄, 아주 좋습니다. 당신도 내게 개구리 행진하듯 여기까지 끌고 오느라 고생한 척할 필요 없어요. 내가 순종적으로 따라왔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의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닙니다, 선생님.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침에 회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보신 사실을 팀스 씨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귀한 수고에 대해 매우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단순히 ‘소문’이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쪽에서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생각한다면,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12개월 뒤에는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될지… 음, 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논의가 이어지던 중, 윌리엄의 안내를 받은 조지가 방을 나섰다.

다음 날, 더닝이 들려주고 보여준 것 때문에 팀스 씨의 의구심은 크게 누그러졌다. 팀스 씨는 더닝을 얼굴만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윌리엄과 조지의 이름에 붙을 수 있는 오명도 회사 기록부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명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한 사건이 터지면서 던닝 씨의 관심은 다시 타올랐다. 그는 클럽에서 기차역으로 걸어가던 중, 앞쪽 어딘가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는 손에 전단지 몇 장을 쥐고 있었고, 이는 기업들의 영업 사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전단지였다.

그 영업 사원은 매우 봄비는 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 사실, 던닝 씨가 그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단 한 장의 전단지조차 건네지지 않은 것을 보았다. 던닝 씨가 지나갈 때, 누군가 전단지 한 장을 그의 손에 쑤셔 넣었다. 그 손이 던닝 씨의 손을 스쳤을 때, 그는 작은 쇼크를 느꼈다. 그 손은 부자연스럽게 거칠고 뜨거웠다.

그는 지나가는 동안 전단지를 건넨 사람을 쳐다보았지만, 그가 받은 인상은 너무 불분명했다.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걸어가면서 종이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파란색 종이였다. 큰 글씨로 적힌 '해링턴'이라는 이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놀라서 멈추고 안경을 찾기 시작했다.

순간,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의 손에서 전단지를 빼앗아 갔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찾을 수 없이 사라졌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달렸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배포자는 어디에 있었을까?

다음 날, 던닝 씨는 다소 사색에 잠긴 채 영국 박물관의 선별 원고실로 들어갔다. 그는 할리 3586호와 몇 권의 다른 권들을 찾기 위한 열람표를 작성했다. 몇 분 후, 책들이 그의 앞에 놓였고, 그는 가장 먼저 필요한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 했다. 그때, 뒤에서 자신의 이름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는 급히 돌아섰다. 그러다 손에 쥔 작은 서류 폴더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낮익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다만 방을 관리하는 직원 한 명이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던닝 씨는 서류들을 주우려 했다. 모든 서류를 거두었다고 생각한 그는 작업을 시작하려 몸을 돌렸다.

그때,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통통한 신사가 방을 떠나려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던 중 던닝 씨의 어깨를 톡 치며 말했다.

“이걸 드릴까요? 내 것인 것 같은데.”

그는 결손된 한 장의 원고 묶음을 던닝 씨에게 건넸다.

“제 것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던닝 씨가 말했다.

그 순간, 그 신사는 이미 방을 빠져나가고 없었다.

오후 작업을 마친 던닝 씨는 방을 관리하던 직원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기회를 타서 그 통통한 신사가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아, 카스웰이라는 분인데요.” 직원이 말했다. “일주일 전쯤에 분이 이 연금술에 관한 권위자가 누구인지 묻더군요. 물론 제가 그분께 이 나라에서 당신만이 유일한 권위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다시 그분을 만나볼게요. 만나면 기뻐하실 거예요.”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오!” 더닝 씨가 말했다. “나는 그를 피하는 데 각별히 신경 쓰고 있소.”

“아, 그렇군요.” 보조 직원이 말했다. “그분은 여기 자주 오지 않아요. 아마 만나시지 못할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더닝은 여러 번 스스로에게 털어놓았다. 평소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홀로 보내는 저녁 시간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무언가 정의할 수 없고 실체 없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느꼈다. 마치 자신이 누군가에게 맡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기차나 전차 안에서 이웃과 가까이 앉고 싶었지만, 불행히도 기차와 전차는 유난히 비어 있었다.

차장 조지는 생각에 잠겨 있었고, 승객 수를 계산하는 데 몰두해 보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주치의 왓슨 박사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가사 일정을 어긋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닝. 하인 두 명 모두 쓰러졌거든요. 사실, 저는 그들을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야?’

“식중독 같은 증상 아닐까 싶네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돌아다니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다행히 모두 무사히 회복될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도대체 그게 무슨 일로 생긴 건지 아나?”

“잘은 모르겠지만, 저녁 식사 시간에 어떤 노점상에게 조개류를 사 먹었다는 말이야. 이상한 일이지. 내가 주변을 수소문해 봤지만, 이 거리 다른 집에는 그런 노점상이 나타나지 않았어. 너에게 연락할 수도 없어서 안타깝군. 그들은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어쨌든 오늘 밤 내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다음 계획을 세우자. 여덟 시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외로운 저녁은 무사히 지나갔다. 물론 그 대가로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치렀지만. 던닝 씨는 최근 이주해 온 의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꽤나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그리고 밤 11시 30분쯤, 그는 외로운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겪었던 그 밤은 결코 회고하고 싶은 기억이 아니다.

그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아줌마가 일찍 와서 뜨거운 물을 가져다줄지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복도 바닥을 걷는 발소리 따위는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나쁜 일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이 그날 저녁 서랍에 서류들을 정리한 후, 서재 문을 꼭 닫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기보다는 부끄러움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복도로 슬그머니 나가 난간 위로 몸을 기우리고 귀를 기울였다. 빛은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의 소리도 없었다. 다만, 그의 종아리 주변으로 순간적으로 따뜻하거나, 심지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을 뿐이다.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문에 잠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더 불쾌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절약주의적인 교외 전력 회사가 자정 무렵에는 불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전력을 끊었거나, 아니면 계량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어쨌든 결과는 동일했다. 전등이 꺼진 것이다.

당연한 조치였다. 성냥을 찾아보고, 시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더 불편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 알아야 했다. 그는 베개 밑의 잘 알려진 구멍에 손을 넣었다. 하지만 손은 그곳까지 닿지 못했다.

그가 만진 것은,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빨과 머리카락이 있는 입술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인간의 입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가 그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추측해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이미 문이 잠긴 빈 방 안에 있었고, 귀를 문에 바짝 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머지 밤을 가장 비참하게 보냈다. 그는 문에서 누군가가 더듬더듬 손대고 있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 매순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침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은 수많은 귀 기울임과 전율로 가득했다. 다행히 문은 열린 채로 있었고, 창문 가리개도 올라가 있었다. 하인들이 창문 가리개를 내리기 전인 이른 시간에 이미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 요컨대, 누군가 살았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다. 시계 역시 평소 자리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어지러워진 곳이 없었고, 다만 옷장 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는 그 옷장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습관대로 벌어진 것이었다.

이때 뒷문에서 종소리가 울리며 청소부 아줌마가 도착했다. 그녀는 전날 밤에 불러두었던 사람이었다. 아줌마를 집 안으로 들인 뒤, 던닝은 다른 방들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끔찍할 정도로 지루하게 흘러갔다. 그는 박물관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보조 직원들이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스웰이 그곳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는 적대적인 낯선 이와 마주치는 상황을 감당해 낼 자신이 없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그를 반기지 못했다. 그는 의사의 집에 의지하며 지내는 것이 싫었다. 잠시 동안 요양원을 방문했는데, 가정부와 하녀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은 안도했다.

점심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신의 클럽으로 향했다. 협회의 총무를 마주친 순간, 또다시 희미한 만족감이 밀려왔다. 점심 식사 자리에

서 던닝은 친구에게 자신의 불행 중 구체적인 사실들만 털어놓을 뿐, 정신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내 가엾은 친구여, 정말 큰일 났군. 보라, 우리 집은 지금 완전히 비어 있다. 너는 우리 집에서 묵어야 해. 그래, 변명은 필요 없어. 오후에 짐을 실어 보낼 테니.”

던닝은 더 이상 거절할 힘을 잃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 날 밤 자신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짐을 싸기 위해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친구들은 시간이 나서 그를 다시 살펴볼 때, 그의 초췌한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그들은 그를 정상으로 돌려세우려 최선을 다했다.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두 사람이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던닝은 또다시 무기력해졌다.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게이턴, 그 연금술사 남자가, 자기 논문이 거절되게 만든 게 바로 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게이턴이 휘파람을 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던닝은 박물관 직원과의 대화를 들려주었고, 게이턴은 그 추측이 타당할 것이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크게 신경 쓰는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마주쳤을 때 성가실 뿐이지. 그는 성질이 고약한 사람인 것 같아.”

대화는 다시 끊겼다. 게이턴은 던닝의 얼굴과 태도에서 스며드는 황폐함에 점점 더 강하게 압도되었다. 마침내 그는 큰 노력을 기울여, 직접적으로 물었다.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던닝이 안도하는 소리를 질렀다.

“미치도록 이 말을 꺼내고 싶었어.”

“존 해링턴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있어?”

게이턴은 크게 놀랐다. 당황한 그는 이유를 묻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던닝은 트램 안, 자신의 집, 그리고 거리에서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를 덮쳐 아직도 놓아주지 않는 마음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다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왔다.

게이턴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해링턴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던닝은 신경이 과민한 상태였고, 그 이야기는 끔찍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카스웰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두 사건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과학자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결론이었지만, ‘최면 암시’라는 말로 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결국 그는 그날 밤의 답변을 신중하게 하기로 했다. 아내와 상의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해링턴을 케임브리지에서 알고 있었으며, 1889년에 급사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의 출판된 작품에 대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덧붙였다.

게이턴은 아내와 이 문제를 상의했고, 예상대로 그녀는 이미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결론으로 곧장 뛰어갔다. 그녀는 그가 살아남은 형제 헨리 해링턴을 떠올리게 했다. 또한 그녀는 전날 자신들을 초대했던 집주인들을 통해 헨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완전히 미쳐버린 광신자일 수도 있어.” 게이턴이 반박했다.

“그건 벤넷 부부가 그를 알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어.” 게이턴 부인이 맞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날 바로 벤넷 부부를 만나기로 했다.

* * * * *

헨리 해링턴과 던닝이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 * * * *

이제야 비로소 다뤄야 할 장면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였다. 던닝은 해링턴에게 죽은 자의 이름이 어떻게 기이한 방식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후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던닝은 해링턴에게도 형제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상황들을 기억해내길 바라는지 물었다. 해링턴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즉각적으로 나왔다.

존은 재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 아니라, 그로부터 몇 주 전부터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존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망상 같은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 뒤에 악의가 작용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내가 들려준 이야기가 내 형과 너무 닮아 있어.

무언가 연결 고리가 될 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니?

머릿속에서 어렴풋이 형체를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당신 형이 죽기 얼마 전, 어떤 책을 몹시 혹평한 리뷰를 썼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책을 쓴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만남이 그에게 불쾌한 일이 될 것이 분명했다.

“설마 그 남자 이름이 카스웰은 아니겠죠?”

“왜 아니겠소? 바로 그 이름이오.”

헨리 해링턴은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다.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군요. 그가 남긴 말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형이 몹시 내키지 않으면서도 카스웰이 자기 곤경의 근원이라고 믿기 시작했다고 확신합니다. 이 일과 연관되어 보이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은 뛰어난 음악가였으며, 시내의 콘서트에 자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가 죽기 세 달 전, 어느 콘서트에서 돌아온 그는 분석적인 프로그램지를 저에게 보여주며 유심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런 프로그램지를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번 거 거의 놓칠 뻔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어딘가 떨어뜨린 것 같아. 좌석 밑과 주머니를 뒤졌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자기는 이제 필요 없다며 자기 것을 나한테 주겠다고 하더군. 그는 곧 자리를 떴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똥똥하고 수염을 말끔히 깎은 남자였어. 놓칠 뻔해서 아쉽긴 했지만, 다른 걸 사면 됐겠지. 이거는 공짜였으니까.’

또 다른 날, 그는 호텔에 가는 길과 그 밤내내 매우 불편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와서 그 사건을 되짚어 보니, 이 말들이 서로 연결되는 듯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은 그 프로그램자들을 정리해 제본하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은 제가 대충 훑어본 적도 없는 것이었는데, 시작 부분 근처에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쓰인 이상한 글씨가 적힌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매우 정교하게 작성된 글씨였습니다. 제 눈에는 다른 어떤 문자보다도 룬 문자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내 옆자리에 앉았던 그 통통한 남자의 것일 거야.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언가의 사본일지도 몰라. 분명 누군가 공을 들인 것 같은데. 그의 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잠시 그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광고를 내기에는 가치가 없어 보였고, 형이 곧 갈 다음 콘서트에서 그 남자를 직접 만나 돌려주는 게 좋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이는 책 위에 놓여 있었고, 우리는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춥고 바람이 부는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문이 바람에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 사이로 따뜻한 기운의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바람이 종이를 집어 들어 바로 화로 속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종이는 가볍고 얇았기 때문에, 불꽃처럼 타올라 굴뚝 위로 올라갔고,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돌려줄 수도 없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형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다소 화가 난 어조로 말했습니다.

‘돌려줄 수는 없지.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계속 말하니?’

‘저는 딱 한 번만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네 번은 했다는 뜻이겠지.’ 그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는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도 매우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행한 형이 리뷰했던 카스웰의 책을 당신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이 죽기 전과 죽은 후, 두 번 모두 그 책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함께 그 책을 비유했습니다. 문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정사 분리 오류가 난무했고, 옥스퍼드 출신이라면 누구나 경악할 만한 실수들이 가득했죠.

그 남자는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무작정 받아들였습니다. 고전 신화와 『골든 레전드』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야만적인 풍습 보고서와 섞어 놓았으니,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골든 레전드』와 『황금 가지』를 완전히 동등한 가치로 취급하며, 두 책 모두를 믿는 듯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불운이 일어난 후, 저는 그 책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책의 수준은 이전과 다름없었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에 남는 인상이 달랐습니다.

카스웰이 형에게 악의를 품었고,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책은 매우 음흉한 책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한 장이 저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문을 던진다’고 썼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의 사랑을 얻거나, 혹은 그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후자가 더 주된 목적일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듯한 어조로 서술했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콘서트에서 친절했던 남자는 바로 카스웰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 조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합니다. 심지어 그 이상으로요. 만약 형이 그 종이를 돌려줄 수 있었다면, 그는 지금도 살아 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보텔 만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비어 있는 집으로 향했다. 두 하인은 아직 복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던닝의 서류철은 서명대 위에 먼지를 쌓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전사본을 만들 때 사용하던 작은 크기의 메모지 더미가 들어 있었다. 던닝이 그중 한 장을 들어 올리자, 얇고 가벼운 종이 조각이 기이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방 안으로 날아들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해링턴은 재빨리 닫았다. 종이 조각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는 종이를 손에 쥐었다. "맞아," 그가 말했다. "내 형에게 건네진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일지도 몰라. 던닝, 조심해야 해. 이게 당신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긴 토의가 이어졌다. 종이는 꼼꼼히 살피듯 검토되었다. 해링턴이 말했듯, 종이에 적힌 문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루인 문자에 가까웠지만, 두 사람 모두 해독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 문자를 베껴 적는 것조차 망설였다. 자신들이 숨겨진 악의 의도를 영속시킬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묘한 메시지나 명령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불가능했다. (조금 앞선 내용을 미리 말해도 되겠는가)

던닝과 해링턴은 단호하게 확신하고 있었다. 그 종이 조각이 소유자들을 매우 원치 않는 무리와 만나게 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종이를 다시 원래의 출처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에서도 두 사람은 일치했다. 그리고 유일한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계략이 필요했다. 던닝의 얼굴은 카스웰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던닝은 수염을 면도해 외모를 바꿔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타격이 먼저 떨어지지 않는을까? 해링턴은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형이 ‘블랙 스팟’을 받은 콘서트의 날짜를 알고 있었다. 6월 18일이었다. 죽음은 9월 18일에 뒤따랐다.

던닝은 차창에 적힌 글귀에 ‘삼 개월’이 언급되었다고 상기시켰다. “아마도 제 것도 삼 개월 후의 청구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씩씩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일지에 따라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네, 4월 23일이 박물관에 갔던 날이었으니, 그렇게 되면 7월 23일이 됩니

다. 이제, 형님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능한 한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이지. 음, 혼자인 때면 항상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그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었어. 시간이 지나자 내가 그의 방에서 자게 되었고, 그 덕분에 그는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잠꼬대를 많이 했지.”

“무슨 말을 했길래?”

“그것을 깊게 파고드는 것이 현명할까? 적어도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말이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것만큼은 말할 수 있어. 그 주 동안 우편으로 두 가지 물건이 그에게 배달되었어. 둘 다 런던 우편 도장이 찍혀 있었고, 상업적인 필체로 주소가 적혀 있었지. 하나는 베워의 목판화 중 한 장을 대충 찢어낸 것이었어. 달빛이 비치는 길과 그 길을 걷는 남자, 그리고 뒤따르는 끔찍한 악마 같은 생물이 그려진 그림이었지. 그림 아래에는 ‘고인 수족’의 구절이 적혀 있었어. (그 그림이 그 내용을 묘사한 것 같지) 한 번 뒤를 돌아본 자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는 계속 걸어갔다. 머리를 돌리지 않았다. 뒤에서 무서운 악마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상인들이 자주 보내는 달력이었다. 내 형은 그 달력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뒤 내가 그것을 살펴보니 9월 18일 이후의 날짜들이 모두 찢겨 나간 채였다. 그가 살해당한 날 저녁 혼자

외출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죽기 약 열흘 전부터 그는 자신을 쫓거나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이다.

토의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하링턴은 카스웰의 이웃과 아는 사이였기에, 그의 행적을 감시할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던닝은 언제라도 카스웰의 길을 가로막을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그 종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했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크로이든 역 플랫폼에서 던닝이 기다리는 동안의 초조함은 굳이 묘사할 필요도 없었다. 최근 며칠 동안 그의 위험감은, 자신에게 드리운 먹구름이 유난히 희미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안도감은 불길한 징조였다. 만약 카스웰이 이제야 그를 피했다면, 희망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가 도망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 여행에 대한 소문이 그 자체로 속임수일 수도 있었다.

보트 열차에 관해 행인들에게 계속 질문하며 플랫폼을 오가며 보낸 스무 분은 그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결국 열차는 도착했고, 해링턴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물론 정체를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던닝은 열차의 끝부분인 복도 쪽 칸으로 먼저 올라탔고, 해링턴과 카스웰이 탄 칸으로 서서히 다가갔다. 전체적으로 열차가 가득 차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는 전반적으로 안도했다.

카스웰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지만, 전혀 알아차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던닝은 정면이 아닌 옆자리에 앉아, 처음에는 헛되이, 점차 정신을 가다듬으며 원하는 이동을 어떻게 성사시킬지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카스웰 맞은편, 그리고 던닝 옆 자리에는 카스웰의 코트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 코트 속에 종이를 숨기는 것은 소용이 없었다. 다른 사람이 직접 건네받고, 그가 직접 건네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그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열차 좌석 위에는 종이들이 들어 있는 손가방이 열려 있었다. 이 가방을 숨겨서, 아마도 카스웰이 가방을 두고 열차에서 내리게 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나서 가방을 찾아 그에게 건네줄 수는 없을까? 바로 그 방안이 떠올랐다. 만약 해링턴과 상의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시간이 흘렀다. 카스웰은 한 번 이상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두 번째로 그가 나갔을 때, 던닝은 가방이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해링턴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 눈빛에서 경고를 읽었다.

복도에 있던 카스웰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아마도 두 남자가 서로를 알아보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카스웰이 돌아왔지만, 그는 분명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로 자리에서 일어날 때, 희망이 피어올랐다. 무엇인가가 자리에서 미끄러져 거의 소리 없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카스웰은 다시 복도로 나갔고, 복도 창문의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던닝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보니, 그것은 쿡의 티켓 케이스 중 하나였다. 케이스 안에는 티켓들이 들어 있었다. 이 케이스는 덮개 부분에 주머니가 있고, 불과 몇 초 만에 우리가 들어본 그 종이가 이 주머니 속에 들어갔다.

작업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해링턴은 칸 입구에 서서 블라인드를 만지작거렸다. 작업은 완료되었고, 적시에 완료되었다. 열차는 이제 도버로 향하며 감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카스웰이 다시 객차 안으로 들어섰다.

던닝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어찌 그토록 억눌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티켓 케이스를 건네며 말했다.

“이것을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제 것으로 보입니다.”

카스웰은 안의 승차권을 잠깐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가 바랐던 대답이 나왔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티켓 케이스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조차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 종이가 너무 일찍 발견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기차 안이 점점 어두워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카스웰은 불안해하며 몸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쌓인 코트 더미를 끌어당겼다가, 마치 그것이 자신을 밀어내는 것처럼 다시 밀어냈다. 그리고는 곧장 몸을 일으켜 두 사람을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도 함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물건을 챙겼다. 카스웰이 말을 건네려던 찰나, 기차는 도버 타운에 정차했다. 도시와 부두 사이 짧은 거리 동안, 그들은 자연스럽게 복도로 나갔다.

그들은 부두에서 내렸다. 하지만 기차가 너무 비어 있어서, 그들은 보트를 향해 가는 카스웰과 그의 짐꾼이 먼저 지나갈 때까지 플랫폼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쥐어 쥐고,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나누는 것이 안전했다.

이 상황은던닝에게 거의 실신할 정도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해링턴은 던닝이 벽에 기대어 서 있도록 했다가, 자신은 보트 쪽으로 몇 발자국 앞서 나갔다. 보트까지 이어지는 승선 트랩 입구 근처였다. 그곳에 이제 카스웰이 도착해 있었다.

트랩 입구에서 직원은 그의 표를 확인했다. 코트를 여러 겹 걸친 그는 보트 안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직원이 뒤를 향해 외쳤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다른 신사는 표를 보여주셨나요?”

“다른 신사라니, 대체 무슨 악마 같은 소리요?”

갑판 위에서 카스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직원은 몸을 굽혀 그를 바라보았다.

“악마라니? 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링턴은 그가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다. 이어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실수였습니다, 신사. 아마도 신사의 러그(두꺼운 담요) 때문이었겠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근처의 부하 직원에게 물었다.

“저 사람, 개랑 같이 왔나? 이상하군. 분명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배 안에서 처리해야겠군. 이제 출항합니다. 일주일만 더 지나면 휴가객들이 오겠지.”

오 분 뒤, 남은 것은 점점 작아지는 배의 불빛, 도버의 긴 등불 줄기, 밤바람, 그리고 달뿐이었다.

‘로드 워든’ 여관 방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가장 큰 불안이 사라졌음에도, 그들은 가벼운 의심이 아닌 무거운 의구심에 짓눌려 있었다.

그들은 믿었던 대로, 한 남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정당했을까? 적어도 그에게 경고를 보내야 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해링턴이 말했다. “그가 우리가 의심하는 살인범이라면, 우리가 한 일은 정당한 범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도 당신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 그를 경고할 수 있겠어요?”

“그는 아브빌까지만 표를 끊었어요.”던닝이 말했다.

“그건 나도 봤어요. 만약 내가 조앤의 가이드북에 나온 아브빌의 호텔들에 전보를 친다면 어떨까요? ‘티켓 케이스를 확인해 보세요, 던닝 씨’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오늘은 21일입니다. 그는 하루의 여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두렵군요.”

그래서 호텔 사무소에는 전보가 남겨졌다.

그 편지들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만약 도착했다면 그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23일 오후에 아브빌의 세인트 울프람 성당 정면을 살피던 영국인 여행자가, 북서쪽 탑 주변에 설치된 비계에서 돌덩이가 떨어져 머리를 강타당해 즉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비계 위에는 작업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었다. 그리고 그 여행자의 소지품들은 그가 카스웰 씨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단 한 가지 디테일만 덧붙인다. 카스웰의 경매에서 해링턴은 ‘모든 하자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비윅(Bewick) 판화집 한 세트를 낙찰받았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여행자와 악마가 묘사된 목판화 페이지는 잘려나간 상태였다.

또한 적절한 간격을 둔 뒤, 해링턴은 다시 던닝에게 형이 잠꼬대로 남겼던 말의 일부를 되풀이했다. 하지만 곧이어 던닝은 그의 말을 끊었다.

바체스터 대성당의 성가대석

이 일은 내 기억에, 19세기 초 _Gentleman's Magazine_ 지의 사망 기사란에 실린 한 통고지를 읽으면서 시작되었다.

2월 26일, 바체스터 대성당 부속 주택에서 존 벤웰 헤인스 경(57세)이 선종했다. 그는 소위브리지의 대사제, 그리고 픽힐과 캔들리의 교구장이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 칼리지 출신이었다. 재능과 성실함으로 그는 선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정해진 시기에 첫 학위를 받을 때, 그의 이름은 ‘랑글러’(Wranglers, 수학 시험 우수자) 목록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학문의 영예는 곧 그에게 칼리지 펠로우십을 안겨주었다.

1783년, 그는 성직 서품을 받았고, 얼마 후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고(故) 리치필드 주교의 추천으로 랭크턴-서브-아시의 영구 부목직을 얻었다.

그가 바체스터 대성당의 프리벤드(성직자 직위)를 거쳐 대성당의 프레센터(찬양대 지휘자)라는 높은 지위에 오르기까지의 빠른 승진은, 그가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자질을 가졌는지를 말해준다. 1810년, 플터니 대사제가 갑자기 사망하자, 그는 대사직을 승계했다.

그의 설교는 그가 빛을 더했던 종교와 교회의 원칙을 언제나 충실히 따랐다. 열정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학자의 정교함과 기독교인의 품위가 보통 수준을 넘어 어우러져 드러났다. 교파적 폭력에서 자유로웠고, 진정한 자비의 정신으로 충만했던 그의 설교는 청중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더 큰 결락이 있다.]

그가 집필한 작품들 중에는 주교제 옹호에 관한 능숙한 변론이 포함되었는데, 비록 이 추모사를 쓴 저자가 자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출판인들이 흔히 보이는 관용과 기업 정신의 부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었다.

그의 출판된 저작은 실제로 세 가지로 한정된다. 발레리우스 플라쿠스의 『아르고나우티카』에 대한 기개 넘치고 우아한 번역, 대성당에서 설교한 ‘여호수아의 일생에 관한 여러 사건에 대한 담화’ 한 권, 그리고 그가 자신의 대성구역을 방문할 때마다 성직자들에게 내린 여러 차례의 훈령들이다. 이 작품들은 등등으로 구별된다.

이 글의 주인공이 지닌 온화함과 후한 접대는 그를 아는 자들이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회색빛 천장 아래에서 성실하게 참배하던 그 위엄 있고 장엄한 건물, 특히 그 의식의 음악적 부분에 대해 효성에 가까운 관심을 가졌으며, 이는 오늘날 너무 많은 대성당 고위 성직자들이 보여주는 정중한 무관심과 강렬하고 기쁜 대비를 이룬다.

헤인스 박사가 미혼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뒤,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이어진다.

평온하고 자비로운 삶을 산 그가 고령의 나이에서, 마치 자연스러운 퇴조처럼 조용히 생을 마감할 것이리라 누구나 짐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신의 뜻은 어찌나 알 수 없으랴.

헤인즈 박사의 존경받는 황혼이 차분히 저물어 가던, 평화롭고 은둔적인 고독은 운명적으로 깨어질 처지에 있었다. 아니,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그 파편들을 만든 것은 예상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도 끔찍한 비극이었다.

2월 26일 아침——

하지만 아마도 나머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 배경에 대한 정보는 현재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출처를 통해 얻은 것이다.

나는 우연히 그 시절의 다른 기사들과 함께, 내가 인용해 왔던 헤인즈 박사의 사망 기사를 읽었다. 그 기사는 내 마음에 약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나는 헤인즈 박사의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저 만약 내가 그 시기의 지역 기록을 살펴볼 기회가 생긴다면, 헤인즈 박사를 기억해 내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만 했다.

최근에 나는 그가 속했던 대학의 도서관에서 장서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번호가 매겨진 책들이 꽂힌 선반 끝까지 다다랐을 때, 나는 사서에게 내 설명에 포함시켜야 할 다른 책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없을 것 같은데요,” 사서가 말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필사본이 있는 쪽으로 가서 함께 살펴보는 게 좋겠소. 지금 시간이 되시오?”

나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는 도서관으로 가서 필사본 목록을 확인했다. 조사를 끝내고 나서야 나는 본 적이 없는 한 선반에 도착했다. 그 선반에는 대부분 설교문과 조각난 문서 더미, 대학 과제물, 그리고 몇 편의 칸토로 이루어진 서사시 《사이러스》가 있었다. 이 시는 시골 목사의 여가 시간에 쓴 것이었다.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교수의 수학 논문 등, 내가 너무도 잘 아는 종류의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이것들에 대해 간략히 메모했다.

마지막으로, 낡은 금속 상자가 꺼내져 먼지가 털렸다. 글씨가 거의 지워진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경한 아처디언 헤인즈의 문서들. 1834년 그의 누나 레티티아 헤인즈가 유증함.’

나는 그 이름이 어딘가에서 본 것임을 즉시 알아챘고, 곧바로 어디서 접했는지 찾아낼 수 있었다.

“그건 바체스터에서 이상한 최후를 맞은 헤인즈 대목사겠군요. 『젠틀먼스 매거진』에서 그의 부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자를 집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안에 흥미로운 것이 들어있을까요?”

사서 선생님은 그 상자를 가져가 편하게 살펴보라고 흔쾌히 허락했다.

“저는 직접 속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한번은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옛 총장이 한 번 말했던 상자입니다. 그 상자는 대학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 말을 총장은 마틴에게 수년 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총장은 자신이 도서관을 장악하는 한, 그 상자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마틴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정말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총장이 사서였기에 상자는 관사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재임 중에는 그 상자에

접근할 길이 없었습니다. 총장이 세상을 떠나자, 그 상자는 실수로 그의 유족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반환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 상자를 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오후에 케임브리지에서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열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목록에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을 출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상자를 집으로 가져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출판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서관 사서에게 상담했다. 사서는 관련 인물의 신분을 숨기기로 조건을 달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도 좋다고 허락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려 한다.

사실 이 글의 자료는 주로 일기와 편지들이다. 내가 얼마나 직접 인용하고, 얼마나 요약할지는 공간의 제약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간의 조사가 필요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벨(Bell)의 <성당 시리즈>에 실린 바체스터(Barchester) 판의 훌륭한 삽화와 본문이 큰 도움이 되었다.

바체스터 대성당의 성가대석으로 들어서면, 길버트 스콧 경이 설계한 금속과 색색의 대리석으로 된 격자를 지나게 된다. 그곳은 내가 솔직히 말해 ‘매우 허술하고 불쾌하게 꾸며진 공간’이라고 불려야 할 곳이다.

석좌는 근대에 만든 것으로, 단집(차양)이 없다. 다만 고위 성직자들의 자리와 프리벤드(성직 유수지)의 이름은 다행히도 살아남아, 작은 황동 판에 새겨져 석좌에 부착되어 있다. 오르간은 트리포리움(3층 복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보이는 부분만 보아도 그 외관은 고딕 양식이다. 제단 뒤의 장식품과 그 주변은 다른 어느 곳이나 다름없다.

백 년 전의 정교한 판화들을 보면, 당시의 모습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오르간은 거대한 고전 양식의 스크린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성가대석 역시 고전적이며 매우 장중했다. 제대 위에는 나무로 만든 발다키노가 덮여 있었고, 네 모서리마다 향아리가 놓여 있었다. 더 동쪽으로는 단단한 목조 제대 가림막이 있었는데, 디자인은 고전적이었다. 그 위에는 정점이 있는 삼각형 장식이 있었고, 그 안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히브리어 글자들이 빛나는 광선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천사들은 이 장엄한 형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북쪽 성가대석 동쪽 끝에는 거대한 울림판을 가진 강단이 있었다. 바닥은 검은색과 흰색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다. 두 명의 여자와 한 남자가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탄하며 둘러보고 있었다.

다른 자료들을 통해 나는, 당시의 아처디언의 자리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성가대석 남동쪽 끝에서 주교의 의자 옆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집은 거의 교회 서쪽 정면과 마주보고 있었는데, 윌리엄 3세 시대에 지어진 아름다운 적벽돌 건물이었다.

1810년, 이미 장년이 된 헤인즈 박사는 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직위를 갈망해 왔지만, 전임자는 아흔두 살이 될 때

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전임자가 아흔두 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소박한 잔치를 치른 지 약 일주일 뒤, 늦가을의 어느 아침이었다.

헤인즈 박사는 기쁜 마음으로 아침 식사실로 급히 들어섰다. 손을 비비며 흥얼거리는 그의 모습은, 차 주전자 뒤의 평소 자리에서 어깨를 떨며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는 자매의 모습에 의해 멈춰 섰다.

‘무슨 일이지? 무슨 나쁜 소식이야?’ 그가 물었다.

‘오, 조니, 아직 모르고 있구나. 불쌍한 아크디아콘이란다.’

‘아크디아콘이요? 무슨 일이지? 병이라도 나셨나요?’

‘아니예요, 아니라고요. 오늘 아침 계단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네. 불쌍한 폴터니! 발작이라도 있었나?’

‘그렇지 않은 것 같대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멍청한 하녀 제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요.’

헤인즈 박사가 잠시 멈춰 서서 말했다.

‘레티티아, 잘 이해가 안 가네. 하녀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내가 들은 바로는, 계단 난간 막대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불쌍한 아크디아콘이 계단 가장자리에 발을 딛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그 참나무는 미끄러우니까요. 결국 그는 거

의 전체 계단을 굴러떨어져 목을 부러뜨린 것 같아요. 불쌍한 미스 폴터니에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물론, 그들은 그 소녀를 즉시 해고할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미스 해인즈의 슬픔은 다시 지배력을 되찾았으나, 결국 조금은 누그러져 아침 식사를 조금은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남동생은 달랐다. 그는 몇 분 동안 창문 앞에 서서 침묵을 지키다가, 방을 나갔다. 그 날 아침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솔한 하녀는 곧바로 해고되었다. 하지만 실종되었던 계단 난간봉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계단 카펫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주의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해인즈 박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실제로 그 실력이 매우 출중했기에, 폴터니 부주교의 후계자로 유력하게 점쳐져 왔다. 그리고 그 기대는 전혀 헛되지 않았다. 그는 정식으로 취임했고,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직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의 일기에는 폴터니 부주교가 사무실 업무와 관련 문서들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방치해 두었는지에 대한 탄식과 외마디 비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링엄과 번스우드의 징수금 약 12년 치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고, 대부분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다. 시찰은 7년째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네 곳의 성당소는 거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낡아 있었다. 부주교가 임명한 대리인들 역시 그와 다를 바 없이 무능했다.

이러한 지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었다. 한 친구로부터의 편지는 이러한 나의 견해를 뒷받침했다.

“[그리스어: ho katechôn]이 마침내 제거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악의적으로 인용하며 이렇게 적었다.

“불쌍한 친구여! 당신은 이제 어떤 혼란의 현장으로 들어서는 것인가! 장담하건대, 내가 마지막으로 그의 문턱을 넘었을 때, 그는 손댈 만한 서류 하나 찾지 못했다. 내 말도 듣지 못했고, 내 건과 관련된 사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게으른 하녀와 험거운 계단 깔개 덕분에, 목소리와 인내심을 모두 잃지 않고 필요한 업무가 처리될 희망이 생겼다.”

이 편지는 일기 중 하나의 표지 안쪽 주머니에 끼워져 있었다.

새 부임한 아크디이콘의 열정과 열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저에게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마주한 무수한 오류와 복잡한 상황을 조금은 질서 있게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노년의 이스라엘 노인과 함께 찬송가를 부를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많은 이들이 입으로만 외우는 그 찬송요.”

이 문구는 일기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한 통의 편지에서였다. 박사의 친구들이 유족인 그의 자매에게 서한을 돌려보낸 듯했다.

그는 사색에 잠기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직책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조사하는 과정은 매우 치밀하고 실용적이었다. 한 곳에서는 아크다이컨 직의 업무를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3년이 정확히 필요하다는 계산도 남겼다. 이 추산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는 정확히 3년 동안 개혁 작업에 매진했지만, 그 시기가 끝났을 때 그가 약속했던 ‘Nunc dimittis(이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보내시니)’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활동의 장을 찾은 것이다.

그동안 그의 duties는 성당 예배에 가끔 참석하는 것 이상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성당 건물과 그 내부 시설, 그리고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786년부터 재임해 온 노신사인 오르간 연주자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할 시간이 없다. 그다지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성당 자체와 그 가구에 대해 갑자기 불타오른 열정이다. 성당 합창단의 석좌(stalls)를 묘사한 실바누스 얼번(Sylvanus Urban)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이 있다. (이 편지는 실제로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석좌들은 비교적 근래의 것, 정확히 말해 1700년경의 것이었다.

남동쪽 끝에 자리 잡은 아치데콘의 좌석은 주교의 옥좌(지금 진정으로 훌륭한 주교님이 훌륭하게 차지하고 있는 바체스터 교구의 옥좌) 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 좌석은 몇 가지 특이한 장식으로 눈에 띈다. 웨스트 주임사제가 수고한 결과 성가대 내부 가구가 모두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장 외에도, 기도대 동쪽 끝에는 세 개의 작지만 주목할 만한 조각상이 괴기스러운 양식으로 새겨져 있다.

첫째는 고양이 형상이다. 아주 정교하게 묘사된 이 고양이는 웅크린 자세로, 쥐의 무리를 상대하는 무서운 적의 유연함, 경계심, 그리고 교활함을 놀랄 만큼 생생하게 드러낸다.

그 반대편에는 왕좌에 앉아 왕권의 상징을 두른 인물이 있다. 하지만 조각가가 묘사한 것은 세상의 군주가 아니다. 그의 발은 긴 옷자락 속에 숨겨져 있다. 머리에 쓴 왕관이나 모자도 뾰족한 귀와 굽은 뺨을 가리지는 못해, 그가 지옥에서 온 존재임을 드러낸다. 무릎 위에 올려진 손은 끔찍할 정도로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형상 사이에는 긴 망토로 몸을 감싼 또 다른 형상이 서 있다. 처음 보기에는 수도사나 ‘회색 수도회’의 수도사로 오해할 수 있다. 머리에 후드가 있고 허리쯤에서 매듭이 진 끈이 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매듭이 진 끈은 옷자락 사이로 거의 숨겨진 손이 잡고 있는 올가미임이 금방 드러난다. 그리고 오목한 얼굴과, 말하기조차 끔찍하게도 광대뼈의 찢어진 살은 공포의 왕을 증명한다.

이 형상들은 분명 미숙한 조각가의 작품이 아니다. 만약 독자들 중 이 형상의 기원과 의미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귀중한 잡지에 대한 나의 감사함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 문서에는 더 많은 묘사가 담겨 있었다. 문제의 목조 가구가 이미 사라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서는 상당한 흥미를 자아낸다. 마지막 단락의 한 구절은 인용할 가치가 있다.

최근 성당 기록을 조사한 결과, 좌석의 조각이 흔히 보고된 대로 네덜란드 장인들의 작품이 아니라, 이 지역 출신인 오스틴(Austin)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용된 나무는 주임사제와 참사회가 소유한 성림(聖林) ‘홀리우드(Hollywood)’에서 채취했다. 이 숲은 현재 한 교구 경계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고령이면서도 신망 두터운 목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아직 옛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란, 앞서 간략히 묘사한 그 장엄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 쓰인 참나무들의 거대한 크기와 나이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숲 중앙 근처에 서 있던 한 나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매달린 참나무(Hanging Oak)’라고 불렀다.

이 이름이 왜 붙었는지는 두 가지 사실로 입증된다. 첫째, 나무 뿌리 근처의 흙에서 다량의 인간 뼈가 발견되었다. 둘째, 매년 특정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사랑이든 일상적인 일이든 성공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짚이나 나뭇가지 같은 토속적인 재료로 대충 만든 작은 인형이나 마네킹을 그 나뭇가지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었다.

이쯤에서 아치데콘의 고고학 조사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자. 이제 그의 일기에서 읽을 수 있는 그의 경력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가 처음 삼 년간 치열하고 신중하게 보낸 시기의 일기들을 살펴보면, 그는 늘 기운이 넘치고 활기차 보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시기에는 그의 추도문에 언급된 대로, 그의 환대와 우아함은 충분히 칭송받을 만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에게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보게 된다. 그 그림자는 결국 완전한 어둠으로 변모할 운명이었다. 나는 그 어둠이 그의 겉으로 드러난 태도에도 분명히 반영되었으리라 확신한다.

그는 자신의 공포와 근심을 일기에 많이 적었다. 그를 분출할 다른 통로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독신이었으며, 자매도 항상 곁에 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못한 것이 더 많으리라는 생각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의 일기에서 발췌한 몇 구절을 소개하겠다.

1816년 8월 30일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대사제 문서들을 정리한 지금, 나는 가을과 겨울 밤을 보낼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레티티아의 건강이 이 시기를 함께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큰 타격이다. ‘주교제 옹호론’을 이어가는 것은 어떨까? 그 책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9월 15일. 레티티아는 브라이턴으로 떠났다.

10월 11일. 저녁 기도 시간에 성가대에 처음으로 촛불을 밝혔다. 그 광경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어둠의 계절을 극도로 꺼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11월 17일

책상 위 조각들의 정체가 나를 크게 놀라게 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조각들을 제대로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 일은 우연한 계기로 내 관심을 끌게 되었다.

대영광송을 읊조리는 동안, 부끄럽게도 나는 줄음에 거의 짓눌리고 말았다. 내 손은 내 stall(석위) 끝에 있는 세 개의 조각상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고양이 형상의 등에 얹혀 있었다. 나는 그쪽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부드러운 감촉, 다소 거칠고 거친 털을 만진 듯한 느낌, 그리고 마치 그 생물이 머리를 비틀어 나를 물려는 듯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느꼈다.

순간 완전히 정신이 들었다. 나는 억눌린 비명을 지른 것 같았다. 왜냐하면 재무관이 내 쪽으로 급히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불쾌한 감촉의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수피스(예복)로 손을 문질러 닦고 있었다.

이 사건은 기도 후 더 자세히 조각상들을 조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제작되었는지 깨달았다.

12월 6일

레티티아와 함께하던 시간이 그립다. 『방어론』에 매달릴 수 있는 한은 매달리지만, 그 후의 저녁 시간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다. 외로운 남자에게는 이 집이 너무 크고, 찾아오는 손님 또한 드물기 때문이다. 방으로 향할 때마다 나는 묘한 불편함을 느낀다. 어딘가에 누군가 있는 듯한, 그러니까 ‘무언가’가 함께 있다는 느낌 말이다.

사실은 (스스로에게 이를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다) 나는 목소리를 듣는다. 이는 초기 치매의 흔한 증상이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만약 내가 이것이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이라도 한다면, 지금처럼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의심이 전혀 없다. 내가 족력에서도 그런 추측에 힘을 실어줄 만한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성실한 업무와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최선의 처방이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 있을 것임에 나는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1월 1일. 솔직히 말해, 내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어제 밤, 자정을 넘어 주임사제관(Deanery)에서 돌아왔다. 나는 양초에 불을 붙여 계단을 올라갔다. 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였다. 무언가가 내게 속삭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특이한 강조가 담겨 있었다.

만약 내가 그 순간 양초를 떨어뜨렸다면——실제로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하면 몸이 떨린다.

그렇게 나는 간신히 마지막 계단을 올라, 방에 들어갔다. 문은 잠고, 더 이상은 아무런 방해 없이 지냈다.

1월 15일

어젯밤,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책상 위에 두고 온 시계를 찾으러 아래층 작업실로 내려갈 일이 있었다. 나는 마지막 계단의 꼭대기에 서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내 귓가에서 날카로운 속삭임이 들리는 기분이 들었다.

‘조심해.’

나는 손잡이를 째 쥐고, 당연하리만치 즉시 뒤를 돌아보았다. 물론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후,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돌아서는 것은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내 느낌으로는 큰 고양이 한 마리가 내 발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물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것은 부엌 고양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2월 27일

어젯밤, 잊어버리고 싶은 기이한 일이 있었다. 여기에 적어두면 그 사건의 진면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서재에서 일했다. 복도와 계단에는 유난히도 ‘소음 없는 움직임’이 가득한 듯했다. 즉, 누군가 끊임없이 오가듯 느껴졌지만, 내가 글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거나 복도로 고개를 내밀면 정적은 깨지지 않았다.

보통보다 일찍, 밤 10시 반쯤 방으로 돌아올 때도 나는 분명히 소음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

다행히도 나는 존에게, 아침 일찍 궁전에 전달해야 할 주교에게 보낼 편지를 가져오라고 말한 바 있었다. 그는 내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편지를 받으러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지만, 편지는 방으로 가져왔다.

손시계를 감다가 문에서 가벼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어와도 될까요?”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히 들렸다. 그때야 비로소 그 사실을 떠올렸고, 화장대에서 편지를 집어 들고 “당연하지. 들어오게.”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내 부름에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강하게 의심하건대, 내가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때였다. 나는 문을 열고 편지를 내밀었다.

복도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서 있던 순간, 복도 끝의 문이 열리고 촛대를 든 존이 나타났다.

나는 그에게 아까 문 앞에 왔었는지 물었지만, 그가 그러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나는 이 상황이 마음에 걸린다. 감각은 매우 예민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지만, 더 이상 불길한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인정해야겠다.

봄이 돌아오고, 몇 달 동안 누이가 함께 살게 되자, 헤인즈 박사의 일기는 더 밝아졌다. 사실, 9월 초 다시 혼자 남게 되기 전까지는 우울증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는 다시금 불편함을 겪고 있었으며,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언급할 것이다. 하지만 잠시 벗어나서, 이야기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문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옳든 그르든, 나는 이것이 이야기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헤인즈 박사의 장부류는 다른 문서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그 장부에는 헤인즈 박사가 부주교로 임명된 시점보다 조금 뒤부터, 매분기마다 J. L.에게 25파운드를 지급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기록과 매우 지저분하고 글씨가 엉성하게 쓰인 한 통의 편지를 연결한다. 내가 앞서 인용한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도 일기장 표지 안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날짜나 소인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글씨를 읽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

친애하는 선상님께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에게서 편지를 기다렸으나, 답장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추측해 보았습니다. 내 편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 계절 우리 농장에서 겪은 불운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농장 일이 모두 꼬이고, 지대(地代)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슬픈 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큰 [관대함]을 베풀어 40파운드를 보내 주신다면 좋겠
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폴터니 박사의 직위에서 잃게 만든 장본인이셨으니, 내
가 지금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궁지에 몰린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당신은 잘 알고 계십니
다. 하지만 나는 내 주변을 항상 평온하고 기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를 원하므로, 그런 불쾌한 일은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충실한 중,

제인 리.

내가 이 편지가 쓰였을 때라고 추측하는 무렵, 실제로 J.L.에게 40파
운드가 지급된 기록이 있다.

일기로 돌아가자.

10월 22일

저녁 기도 시간, 시편을 낭독할 때 나는 작년에 겪었던 그 동일한 경험을 다시금 마주했다.

나는 여전히 조각상 중 하나에 손을 얹고 있었다. 다만 요즘은 대개 고양이 형상은 피한다.

그때, 그 조각상에 변화가 일어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그것은 내 신체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적어도 나무 표면은 차갑고 축축한 린넨 천처럼 물러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변화가 내 의식에 들어온 정확한 순간을 기억한다. 합창단이 그 구절을 노래하고 있을 때였다.

“불경한 자를 그 위에 통치자로 세우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밤 집 안의 속삭임은 유난히 끈질겼다. 방 안에서도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전에 이런 기색을 본 적이 없다.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이라면 — 나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 이 소리에 크게 짜증을 내거나 심지어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고양이가 오늘 밤도 계단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고양이가 항상 그곳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에는 부엌 고양이가 없다.

11월 15일

여기서 또 한 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잠자리가 몹시 불안했다. 뚜렷한 꿈속의 형상은 없었지만, 젖은 입술이 내 귀에 매우 빠르고 강렬하게 속삭이는 생생한 인상만 계속 따라다녔다. 그 후, 아마도 나는 다시 잠들었을 테지만, 어깨에 무언가 손이 올려진 듯한 느낌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나는, 내가 첫 번째 계단의 가장 아래쪽 계단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큰 창문을 통해 비친 달빛이 충분히 밝아, 두 번째나 세 번째 계단 위에 큰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인지 알 수 없이, 나는 다시 침대 쪽으로 기어 올라갔다. 음, 내게는 무거운 짐이 지워진 셈이다.

[그 뒤로 한두 줄이 지워져 있다. 나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행동했다’와 같은 문구가 읽힌다고 생각한다.]

이 일 이후로, 나는 부주교의 굳건함이 이 불가해한 현상들의 압박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분명히 보았다. 12월과 1월 동안 처음 나타나 점차 빈번해지던 그의 절규와 기도는 지나치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므로 생략한다. 그러나 이 기간 내내 그는 자신의 직책에 매달리는 데 있어 완고함을 잃지 않았다.

그가 건강이 나쁘다는 핑계를 대며 베스나 브라이턴으로 피신하지 않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내 기억에는, 그런 처신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인상이 강하다. 그는 만약 자신이

겪는 귀찮은 일들에 굴복했다고 고백했다면, 즉시 무너져 내렸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는 방문객들을 집으로 초대함으로써 그 불쾌한 상황들을 다소 완화하려 시도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월 7일. 나는 사촌 앨런에게 며칠 동안 머물게 하도록 설득했다. 그는 내 방 바로 옆 방을 차지했다.

1월 8일.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다. 앨런은 잘 잤지만, 바람 소리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의 경험은 이전과 다름없었다. 여전히 속삭임이 이어졌다. 도대체 그 무언가는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걸까.

1월 9일

앨런은 이 집이 유난히 시끄럽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 고양이가 보통보다 훨씬 크고 훌륭한 품종이지만, 매우 사납다고도 말한다.

1월 10일

앨런과 나는 열한 시까지 서재에 있었다. 그가 두 번이나 자리를 비우며 복도에서 하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돌아온 그는, 복도 끝자락의 문을 지나가는 하녀 한 명을 봤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아내가 여기 있었다면 곧장 그들을 단속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 하녀가 어떤 색 옷을 입었는지 물었다. 그는 회색이거나 흰색이라고 했다. 나도 그럴 줄 알았다.

1월 11일. 앨런이 오늘 나를 떠났다. 나는 단호해야 한다.

그 다음 날들, ‘나는 단호해야 한다’는 문장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때로는 이 문장만이 유일한 기록이었다. 이런 경우 글씨가 유난히 크고, 종이에 깊이 파고들어 있었다. 이 문장을 쓴 펜은 이미 부러졌을 것이다.

부주교의 친구들은 그의 행동에 별다른 변화가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다. 이는 그가 얼마나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기는 그의 생애 마지막 날들에 대해 내가 이미 언급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모든 것의 결말은 추도문의 정제된 어조로만 전해질 뿐이다.

2월 26일 아침은 춥고 폭풍우가 치는 날이었다. 이른 시간, 하인들이 이 글의 주인공이었던 존경받는 주인의 거주지 앞 현관으로 들어갈 일이 생겼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였을까? 주인의 시신이 주 계단의 중간 층계단에 누워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자세는 보는 이에게 가장 심각한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도움이 불려왔고, 그가 잔혹하고 살인적인 공격의 대상이었음이 발견되자 집안 전체가 공황에 빠졌다. 그의 척추는 여러 곳에서 골절되어 있었다. 이는 낙상의 결과일 수도 있었다. 실제로 계단 카펫의 한 부분이 헐거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눈, 코, 입에 가혹한 상처가 있었는데, 이는 야수 같은 동물이 저지른 것으로 보였다. 말하기조차 끔찍한 일이지만, 그 상처로 인해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필요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의 생기는 이미 완전히 꺼져 있었으며, 신뢰할 만한 의학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상태가 몇 시간째 지속되어 왔다. 이 기묘한 참사의 가해자는 여전히 미궁 속에 묻혀 있으며, 지금까지 가장 활발한 추측조차 이 끔찍한 사건이 남긴 비극적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셸리, 바이런, 볼테르의 글들이 이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성찰하며, 끝으로 이 사건이 '새로운 세대에 게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다소 모호한 소감을 남긴다. 하지만 그의 발언 중 이 부분은 전체를 인용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해인스 박사가 폴트니 박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대부제의 좌석에 있는 죽음을 형상화한 조각상과 관련된 사건은 매우 난해한 단서였다. 이 조각이 '매달린 참나무'의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추측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바체스터를 방문했다. 목공 관련 유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한 참사회원이 나를 현지 박물관의 관장에게 소개해 주었다. 내 친구는 그 관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과거 좌석에

장식되어 있던 특정 조각상과 무기들의 묘사를 들려주며, 그중 살아남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웨스트 주임사제(Dean)의 문장과 몇몇 파편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는 이것들이 한 노령 거주민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거주민은 내가 찾고 있던 조각상 중 하나를 한때 소유하고 있기도 했다.

그 조각상에는 매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서가 말했다. “그 조각상을 가지고 있던 노인이 내게 말하길, 그는 그것을 목재 창고에서 주웠다고 했다. 그곳에서 그는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파편들을 입수했고, 아이들을 위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다가 손에서 돌로 부러졌다. 그러자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주워, 위에 글이 적혀 있다는 것을 대충 확인한 뒤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나중에 벽난로 위의 꽃병에 넣었다.”

“최근에 그 노인의 집에 갔다가 우연히 그 꽃병을 들어 올려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던 중, 종이가 내 손에 떨어졌다. 내가 그것을 그에게 건네자, 그는 내가 방금 말한 이야기를 해줬고, 종이를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 종이는 구겨져 있고 조금 찢겨 있었기에, 나는 그것을 카드지에 붙여 여기 가지고 왔다. 만약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나는 꽤나 놀랄 것이다.”

그가 내게 카드를 건넸다. 종이는 낡은 필체로 꽤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숲에서 자라던 나는 피로 적서졌노라. 이제 교회당에 서 있노라. 누구든 내게 손을 대는 자여, 그 손이 피투성이라면 경계하라.

그가 밤이든 낮이든 끌려가지 않도록, 특히 이월의 밤, 바람이 거세게 불 때라면 더욱 조심할지이다.

이 꿈을 꾸었다. 1699년 2월 26일. 존 오스틴

“마법이나 주문 같은 걸까요?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관장이 말했다.

“네, 그렇겠죠. 그것이 숨겨져 있던 조각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깜빡했군요.” 그가 말했다. “그 노인이 말하길, 그 조각상이 너무 흥측해서 아이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그 조각상을 불태워 버렸다고.”

마틴스 클로즈

몇 년 전, 나는 서부 지방의 한 교구에서 지낸 적이 있다. 그곳은 내가 속한 협회가 소유한 땅이 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 땅 중 일부를 둘러보러 가야 했다. 방문 첫 날, 아침 식사 직후쯤이었다. 영지의 목수이자 잡일을 도맡아 하는 존 힐이 우리를 따라올 준비가 됐다는 연락이 왔다.

목사는 아침에 어느 지역을 볼지 물었다. 영지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가 돌아볼 코스를 가리키자 그는 한 곳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거기서 존 힐에게 마틴스 클로즈(Martin's Close)에 대해 물어보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꼭 듣고 싶다.”

“그가 뭘 말해야 한다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글쎄, 나도 정확히 모르지. 아니, 잘은 모르지만 점심시간까지는 그 정도로 충분하겠지.”

그때 목사는 어디론가 급히 불러 나갔다.

우리는 길을 나섰다. 존 힐은 자신이 아는 정보를 결코 숨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수다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낯선 단어라든가, 내가 알지 못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 단어는 보통 철자를 하나하나 떼어주었다. ‘c-o-b, 코브’처럼 말이다.

하지만 마틴의 클로즈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존 힐과의 대화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 땅은 눈에 띄는 곳이었다. 아마도 당신이 본 어떤 울타리 부지보다도 작았기 때문이다. 넓이는 고작 몇 평방 야드쯤 될까. 사방이 생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틈새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작은 농가 정원이란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 땅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경작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은 길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그곳은 일명 ‘무어’라 불리는 땅의 일부였다. 즉, 큰 밭들로 나뉜 거친 고지대의 목초지였다.

“왜 이 작은 땅은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내가 물었다. 존 힐이 답했다. 그의 말은 내가 바라는 만큼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지만, 그는 전혀 잘못된 바가 없었다.

“그곳을 저희는 마틴스 클로즈(Martin's Close)라고 부르죠, 선생님. 그 땅에는 묘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틴스 클로즈, 즉 M-a-r-t-i-n, 마틴이라는 이름으로 통하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목사가 그 일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라고 하셨나요?”

“네,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지난주에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사님은 아주 관심을 가지셨죠. 그 땅에는 마틴이라는 살인자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사우스타운이라 부르는 곳에 살았던 새뮤얼 설런즈라는 노인이 그 일에 대해 길고도 끔찍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를 죽인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죠. 목을 베어 강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는 사형당했나요?”

“네,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 도로 옆에서요. 수백 년 전 무고한 아기들의 날(Holy Innocents)에 말입니다. ‘피투성이 판사’라 불렸던 사람이 내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피투성이였다고 하더군요.”

“그 이름이 제프리(Jeffreys)였나요?”

“그럴 수도 있죠. 제프리, J-e-f, 제프리. 설런즈 씨가 여러 번 들려준 이야기로는, 조지 마틴이라는 이 젊은이가 잔인한 행위가 드러나기 전부터 그 여자의 영혼에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달렸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죠. 설런즈 씨는 뉴 인(New Inn) 아래층에 있는 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영혼이 그 찬장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해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존 힐이 전한 정보는 이 정도였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 제때에 그 이야기를 교구 목사에게 보고했다. 목사는 교구 장부에서 1684년에 교수대(gibbet)를 사들인 내역과 이듬해 조지 마틴을 위한 무덤을 파느라 쓴 비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런즈가 이미 떠난 탓에, 더 이상 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잡아줄 만한 교구 주민은 없었다. 목사도 더 이상 힌트를 줄 수 없었다.

도서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돌아온 나는 당연히 가장 눈에 띄는 곳부터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그 재판 기록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의 신문과 몇 통의 서신에서 짧은 기사들을 찾아냈을 뿐이다. 그 기사들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지역적 편견(그는 좋은 가산을 물려받은 젊은 신사로 묘사되었다) 때문에 재판 장소가 엑서터에서

런던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심판관은 제프리였으며, 형량은 사형이었다. 또한 증언 가운데는 몇 가지 ‘특이한 정황’이 있었다는 정도였다.

그 후로 올해 9월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당시 내게 제프리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알던 한 친구가, 중고 서점의 카탈로그에서 찢어낸 한 장의 종이를 보내왔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적혀 있었다. “제프리 판사: 흥미진진한 고문서 살인재판 기록” 등등. 나는 기쁨에 겨워, 그 기록이 마틴 사건에 대한 속기 형식의 거의 원문 그대로의 보고서일 가능성이 크며, 아주 적은 돈으로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전보를 쳐서 원고를 주문했고, 곧 받아보았다. 그것은 얇게 제본된 한 권의 책이었다. 18세기 누군가가 필기체로 쓴 제목이 붙어 있었고,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은 메모도 추가해 두었다.

“내 아버지는 법정에서 이 기록을 받아 적었다고 했다. 아버지에 따르면, 피고인의 측근들이 판사 제프리에게 손을 써서 이 재판 기록이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막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형편이 나아지면 직접 이 기록을 출판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글랜빌 목사에게 보여주었다. 글랜빌 목사는 그의 계획을 매우 열심히 격려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계획이 실현되기 전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

끝에는 W. G.라는 이니셜이 달려 있다. 원고를 작성한 사람은 T. Gurney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을 받았다. 그는 여러 국사법 재판(State trial)에서 같은 자격(속기 기록자)으로 등장한다.

내가 직접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가 전부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7세기 속기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원고 전체를 타자기로 옮겨 놓은 사본이 내 앞에 놓였다. 내가 여기에 옮기는 부분들은 존 힐과, 아마도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 남아 있는 다른 몇몇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매우 불완전한 윤곽을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전언으로 시작된다. 이 사본은 법정에서 실제로 기록된 원본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법정에서 오간 발언의 요지는 정확히 반영된 진실된 사본이다. 하지만 필자는 재판 중 일어난 몇몇 ‘특이한 장면’들을 여기에 덧붙였다. 그리고 이 전체를 정성껏 정리한 현 사본을 완성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이를 출판할 의도였다. 하지만 필자는 이를 정식 필기체로 옮겨 적지 않았다. 만약 그렇다면, 허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넘어갈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필자나 그의 가족은 그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될 테니까.

그리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이 사건은 11월 19일 수요일, 올드 베일리에서 열린 재판정에 회부되었다. 국왕과 조지 마틴 사이에 벌어진 이 재판은 오이어 앤 테르미너(청문하여 판결하는) 및 가일 딜리버리(미결수 일괄 재판) 법정이었다. 죄수인 마틴은 뉴게이트 교도소에서 데려와 재판정 중앙에 세워졌다.

국왕 측 서기. 조지 마틴, 손을 들어라(그가 그러했다).

그때 공소장이 낭독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 ‘은 하
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마의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 우리 주군 찰
스 2세 왕의 제36년 5월 15일, 무력을 사용하여 앞서 언급한 교구 안
에서, 그곳의 미혼 여성 앤 클라크를 공격했다. 당시 앤 클라크는 하나
님과 우리 주군 국왕의 평화 속에 있었다.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고의
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악의에 찬 마음으로, 1페니 가치의 작은 칼로
앤 클라크의 목을 베었다. 그 상처로 인해 앤 클라크는 그 자리에서 사
망했고, 피고인은 그녀의 시체를 같은 교구에 위치한 연못에 던져 버렸
다. (이외의 세부 사항은 우리의 목적과 무관하므로 생략한다.) 이 모
든 행위는 우리 주군 국왕의 평화와 그의 왕관 및 존엄성에 반하는 것
이었다.’

그때 죄인은 고발장 사본을 달라고 청했다.

“L.C.J.(서 조지 제프리즈). 이건 뭐지?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건 절
대 허용되지 않아. 게다가 여기 내가 듣기에도 가장 명확한 고발장이
있잖아. 너는 이 고발장에 대해 변론하기만 하면 돼.”

“전하, 이 기소장에는 법적 쟁점이 도출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
다. 신은 간곡히 청하오니, 신을 위해 법률 고문을 임명해 주시기를.”

“또한 전하, 신은 이 일이 다른 사건에서 행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당시 기소장의 사본이 허가되었던 바 있습니다.”

“L.C.J. 그게 무슨 사건이었나?”

“정녕입니다, 폐하. 엑시터 성에서 올라온 이후로 저는 감금된 신세였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L.C.J. 하지만 내가 묻는 거야, 네가 주장하는 그 사건이 대체 뭐였지?”

“주군, 그 사건의 정확한 이름을 기억해 내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저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이 모든 건 다 부질없다. 그 사건을 말해 보아라. 그 안에 네게 도움될 법적 사유가 있는지 우리가 가려 주겠다. 법이 허용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네게 주어야 마땅하다. 허나 이번 일은 법에 어긋나니, 우리는 법정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대검찰관(서 로버트 소이어)이 말했다. “재판장님, 국왕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답변을 명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법정 서기: 피고인, 당신은 기소된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무죄를 주장합니까?

“전하, 신이 감히 이 점을 법정에 아뢰고자 합니다. 지금 변론을 드리면, 이후 고소장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집니까?”

“네, 네. 그것은 판결 이후에 나오는 절차야. 네게는 그 부분이 남겨져 있고, 법률상 쟁점이 있다면 변호사도 배정될 거야. 하지만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변론하는 거야.”

그는 법정과 얼마간 실랑이를 벌였다. 그런 명백한 기소장 앞에서는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변했다.

법원 기록관. 피고인. 너는 어떻게 심판을 받겠느냐?

피고인. 신과 나의 조국을 두고 맹세하노라.

신께서 너에게 건전한 구원을 내려주시길.

“L.C.J.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미 큰 소동이 있었으니, 당신을 고향인 엑서터가 아닌 런던으로 불러들여 심문했는데, 이제 와서 고향에서 재판받겠다는 것이냐? 너를 다시 엑서터로 돌려보내야 하겠느냐?”

“재판장님,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 친구. 우리는 그저 친근하게 수다를 떨었을 뿐이지. 자, 이제 배심원단에게 선서를 시켜라.”

그들은 맹세했다. 이름은 생략한다. 피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소환된 인물들을 한 명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피고는 펜과 잉크, 종이를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관은 즉각 허락했다. “그렇지, 신의 이름으로 그에게 주게.”

이후 배심원단에게 관례적인 지시가 내려졌고, 왕측의 하급 변호사인 돌벤 씨가 사건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법무장관이 뒤이어 말을 이었다.

존경하는 판사 각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왕을 대신해 이 피고인을 기소하는 측 변호인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한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범죄가 드물지 않다고 여기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사건은 거의 매일처럼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영국 땅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적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만드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증하듯, 피해자는 가난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상당한 재산을 가진 신사였습니다.

게다가 하느님은 그녀에게 완전한 이성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순진한 사람'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같은 신사는 그녀를 외면했거나, 만약 그녀를 알아차렸다면 그녀의 불쌍한 처지에 동정심을 느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가 보여드릴 것처럼, 매우 잔혹하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차근차근, 당신에게 이 일을 정연하게 풀어놓겠다.

작년 성탄절, 정확히 1683년이었다. 마틴 씨라는 이 신사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이었다. 그의 가문은 그 고을 전체에서 매우 높은 명성을 자랑했기에, 이웃들은 그를 대접하며 예의를 다하고자 했다. 그들은 마틴을 여러 차례 성탄절 잔치에 초대했고, 그는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또 다른 곳으로 끊임없이 말을 타고 오갔다.

때로는 목적지가 멀거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는 어쩔 수 없이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다.

그런 연유로, 성탄절이 지나고 이틀쯤 되었을 때 그는 이 소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마을에 도착해, 그곳의 ‘뉴 인(New Inn)’이라는 여관에 묵게 되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여관도 평판이 좋은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춤을 추며 즐기고 있었다. 앤 클라크라는 이 소녀도 언니에게 이끌려 구경하러 온 듯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그녀는 지능이 다소 부족했고 외모도 몹시 못생겨 있었다. 따라서 그녀

가 잔치에 크게 참여할 리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그저 방 한구석에 서 있을 뿐이었다.

피고석에 선 피고인은, 어찌 보면 장난기 어린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에게 춤을 추겠냐고 물었다. 언니와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말리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L.C.J. 오, 법무장관 각하. 우리가 여기 앉아 술집 크리스마스 파티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들이 어떤 춤곡에 맞춰 춤을 추었는지까지 말씀하시려나 봐요.”

“각하, 법정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뜻밖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은 이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율에 관해서는, 제 생각엔 우리의 증언이 그것이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세요. 하느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각하.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피살자와 피고인 사이의 첫 만남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는 자신이 매우 매력적인 연인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매주 적어도 한

번은 그녀가 사는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호를 정했습니다. 그는 술집에서 연주하던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불어야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나라에서 잘 알려진 곡이었습니다. 후렴구는 ‘부인, 저와 함께 걸으시겠어요, 이야기 나누시겠어요?’였습니다.”

“나도 내 고향인 슈롭셔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소. 대강 이런 식이었지, 그렇지 않소?”

그때 경이 갑자기 곡조 일부를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다. 그 선율은 법정 안에서 매우 눈에 띄었고, 법정의 위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본인은 그 점도 의식했는지, 곧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본론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내가 보기엔 이번이 이 법정에서 춤곡이 언급된 첫 번째일 걸세. 우리가 관여하는 춤의 대부분은 타이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는 죄인을 바라보았다. 죄인의 얼굴은 크게 일그러져 있었다.

“변호사, 그 선율이 당신의 사건에 중요하다고 했지. 내 생각엔 마틴 씨도 그 말에 동의할 걸세. 대체 무슨 일ियो? 마치 유령을 본 배우처럼 멍하니 서 있구려.”

“각하, 제가 듣기에 그들이 저에게 가져다대는 말들이 너무 하찮고 어리석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래. 그것이 사소한 일인지 아닌지 가리는 것은 법무장관의 몫이지.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가 이보다 더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면 놀랄 일은 아니야. 뭔가 더 깊은 곳에 있지 않나? 어쨌든 계속 말해보게, 법무장관.”

법관 각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그다지 중대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단지 한 젊은 신사가 가엾고 어리석은 소녀를 달래주는 선에서 그쳤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3주에서 4주쯤 지났을 때, 그 지역 출신의 적임자라고 할 만한 젊은 숙녀와 약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그에게 행복하고 명성 있는 삶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젊은 숙녀는 마을에서 돌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피고인과 앤 클라크 사이의 일화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연인의 부끄러운 행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술집에서 놀림감이 되는 것 또한 자존심에 상처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의 동의 하에, 더 이상 말 없이 피고인에게 두 사람의 약혼은 끝났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접한 피고인이 자신의 불행한 원인이 앤 클라크에게 있다고 생각해 크게 분노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비록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끔찍한 말과 협박을 퍼부었고, 나중에 그녀를 만나서는 모욕을 주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하지만 앤은 순진하고 가엾은 소녀였기에, 그를 향한 애정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를 쫓아가 제스처와 단편적인 말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삶에 걸린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소처럼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그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다면 피했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는 그녀를 만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이 올해 5월 15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피고인은 평소처럼 말에 타고 마을을 지나다가 그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지나치지 않고, 그는 말에 멈춰 그녀와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매우 기뻐하는 기색을 보였고, 그는 그녀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앤은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찾기 위한 엄격한 수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피고인이 그 곳을 다시 지나갈 때, 그녀의 친족들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친족들은 그의 관심 때문에 그녀의 약한 정신이 흔들려 자해 행위를 저지르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동시에 친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자주 그에게 그녀에게 관심 두기를 그만두라고 간청했는지 그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것을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와 행실이 변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주목해 주시기를 요청하기 꺼려지는 구절로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증언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판단에는 이는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그가 무고한 피를 요구하신다는 큰 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법무장관은 잠시 멈추었다. 그는 서류 더미를 만지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나는 물론 다른 이들 역시 이를 특이하게 여겼다. 그는 쉽게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L.C.J. 자, 법무장관님. 당신의 예시는 무엇입니까?”

“각하, 정말 기이한 사건입니다. 제가 관여했던 모든 사건 중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앤 클라크가 5월 15일 이후에도 목격되었다는 증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목격되었을 당시, 그녀가 살아있는 인간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허허 웃으며 수군거렸고, 법정은 고요를 요구했다. 고요가 찾아오자--

“왜요, 법무장관 각하. 이 이야기를 일주일쯤 보류해 두시면 어떻습니까. 그때쯤이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겠지요. 그때 가서 주방 여종들을 놀라게 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청중들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죄인도 웃는 것 같았다.

“하나님, 그대여. 그대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유령이요, 크리스마스 춤이요, 여관 친구들이라니. 여기서는 한 남자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는 죄인을 향해 말했다.

“그대도 알았으면 좋겠네. 그대가 여기 와서 흥청망청 놀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도 알다시피, 법무장관 각하는 아직 드러내지 않은 더 깊은 사정이 있다고 하네. 계속 진행하시오, 법무장관 각하.”

“내가 그렇게 날카롭게 말한 것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대의 태도는 어쩐지 이례적이야.”

“각하, 그 사실을 저보다 더 잘 아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의를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앤 클라크의 시신이 목이 베인 채 6월 어느 연못에서 발견되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물속에는 피고인의 칼이 같은 물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칼을 물속에서 건져 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시신 감정관 심문단도 피고인에게 유죄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정석대로라면 그는 엑서터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측에서 간청이 들어와, 고향에서 공정한 배심원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로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런던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증인들을 불러들여 진행하겠습니다.”

그 후, 피고와 앤 클라크 사이의 인연에 대한 사실들이 증명되었다. 또한 검시관의 검시 심문 과정도 공개되었다. 나는 이 부분의 재판 내용은 특별히 흥미로운 점이 없으므로 넘어간다.

사라 아스콧이 다음으로 소환되어 선서를 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나, S.는 --에 있는 뉴 인 Inn을 운영한다.

법정석에 선 피고인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처음 오신 이후로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앤 클라크를 알고 있었나요?

“네, 아주 잘 알았지요.”

“부디, 그 여자의 외모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S. 그녀는 키가 아주 작고 몸집이 굵은 여인이었다. 내가 더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는 미인이었는가?

아니, 도무지 그렇지 않았소. 그 아이는 정말 보기 흥했어. 얼굴이 유난히 크고 턱살이 늘어졌으며, 피부색도 퍼독처럼 아주 나빴지.

“무어라고요, 마담? 그분이 어떤 분이었다고요?”

“각하, 용서하십시오. 마틴 경이 그녀 얼굴을 퍼독 같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걸 아셨습니까? 변호사님, 그녀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각하, 그것은 두꺼비를 뜻하는 시골 방언으로 보입니다.”

“L.C.J. 아, 두꺼비로군! 그래, 계속 말해.”

지난 5월, 당신과 법정 피고인 사이에서 오간 일을 배심원단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앤이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은 다음 날, 밤 9시쯤 됐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손님은 없었고 토머스 스넬만 있었어요. 날씨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마틴 지주가 들어와 술을 청했습니다. 저는 장난 삼아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주님, 애인 찾았나?’ 그랬더니 지주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평소 그 애인을 두고 농담을 하던 사이였거든요.”

“누구라고요? 그녀를?”

“앤 클라크입니다, 각하. 그분이 다른 곳의 젊은 양가 여자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더라면 저는 분명 더 나은 예절을 갖추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이 상한 나머지 제가 먼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혼자 중얼거리듯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춤추던 노래였는데, 제가 그를 자극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그가 거리로 내려올 때 자주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매우 자주 들었습니다. ‘부인,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함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부엌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점점 더 크게, 더 담대하게요. 그러던 중 문득 집 밖에서 누군가가 답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신사님, 함께 걸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가 앤 클라크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녀의 것임을 어떻게 알았소?"

절대로 틀릴 수 없었다. 그녀는 끔찍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래를 부르려 할 때는 그 소리가 마치 비명 같은 울부짖음 같았다. 마을에는 그 목소리를 흉내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종종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는 안도했다. 우리가 모두 그녀의 실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녀는 천성이 둔감했지만, 성품은 좋았고 순종적이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머니, 아이야. 돌아온 거야?’

그리고 나는 앞방으로 뛰어갔다. 지나가며 마틴 지주에게 소리쳤다. “지주님, 당신의 연인이 돌아왔네요. 불러들일까요?”

그리고 나는 문을 열어 갔다. 하지만 마틴 지주가 나를 붙잡았다. 그의 정신이 나간 듯했다. 거의 미친 상태였다.

“멈춰라, 여자야. 하나님 이름으로!”

그는 떨고 있었다. 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뭐야, 가엾은 아이가 찾아졌는데 기쁘지 않니?”

나는 토머스 스넬을 불렀다. “지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가 문을 열고 그녀를 불러들이렴.”

토머스 스넬이 가서 문을 열었다.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 들어와, 우리가 켜 놓은 두 개의 양초를 모두 꺼뜨렸다.

마틴 지주는 나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듯했다. 우리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다시 불을 켜기까지 몇 분 정도 걸렸다.

불을 찾던 중, 나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바닥을 걷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방 한가운데 서 있는 큰 찬장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다시 불을 켰을 때, 마틴 지주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백하고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기절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의 팔은 축 처져 있었다.

나는 그를 도와주려 했다. 하지만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찬장 문 틈새로 드레스 조각 같은 것이 끼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이 닫혔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나는 누군가가 불이 꺼진 틈에 찬장 안으로 숨어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봤다.

검은 천으로 된 작은 망토 자락과, 바로 아래 갈색 천 드레스의 끝부분이 문틈으로 나와 있었다. 둘 다 바닥 근처에 있었는데, 마치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안으로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그것이 여자의 옷인 줄 알았다.

“누구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었나요? 그런 옷을 입는 사람을 알고 계셨나요?”

그저 평범한 옷감이었다. 내가 본 바로는. 우리 교구에서 그런 옷을 입은 여자를 여럿 본 적이 있다.

“앤 클라크의 드레스와 비슷했나요?”

그녀는 예전에 정확히 그런 옷을 입곤 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 것임을 단언할 수는 없다.

“그것에 대해 다른 것도 목격하셨습니까?”

나는 그것이 매우 젖어 보이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밖은 날씨가 매우 나빴다.

“마담, 그걸 만져보셨습니까?”

“아니요, 각하. 저는 그것을 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왜요? 젖은 옷을 만지기 꺼릴 만큼 까다로운 분이요?”

“실로, 각하. 저도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보기에든 흉측하고 불길한 인상을 풍겼을 뿐입니다.”

“알겠어. 계속 해봐.”

그때 나는 다시 토머스 스넬을 불렀다. 그가 다가와서 찬장 문을 열었을 때 밖으로 나오는 사람을 잡으라고 명했다.

“안에 누군가 숨어 있다. 그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으니.”

그 말과 함께 마틴 지주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찬장 문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문이 나를 밀어붙이는 것을 느꼈다. 토머스 스넬이 나를 도와주었지만, 우리는 아무리 힘을 주어 문을 달으려 해도 문은 우리를 밀어냈다. 결국 우리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 무엇이 나왔소? 쥐라도 나왔나요?”

“아니요, 각하. 그것은 쥐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닥 위를 매우 빠르게 지나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보였는가? 사람 모양이었는가?

“각하,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낮게, 그리고 어두운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토머스 스넬과 저는 둘 다 놀라 꼼짝도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뒤를 쫓아 열린 문 쪽으로 최대한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았으나, 주변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발자국 같은 흔적은 없었나요? 그곳의 바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닥은 판석을 깔고 모래를 뿌려 놓았사옵니다, 각하. 그런데 바닥에 젖은 자국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토머스 스넬이나 저나,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날 밤은 매우 악천후였거든요.”

“나로선 말이야, 설령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기이하기는 하지만, 그 증거로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각하, 우리는 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살해된 사람이 사라진 직후, 피고인이 보인 수상스러운 행동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그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들렸던 목소리에 관한 문제도 함께 살펴보아 주십시오.”

그때 죄인이 별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을 몇 가지 던졌다. 그리고 이어 토머스 스넬이 증언대에 섰다. 그는 아스콧 부인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덧붙였다.

아스콧 부인이 방을 비운 사이, 당신과 죄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주머니에 꼬임 줄 하나를 넣고 있었다.

무엇을 끈 것 말이오?

“담배를 비틀어 놓은 거였어요, 각하. 그래서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벽난로 위에 파이프가 하나 있길래 집어 들고 보니, 비틀어 놓은 담배였어요. 그런데 실수로 칼을 집에 두고 나왔고, 치아도 많지 않아서 그 담배를 뜯어 먹기에는 좀 힘들더군요. 각하께서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L.C.J. “저 남자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핵심으로 들어오시오, 친구! 우리가 여기 앉아 당신의 이빨을 구경하러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옵니다, 각하.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신이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폐하의 위엄은 더 중요한 일과 더 훌륭한 이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인간인가! 응, 나는 확실히 이빨이 더 낫소. 네가 본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걸 직접 확인하게 될 거야.”

“감히 청하건대, 각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해코지할 의도 없이, 담배를 찢어 먹을 칼이 없어 마틴 지주님께 칼을 빌려달라고 여쭙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머니를 하나씩 뒤져보았지만, 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이, 지주님, 칼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벌떡 일어나 다시 주머니를 뒤져본 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끔찍한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 그곳에 두고 왔어.’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지주님, 보아하니 칼은 그곳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칼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면, 공고를 내서 찾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 채, 제가 하는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스콧 부인이 부엌 쪽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집 밖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물었으나, 그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부엌으로 이어지는 문은 닫혀 있었고, 바람은 세계 불었다. 그럼에도 그는 앤 클라크의 목소리라면 누구도 잘못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열세 살쯤 된 윌리엄 레드다웨이라는 소년이 소환되었다.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라 질문을 던지자, 그는 선서의 의미를 알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선서를 했다. 그의 증언은 약 일주일 뒤의 일을 다루고 있었다.

“자, 아이야. 놀라지 마라. 네가 진실을 말한다면 여기 있는 누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진실을 말한다면 그렇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아이야. 너는 하늘과 땅의 위대한 하나님,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 그리고 국왕의 하수인으로서 뉴게이트 감옥의 열쇠를 가진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인간의 목숨이 걸려 있다는 것도 기억해라. 네가 거짓말을

해서 그가 불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너는 그 살인자와 다를 바 없으니까. 그러니 진실을 말해라.”

배심원단에게 아는 사실을 말하라. 또렷하게 말해라. 지난 5월 23일 저녁,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애가 무슨 날을 안다는 거야. 너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니, 소년?”

“네, 각하. 저희의 축제가 있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육펜스를 쓰게 되었죠. 그날은 한여름 날(6월 24일)보다 한 달 앞선 날이었습니다.”

배심원 중 한 명이 말했다. “각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날 그 마을에서 축제를 열었기 때문이지. 그는 여섯 페니를 쓸 돈이 있었다고 해. 저기 탁자 위에다 세워주게.”

“그래, 아이야.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황야에서 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각하.”

하지만 소년은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재판장은 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재판장은 그를 번역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그 마을의 목사가 그곳에 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목사는 증언을 하도록 선서를 했고, 증언이 이루어졌다. 소년이 말했다.

나는 여섯 시쯤 무어에 있었다. 연못 옆에 있는 가시덤불 뒤에 숨어 앉아 있었다.

그 죄수가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손에는 긴 막대 같은 것을 쥐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는 막대로 물속을 더듬기 시작했다. 나는 물에서 불과 5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막대가 무엇인가에 부딪히는 소리를 또렷이 들었다. 그것은 물이 출렁이는 소리와 같았다.

죄수는 그 막대를 떨어뜨리고 곧장 땅에 엎어졌다. 그는 이상하게도 몸을 구르며 양손으로 귀를 막았다.

잠시 후, 그는 일어나 기어 다니듯 사라져 갔다.

그가 죄수와 어떤 교류를 나눴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네, 엇그제나 그제 전쯤이었죠. 죄수는 제가 황야에 자주 나간다는 걸 알고는, 주변에 칼이 놓여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육펜스 주겠다고 했죠. 저는 그런 건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입을 다물면 육펜스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연회에 바칠 육펜스 동전이었던 건가?”

“네, 그렇습니다, 각하.”

그 연못에 대해 특별히 관찰한 것이 있는지 물으니, 그는 "아니요. 다만 며칠 전부터 물에서 매우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소들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가 죄수와 앤 클라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묻자, 그는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가 제정신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그 교구의 목사 매슈스 씨가 그를 진정시켰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자 그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 여러 차례 앤 클라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죄수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를 가까이서 봤나? 그녀가 맞는지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네,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아이야?”

“왜냐하면 그녀는 서서 발을 구르고 거위처럼 팔을 퍼덕였으니까요. [그는 그것을 시골 이름으로 불렀지만, 목사는 그것이 거위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다른 누구도 될 수 없는 형태였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녀를 그렇게 본 게 언제였소?”

그때 증인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매슈스 씨에게 매달렸다. 매슈스 씨는 그를 달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마침내 그는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이 축제를 열기 하루 전, 즉 그가 앞서 말한 그 저녁 무렵의 일이었다. 피고인이 떠난 뒤였다. 해는 이미 기울어 황혼이 깔렸고,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피고인에게 발견될까 봐 당장 움직이는 것은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잠시 동안 담뭍 뒤에서 숨어 있었다. 연못을 바라보며 말이다.

그때 그는 연못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어두운 것이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언덕을 따라 올라왔다.

그것이 꼭대기에 다다라 하늘을 배경으로 또렷이 보일 때, 그것은 몸을 일으키고 팔을 위아래로 펼럭였다. 그리고는 피고인이 갔던 바로 그 방향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

그가 그 정체를 누구로 보았는지 엄격하게 추궁하자, 증인은 엄숙한 맹세로 이것이 앤 클라크 말고는 아무도 될 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 후 주인이 소환되어 증언했다. 그날 밤 소년이 매우 늦게 집에 돌아왔고, 그 일로 꾸짖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매우 놀란 기색이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전하, 저희는 국왕 측 증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때 주심 법관이 피고인에게 변론을 하라고 촉구했다. 피고인은 변론을 했지만, 길지 않았고 말도 어눌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믿어버리는 한 무리의 시골 사람들과 아이들의 증언만으로 배심원단이 제 목숨을 빼앗으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재판이 이미 편견에 물들었다고 항변했다.

주심 법관은 그 말을 끊으며 말했다. “당신은 엑서터가 아닌 런던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특전을 누렸습니다.”

피고인은 그 점을 인정했지만, 다시 말했다.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런던으로 끌려온 뒤로 제게 방해와 간섭이 없도록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심 법관은 즉시 마샬을 불러 피고인의 감금 상태를 물었다. 하지만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마샬은, 하급 간수가 자신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의 문 밖에서 누군가를 보았거나, 계단을 올라오는 형체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주심 법관은 더 자세히 물었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소?”

마샬은 소문으로만 들은 내용밖에는 말할 수 없었다. 소문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주심 법관은 피고인에게 물었다. “당신이 말한 것이 바로 그 소문인가?”

피고인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 것은 모릅니다. 다만, 제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도, 평온하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가혹합니다.”

하지만 그는 부인할 때 몹시 조급해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증인도 호출하지 않았다.

이에 총리검사가 배심원단에게 연설했다. [그의 연설 전체가 기록되어 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살해당한 자의 출현에 대해 그가 강조한 부분을 발췌하고 싶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죽은 자를 위한 돌봄에 관하여(De cura pro mortuis gerenda)』와 같은 고대의 권위를 인용했다. 이 책은 초자연적 현상을 다룬 옛 작가들이 즐겨 참고하던 책이다. 또한 글랜빌의 저서, 혹은 랭의 책에서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사례도 인용했다. 하지만 그는 인쇄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사례들에 대해 알려주지는 않는다.]

주심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증언 내용을 정리해 설명했다. 그의 연설은 내가 옮겨 적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 없었다. 다만 그는 이 사건의 증언이 지닌 특이한 성격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평생 재판관을 지내며 이런 증언은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상 이를 무효로 할 근거는 없었다. 배심원단은 이 증언들을 믿을지 말지 결정해야 했다.

배심원들은 아주 짧은 심의 끝에 피고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는 형량 선고 시 반박할 말이 있냐는 물음에, 고발장 자신의 이름 철자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항변했다. 마틴(Martin)의 ‘i’가 ‘y’여야 한

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검찰총장은 추가로, 피고인이 과거에 고발장에 기재된 대로 이름을 썼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더 이상 변론할 것이 없자,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죄를 저지른 현장 근처의 교수대에 묶여 처형될 예정이었다. 처형일은 다음 해 12월 28일, 곧 무고자의 날(Innocents' Day)로 정해졌다.

그 후, 죄수는 겉보기에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 그는 남은 짧은 생애 동안 자신의 친척들이 자신을 찾아오도록 허락해 줄 것을 대법판에게 간신히 요청했다.

“네, 물론이지. 다만 감시인이 있는 자리에서라면 말이다. 앤 클라크도 네 곁에 있어도 괜찮아. 내게는 상관없으니까.”

그때 죄인이 갑자기 폭발하듯 소리쳤다. “대감, 그런 말씀은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대감은 몹시 분노한 어조로 쏘아붙였다. “너 같은 비겁한 도살자, 살인자가 어찌 타인의 자애를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인가. 제 행위의 응보를 받아들일 배짱조차 없는 자가 말이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대감이 덧붙였다. “그녀가 네 곁을 낮과 밤으로 떠나지 않고, 내가 끝내 멸망당할 때까지 함께할 것이란 사실이다.”

그리하여 죄인은 끌려나갔다. 내가 본 바로는 그는 기절해 있는 듯했다. 그리고 법정은 해산되었다.

나는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고인의 태도가, 비록 사형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해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그는 관중석 사이를 날카롭게 살피며, 누군가 누군가 자신의 귓가에 다가온 듯한 태도로 자주 고개를 돌렸다.

또한 이 재판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관중들의 침묵이었다. 비록 당시의 계절적 특성일 수도 있겠으나, 법정 내부는 어둡고 흐릿했다. 오후 두 시가 조금 지나서야 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전체에는 안개가 끼지 않았다.

* * * * *

최근, 내가 이야기하는 마을에서 콘서트를 연 젊은이들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언급된 노래, 즉 ‘마담, 걸으시겠습니까?’가 극히 냉담한 반응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 노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한 혐오감을 주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노래가 노스 토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믿었지만, 이 마을에서는 불길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그런 견해가 형성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아무도 단서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험프리스 씨와 그 유산

약 십오 년 전, 팔월 말이나 구월 초의 어느 날, 기차가 동잉글랜드의 시골 역인 월스토르페에 도착했다. 다른 승객들과 함께 한 키가 크고 외모도 나쁘지 않은 젊은이가 내렸다. 손가방과 종이를 뭉쳐 끈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기다림을 받고 있었다.

역장은 두세 발짝 앞으로 나갔다가는, 문득 정신이 든 듯 돌아서서 짧은 둥근 수염을 가진 풍채 좋은 남자를 불렀다. 그 남자는 기차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쿠퍼 씨,” 역장이 외쳤다. “쿠퍼 씨, 아마 이분이 당신의 손님일 겁니다.”

그리고 내린 승객에게 말했다.

“험프리스 씨, 맞으십니까? 월스토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택에서 수하물을 싣고 온 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쿠퍼 씨입니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쿠퍼 씨가 재빨리 다가와 모자를 벗고 악수를 청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정말,” 그가 말했다. “팔머 씨의 친절한 말씀에 저 또한 함께하겠습니다. 만약 얼굴이 익숙하지 않았다면, 제가 먼저 그 뜻을 전했을 텐데, 험프리스 씨. 이곳에서의 거주가 붉은 글자로 새겨질 만큼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쿠퍼 씨,” 험프리스가 답했다. “당신의 축복과 팔머 씨의 인사 모두 고맙습니다. 저는 이 변화, 즉—음—임대권 변경이—모두가 아쉽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만—저와 접촉하게 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말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쿠퍼 씨가 말을 끊었다.

“아, 그건 안심하셔도 됩니다, 험프리스 씨. 제가 직접 보장하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뜨거운 환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습의 변화가 이웃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신다면, 당신의 돌아가신 삼촌—”

쿠퍼 씨도 여기서 말을 멈췄다. 아마도 내면의 경고음 때문이었을 테고, 아니면 팔머 씨가 목을 크게 가다듬으며 험프리스에게 티켓을 요구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두 사람은 작은 역을 떠났다. 험프리스의 제안에 따라 쿠퍼 씨의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점심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짧은 설명으로 충분하다. 험프리스는 고모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 유산도, 고모부도 그는 직접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세상에 혼자였다. 능력도 좋고 성품도 온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근 4~5년 동안 정부 관공서에서 일한 경험은 그가 농촌 지주로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

다. 그는 학구적이며 다소 소극적이었다. 야외 활동이라곤 골프와 정원 가꾸기 정도만 즐겼다.

그는 오늘 처음 월스트로페에 내려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토지 관리인인 쿠퍼 씨를 만나기로 했다. 왜 이것이 그의 첫 방문이었는지 궁금할 수 있다. 예의상 고모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답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는 고모부가 사망했을 때 해외에 있었다. 그 당시 그의 주소는 즉시 찾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월스트로페로 내려오기로 미뤘다.

이제 우리는 그가 쿠퍼 씨의 안락한 집에 도착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집은 교구 목사의 집과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짓는 쿠퍼 부인과 쿠퍼 양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알리기 전 몇 분간, 일행은 거실의 정교하게 장식된 의자에 앉아 자리를 잡았다. 험프리스 역시 그중 하나에 앉았지만, 그는 조용히 땀을 흘리며 자신을 살펴보는 시선들을 의식하고 있었다.

“험프리스 씨와 방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내 사랑.” 쿠퍼 씨가 말했다. “월스트로페에 머무시는 그날이 정말로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 되길 바라고 있소.”

“네, 맞아요. 정말 확신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요.” 쿠퍼 부인이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쿠퍼 양은 비슷한 취지의 말을 중얼거렸다. 험프리스는 달력 전체를 빨갇게 칠해버리자는 농담을 던졌는데,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 뜻이 완전히 통하지는 않은 듯했다. 이쯤 되자 그들은 점심 식사로 자리를 옮겼다.

“험프리스 씨, 이 근처 땅을 아시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쿠퍼 부인이 물었다. 이는 제법 괜찮은 화두였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험프리스가 말했다. “기차에서 내려다본 그 풍경은 꽤 멋져 보였거든요.”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요. 진정으로, 저는 때때로 시골 풍경을 더 아름답게 담은 지역은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요. 늘 뭔가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험프리스 씨, 저는 아마도 몇몇 훌륭한 정원에서 열리는 파티에는 조금 늦게 오신 것 같군요.”

“그렇군요. 아, 정말 아쉽네요!” 험프리스는 안도하는 빛을 띠며 말했다. 그러고는 이 화제를 더 파고들면 뭔가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덧붙였다.

“하지만 어쨌든, 쿠퍼 부인, 비록 제가 더 일찍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들과 단절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시다시피, 제 가없는 삼촌이 최근 작고하셨으니까요.”

“오, 험프리스 씨, 정말요. 제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끔찍한 실수였어요!” 쿠퍼 부부와 쿠퍼 양도 말없이 그 말에 동조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쿠퍼 부인. 제가 확신합니다. 삼촌의 죽음이 저에게 큰 슬픔이 되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잠시 동안은 그런 종류의 축제에 참여하길 기대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험프리스 씨. 그렇게 이해해 주시다니요, 조지 씨. 그리고 제게 용서해 주시겠조? 그런데 정말 놀랍네요. 당신은 가엾은 윌슨 씨를 만나보지 못하셨으니까요!”

평생 본 적이 없지요. 그에게서 편지 한 통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히려 당신께 사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홀에서 저를 돌봐줄 사람들을 찾아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정중하게 감사 인사만 편지로 했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아, 험프리스 씨,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집사와 가정부로 모신 부부는 수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예요. 정말 정중하고 신망이 두터운 부부죠. 그리고 쿠퍼 씨, 마구간과 정원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분도 확실히 보증하실 수 있어요.”

“네, 험프리스 씨,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윌슨 씨 시절부터 남아 있는 사람은 수석 정원사 한 명뿐이에요. 유언장을 보셨겠지만, 직원 대다수는 노신사의 유산을 받고 은퇴했어요. 부인이 말씀하신 대

로, 당신의 가정부와 집사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입니다.”

“험프리스 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오늘 바로 입주하시길 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Cooper 부인이 말했다. “다만 손님에 대한 준비는 제외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아마도 혼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당신이 즉시 이사 오실 의도라고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여기서 더 머물기를 원했을 테니 저희도 기꺼이 환영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쿠퍼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지금 바로 결단하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저는 혼자 사는 데 익숙해져 있고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저녁마다 서류와 책들을 정리하는 일 등으로 바쁠 테니까요. 만약 쿠퍼 씨가 이 오후에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집과 정원을 둘러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연합니다, 험프리스 씨. 원하시는 시간이라면 언제든 제가 시간 맞춰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때까지요, 아버지. 브래스넷 집으로 갈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미스 쿠퍼가 말했다. “정원 열쇠는 모두 챙기셨나요?”

“미스 쿠퍼, 당신은 훌륭한 정원사요?” Humphreys 씨가 물었다. “저는 흙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싶소.”

“아, Humphreys 씨, 제가 보기엔 그다지 ‘위대한’ 정원사는 아니에요. 저는 꽃을 정말 좋아하지만, 흙의 정원은 충분히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고 늘 말하곤 합니다. 지금도 아주 고풍스러운 멋이 있고, 관목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죠. 게다가 오래된 신전과 미로도 있습니다.”

“정말? 그걸 한번이라도 탐험해 본 적이 있나?”

“아니요.” 미스 쿠퍼가 입술을 오므리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해봤어요. 하지만 윌슨 할아버지는 그 자물쇠를 항상 단단히 걸어두셨죠. 워드롭 부인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부인은 근처 Bentley에 사세요. 잘 아시죠? 그리고 그녀가 정말 훌륭한 정원사라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열쇠가 모두 있는지 여쭙본 거예요.”

“알겠군. 음, 내가 그걸 살펴봐야겠어. 어떻게 가는 길도 익힌 뒤에 네게 보여줄게.”

“아, Humphreys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Miss Foster를 이기게 되겠네요. 그분은 우리 교구 목사의 딸이에요. 지금은 휴가를 가셨죠.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미로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 늘 농담을 주고받았거든요.”

“정원 열쇠는 아마 집 안에 있을 거예요.” 쿠퍼 씨가 큰 열쇠 문치를 살펴보며 말했다. “도서관에 열쇠가 몇 개 있거든요. Humphreys 씨, 준비되셨다면 이제 이 ladies와 작별하고 작은 탐험 여행을 떠나시죠.”

* * * * *

쿠퍼 씨의 정문을 나서던 해프리스는 행인들 사이를 지나야 했다. 조직적인 시위대가 아니라도, 마을 거리에는 평소보다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남자들은 모자를 가볍게 들었고, 여자들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공원 정문을 지나며 파수꾼의 아내와 몇 마디 나누었고, 공원 도로를 돌보고 있던 파수꾼 자신과도 인사를 교환했다. 하지만 그 모든 대화를 하나하나 기록할 시간은 없다.

파수꾼 숙소와 집 사이, 반 마일 남짓한 거리를 걷는 동안 해프리스는 동행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은 곧 그의 고(故) 삼촌 이야기를 끌어냈다. 쿠퍼 씨는 이내 장황한 설명에 빠져들었다.

“방금 제 아내가 말했듯이, 그 노인을 직접 뵈는 적이 없다는 게 참 신기하군요. 하지만 Humphreys 씨,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제 생각엔 Humphreys 씨와 그 노인은 성격이 전혀 맞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 노인을 비방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단 한 마디도요. 그가 어떤 분이었는지, Humphreys 씨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ooper 씨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Humphreys 씨를 똑바로 응시했다.

“일상 속 표현처럼 말하자면, 그의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온전히, 철저한 ‘병약한 체질’이었습니다. 그 말로 그의 전모가 다 드러납니다. 바로 그런 분이었죠, Humphreys 씨.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관심도, 참여도 없으셨어요.

제가 그의 별세 당시 지역 신문에 기고했던 기사 발췌문을 Humphreys 씨께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맞다면, 그 기사가 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Humphreys 씨,”

Cooper 씨가 Humphreys 씨의 가슴을 장중하게 툅 치며 말했다.

“제가 Humphreys 씨의 존경받는 삼촌이시며, 제 전직 고용주이신 그분에 대해 나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_가장_ 칭찬할 만한 일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는 정직하셨고, 낮처럼 맑았습니다. 거래나 대인관계에서도 관대하셨죠. 남을 위해 느낄 줄 아는 마음과, 실제로 도와줄 줄 아는 손길을 지니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stumbling-block, 즉 불운한 건강 문제였습니다.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해, 건강의 _부족_이었죠.”

“네, 불쌍한 사람. 마지막 병에 앞서 특별한 질환이 있었나요? 그 병은 단순히 노환이었겠지요.”

“그게 다입니다, 험프리스 씨. 그저 그거요. 접시 속에서 천천히 꺼져가는 번쩍임, 그리고 금잔이 점점 진동을 멈추는 것.” 쿠퍼가 자신은 적절하다고 생각한 제스처를 곁들여 말했다. “하지만 다른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을 드려야겠군요. 전반적인 활력 부재? 그렇습니다. 특별한 질환? 아니요. 다만 그가 앓고 있던 심한 기침 정도는 예외로 치더라도 말입니다.”

“아, 이제 거의 저택에 다다랐습니다. 험프리스 씨, 이 건물을 보십시오. 결코 손색없는 아름다운 저택이 아닙니까?”

그 집은 그 별칭에 걸맞았다. 하지만 묘하게 비례가 어긋났다. 매우 높은 적벽돌 주택이었다. 평범한 난간이 지붕을 거의 가려버린 탓에, 집은 시골에 떨어진 도시의 저택처럼 보였다. 지하층이 있었고, 정문으로 이어지는 꽤 장엄한 계단도 있었다. 키가 너무 커서 옆날개 건물이 있어야 할 것 같았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마구간과 다른 부속 건물들은 나무 뒤에 숨겨져 있었다. 험프리스는 이 집이 대략 1770년경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앞문 안쪽에서는 집사와 요리사 겸 가정부 역할을 맡기로 한 중년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주인이 다가오자 그들은 문을 열어주었다. Humphreys는 이미 그들의 성이 Calton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짧은 대화 속에서 그들의 외모와 태도는 Humphreys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내일은 Mr. Calton과 함께 식기류와 지하 저장고를 점검하기로 했다. Mrs. Calton은 이불과 침구류 등 필요한 물품의 현황과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Humphreys와 상담할 예정이었다. 그렇게 Calton 부부를 잠시 물러나게 한 후, Humphreys와 Cooper는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 집의 지형적 특징은 이 이야기와 큰 상관이 없으니 생략한다. 1층의 넓은 방들은 모두 만족스러웠다. 특히 식당과 맞먹을 정도로 큰 서재는 세 개의 높은 동향 창문을 갖추고 있어 더욱 좋았다.

Humphreys를 위한 침실은 바로 그 서재 위에 위치해 있었다.

집 안에는 아름답고 흥미로운 오래된 그림들이 많았다. 가구는 새것이 하나도 없었고, 책들도 1870년대 이후의 것은 거의 없었다. 삼촌이 집 안에 가한 소소한 변화들을 듣고, 거실에 걸린 삼촌의 윤기 나는 초상화를 바라보며 Humphreys는 Cooper와 의견이 일치했다. 아마도 Humphreys는 전 주인에게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전 주인이 떠난 것에 대해 슬퍼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 씁쓸했다. *„dolebat se dolere non posse“*(슬퍼할 수 없음을 슬퍼하노라). 알 수 없는 조카에게 자선심을 가졌든 그렇지 않았든, Humphreys의 현재 안녕에 크게 기여했던 그 남자를 잃게 된 것을 그는 애도할 수 없었다. Wilsthorpe는 Humphreys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서재에서라면 더욱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이제 정원을 둘러볼 차례였다. 빈 마구간과 빨래방은 잠시 미루기로 했다. 그들은 정원으로 향했고, 곧 미스 쿠퍼의 예상이 적중했음이 드러났다. 이곳에는 가능성이 충분했다. 또한 쿠퍼 씨가 정원사를 계속 고용한 결정이 옳았음도 분명했다.

고인 윌슨 씨는 최신의 원예 관념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식견 있는 사람의 눈앞에서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장비와 식재 상태도 훌륭했다.

쿠퍼 씨는 험프리스 씨가 보이는 즐거움과 그가 툼툼이 던지는 조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보니까, 험프리스 씨, 당신은 이곳에서 진정한 ‘식물 애호가’를 찾았군요. 몇 해가 지나기 전에 이 곳을 멋진 온실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쿠퍼 씨가 말했다.

“클러터햄이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은 수석 정원사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이 열병으로 앓아누워서 현재는 부재중입니다. 불쌍한 아이 말이죠. 그분이 어떻게 이 곳을 평가하는지 꼭 들어보고 싶네요.”

“네, 오늘 그가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기다리면 충분할 거예요. 잔디 길 끝 언덕 위에 있는 그 하얀 건물은 무엇인가요? 미스 쿠퍼가 언급한 신전인가요?”

“맞습니다, 험프리스 씨. 그곳은 ‘우정의 신전’입니다. 당신의 고(故) 삼촌의 할아버지가 이 신전을 짓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대리석을 직접 가져와 세운 곳이지요. 한 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그곳에서는 공원의 풍경을 아주 아름답게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신전의 전체적인 형상은 티볼리에 있는 시빌의 신전을 본떴다. 다만
돔이 하나 더해졌을 뿐이고, 크기는 훨씬 작았다. 벽에는 고대의 묘비
양식의 부조들이 박혀 있었고, 주변 전체에 그랑투어(유럽 대여행) 특
유의 정취가 감돌았다. 쿠퍼가 열쇠를 꺼내어 약간 애를 먹은 끝에 무
거운 문을 열었다. 안쪽에는 아름다운 천장이 있었으나, 가구는 거의
없었다. 바닥의 대부분은 두꺼운 원형 석재 덩어리들이 쌓여 차지하고
있었다. 각 석재의 약간 볼록한 윗면에는 한 글자가 깊이 파여 있었다.

“이것들이 무슨 뜻이죠?” 험프리스가 물었다.

“의미라니요? 글썄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말도 있죠,
Humphreys 씨. 이 돌덩이들 역시 다른 어떤 목적과 함께 그들만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무엇이
었는지…….”

Cooper는 이때부터 교훈적인 태도를 취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걸 당신에게 설명해 드릴 자신이 없
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단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이
돌덩이들이 당신의 고(故) 삼촌에 의해 미로에서 옮겨졌다는 사실뿐이
죠. 그 시기는 제가 이 일에 관여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Humphreys
씨, 이것이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오, 미궁이군!” Humphreys가 외쳤다. “나는 그걸 잊고 있었네.
꼭 한번 구경해 봐야겠어. 어디에 있지?”

쿠퍼는 그를 사원의 문까지 데려가 지팡이로 가리켰다. “눈을 그곳으로 돌려보시오.” 그가 말했다. 헨델의 <수산나>에 나오는 제2 장로처럼 다소 그런 어조로.

시선을 서쪽 끝까지 뚫어지게 고정하라. 하늘 높이 우뚝 솟은 그 커 큰 상수리나무를 따라.

“여기 내 지팡이를 보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과 정확히 마주 보는 방향의 선을 따라가 보시오. 그럼 Humphreys 씨, 입구 위의 아치형 구조물이 보일 거예요. 바로 이 건물로 이어지는 길 끝부분에 그 아치가 보일 테니까요. 바로 그곳으로 가보실 생각이세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집으로 가서 열쇠를 준비해 와야겠네요. 먼저 그곳으로 가시면, 몇 분 후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험프리즈는 사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내려가, 집 앞의 정원 쪽을 지나, 쿠퍼가 일러준 아치형 입구로 이어지는 풀밭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런데 그가 놀란 것은 이 미로 같은 정원이 높은 담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치 입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철문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쿠퍼의 삼촌이 이 정원 구역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미스 쿠퍼의 말을 기억해냈다. 그는 철문 앞에 섰지만, 쿠퍼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잠시 동안 그는 입구 위에 새겨진 문구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Secretum meum mihi et filiis domus meae

그는 이 문구의 출처를 떠올려 보려 애썼다. 그러자 답답해져서 답을 낼 수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가치가 없는 시도였다. 만약 그가 좀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주 오래된 자물쇠를 부술 수 있을까? 아니, 분명히 불가능해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으로 철문에 짜증 섞인 발차기를 가했다. 그러자 무언가가 헐거워지더니, 자물쇠가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는 여러 엉덩퀴를 피해 철문을 밀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섰다.

그것은 원형의 주목나무 미로였다. 울타리는 오랫동안 손질되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넓고 높게 자라났다. 길도 거의 통행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Humphreys는 가시덤불에 긁히고, 켄치풀에 쏘이고, 젖은 흙투성이 되면서도 겨우 그 길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상태라면 다시 나올 때 길을 찾는 것이 쉬울 것이다. 그가 남긴 자국이 매우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가 기억하기로 그는 전에 미로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고, 지금도 자신이 큰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았다. 습하고 어두운 공기와, 짓눌린 갈퀴덩굴과 켄치풀 냄새는 결코 기분을 좋게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 미로는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미로의 중심부에 거의 다다랐다. (그런데 Cooper는 도착했나? 아니다!) 그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다. 드디어 중심부에 도달했다.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상을 받았다.

처음에는 중앙 장식이 해시계인 줄 알았지만, 그 위에 덮인 가시덤불과 덩굴식물을 치우자 덜 평범한 장식임을 알 수 있었다. 약 4피트 높이의 석주 위에 금속 구체가 있었다. 녹색 녹청을 보면 구리였을 것이다. 구체에는 윤곽선으로 그린 형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Humphreys가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잠시 그 도형을 살펴본 그는 이것이 천구(celestial globe)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천구는 하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로 안은 너무 어두워 이 호기심을 자세히 조사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Cooper의 목소리와 정글의 코끼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Humphreys는 그가 남긴 자국을 따라오라고 부르고, 곧 Cooper가 숨을 헐떡이며 중앙 원형 공간으로 나타났다. Cooper는 자신의 지체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열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세요, 당신은 혼자서 신비의 중심부에 도달하셨군요! 인간의 발길이 이곳을 밟은 지 30~40년은 지났을 겁니다. 저는 전에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도 발 들이기를 두려워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말이 맞았습니다."

Humphreys는 Cooper의 말에 악의가 없음을 알았고, 당연한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늦은 차를 마시고 Cooper의 저녁 약속을 위해 해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미로를 떠나며 들어올 때와 거의 같은 편안함으로 길을 되돌아갔다.

"삼촌이 그 문을 그렇게 철저히 잠가 두셨던 이유를 아시나요?" Humphreys가 집으로 향하며 물었다.

쿠퍼가 걸음을 멈췄다. Humphreys는 그가 곧 중요한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에 와닿았음을 느꼈다.

“저는 Humphreys 씨, 그 주제에 대해 제가 어떤 정보라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속이는 것이 될 뿐이며, 그다지 좋은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서 직무를 시작한 지 18년 쯤 되었을 때, 그 미로는 지금 보시는 그대로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문제가 제기된 유일한 경우는 방금 제 딸이 말씀드린 사건뿐이었습니다. Wardrop 부인이 미로 입장을 신청하는 서한을 보내왔죠. 저는 그녀를 험담할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Wilson 씨가 그 편지를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매우 정중한 글이었습니다. 그런 분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갖췄죠. ‘Cooper,’ 그가 말했어요. ‘이 편지에 내 이름으로 답장을 써주게.’ ‘물론입니다, Wilson 씨,’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비서 역할을 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어떤 답장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음,’ 그가 말했어요. ‘Wardrop 부인에게 내 인사를 전하고, 만약 그 부지의 일부라도 손볼 일이 생긴다면 그녀에게 가장 먼저 관람할 기회를 주게 되겠지만, 현재 몇 년째 폐쇄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해주게.’”

이것이 Humphreys 씨, 당신의 훌륭한 삼촌이 이 주제에 대해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Cooper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다. “다만, 제가 판단할 때 그가 조상, 즉 그 미로를 설계한 할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다는 점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람들은 종종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감정을 품곤 합니다. Humphreys 씨, 그 분은 특이한 신념을 가진 분이었으며, 여행가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우리 작은 교회의 그를 기리는 비석을 보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비석은 그가 죽은 지 꽤 오랜 후에 세워졌습니다.”

“오, 건축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면 자기 무덤까지 직접 설계했을 거라 생각했어.”

“음, 내가 말씀하신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니, 그가 묻힌 곳이 우리 경계 안에 있는지도차 확신할 수 없군요. 그가 지하실에 안장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제가 답해 드리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Humphreys 씨, 한 평범한 인간의 마지막 안식처가 정확히 어디인지가 그리 중요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때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쿠퍼의 추측은 그 순간 끊겼다.

다과가 서재에 차려졌다. 쿠퍼 씨는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꺼냈다.

“책들이 정말 멋진 컬렉션이군요. 이 지방에서 손꼽히는 최고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더군요. 이 책들 중에는 멋진 판화도 많이 들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삼촌이 외국 마을 풍경을 그린 한 권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정말 흥미진진했죠. 완성도도 일품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권은 모두 수작업으로 그려진 것이었는데, 잉크가 어제 먹인 것처럼 선명

하더군요. 그런데 삼촌이 말하길, 그것은 수백 년 전 어느 늙은 수도사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뒤, 한 시간 정도 독서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밤을 새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온 김에… 집에 빨리 돌아가야겠군요. 아내가 야단칠까 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밤을 새우지 않으려면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Humphreys 씨.”

“그 말이라니,” 험프리스가 말했다. “내일 쿠퍼 양에게 미로를 보여줘야 하는데, 좀 치워야겠소. 관련자에게 말 좀 해줄 수 있겠소?”

“아, 그렇군요. 톱날 낫을 든 사내 두 명이면 내일 아침에 길을 낼 수 있겠네요. 제가 관리인 오두막을 지날 때 지시를 남기겠습니다. 혹시 Humphreys 씨, 직접 올라가서 그들을 데려오시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길을 표시할 막대나 줄자를 준비해 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죠. 오후에는 쿠퍼 부인과 미스 쿠퍼를, 아침 열 시 반쯤에는 당신을 뵙겠습니다.”

“확실히 기쁩니다, Humphreys 씨. 그분들에게나 저에게나. 안녕히 주무세요!”

* * * * *

험프리스는 여덟 시에 저녁 식사를 했다. 그것이 그의 첫날 밤이고 칼튼이 가끔 대화를 나누려는 기색을 보이지만 앉았더라면, 그는 여행 중에 산 소설을 끝까지 읽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칼튼의 지역과 계절에 대한 인상들을 듣고 답해야 했다. 후자는 계절에 알맞았고, 전자는 칼튼의 소년 시절(그곳에서 보냈던) 이후로 상당히 변했다. 특히 마을 가게는 1870년 이후로 크게 발전했다.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편리한 일이었다. 만약 갑자기 어떤 것이 필요하면(그는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다), 칼튼은 가게가 아직 열려 있다면 사제관에서 빌리지 않고도 그곳에 가서 주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전에 이런 일을 시도하는 것은 양초, 비누, 당밀, 혹은 작은 아이용 그림책 정도에서만 유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개는 위스키 한 병이 필요했을 것이다. 결국 험프리스는 앞으로 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저녁 식사 후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서재에서 보내졌다. 그는 손에 촛불을 들고 입에는 파이프를 물고 방 안을 거닐며 책들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는 오래된 서재에 대한 흥미를 지니고 있었고, 여기서 체계적으로 서적을 알아갈 충분한 기회를 얻었다. 쿠퍼로부터 상속 증명을 위한 목적의 매우 피상적인 목록 외에는 다른 카탈로그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교한 서지 목록(Catalogue raisonné)을 작성하는 일은 겨울철에 딱 맞는 즐거운 낙이 될 터였다. 쿠퍼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아마도 손꼽힐 만한 보물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심지어 필사본들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서고를 한 바퀴 돌며 돌아다닐 때,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방의 책들 중 대다수는 도무지 읽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비슷한 장소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느끼는 그 느낌이었다.

‘고전과 교부들의 판본, 피카르의 <종교 의식>, 하를레안 미셀러니 같은 건 다 괜찮지. 하지만 토스타투스 아불렌시스나, 욕에 대한 피네다의 주석, 혹은 이런 책 같은 건 누가 읽겠어?’

그는 제본이 헐거워진 작은 사판본 한 권을 꺼냈다. 표지의 제목 라벨은 이미 떨어졌다. 커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의자 쪽으로 물러났다. 결국 그는 그 책을 열었다.

그가 그 책을 판단한 근거는 전적으로 외형에 있었다. 그는 그것이 독특한 희곡들의 모음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겉모습은 텅 비어 있고 위압적이었다. 실제로 그 책은 설교나 묵상의 모음집이었으며, 더구나 훼손된 상태였다. 첫 장이 빠져나간 뒤였기 때문이다. 그 책은 17세기 말쯤의 작품으로 보였다.

그가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여백에 적힌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이 불행한 상태에 대한 한 비유’

그는 저자가 상상력 있는 작문에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궁금해졌다. 그 구절은 이렇게 이어졌다.

“나는 들었거나 읽었다. 그것이 _비유_인지 _진실한 관계_인지, 나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_아테네의 전설_에서 _테세우스_가 _미로_

나 _미궁_에 자신을 내던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_조경_ 예술가들이 설계하는 형식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광활한 범위를 가진 미로였으며, 거기에는 알 수 없는 _함정_과 _덫_, 심지어는 _불길한 거주자들_이 숨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야 마주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이런 경우, 친구들의 만류가 없었을 리 없다. 한 형제가 말한다. ‘너가 아는 그 길로 간 저 사람을 생각해 보라. 그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말한다. ‘저 사람은 조금만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날 이후로 정신이 이상해져서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알지 못한다. 단 한 번도 좋은 밤을 보내지 못했다.’ 이웃이 외친다. ‘너는 _성벽_ 너머와 _대문의 철창_ 사이로 얼굴을 내미는 것들을 본 적이 없느냐?’”

그러나 모든 만류는 통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나라의 화롯가 이야기에서는, 이 _미로_의 심장부와 중심부에 그토록 값지고 희귀한 보석이 있어, 그것을 찾은 자를 평생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자는 그 보석을 정당한 권리로 가져야 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는가? _Quid multa?_(무슨 말이 필요하랴?) 모험가는 성문을 통과했다. 그리고 온종일 동안, 밖의 친구들은 그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밤중에 멀리서 들린 희미한 비명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비명은 친구들을 불안한 침대에서 떨게 하고, 두려움에 땀을 흘리게 했다. 그들의 아들과 형제가 그 항해에서 난파한 불운한

자들의 _목록_에 한 명을 더 추가한 것이 틀림없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교구의 서기에게 가서 종을 치라고 명했다. 그들의 길은 _미로_의 문 바로 옆을 지나갔다. 그들은 그 장소의 공포 때문에 서둘러 지나가고자 했으나, 갑자기 길바닥에 사람의 시체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다가갔고(그들이 어떤 예상을 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그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죽지는 않았으나, 죽음과도 같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슬픔에 잠겨 나섰던 그들은 기쁨에 차서 돌아왔고, 방황하던 그 아들을 일으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의식을 되찾고, 그 아침 그들이 겪었던 불안과 그들의 임무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말했다.

“그래, 너희는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해도 좋아. 내가 보석을 가져왔거든.” 그는 그들을 보여 주었다. 실제로 그것은 놀라운 보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과 함께, 나에게 밤에는 쉴 새도, 낮에는 즐거움도 주지 않을 것을 함께 가져왔어.”

그들은 그의 의미를 알고자 재촉했다. 그리고 그의 속을 상하게 한 그 동료들은 누구였는지 물었다.

“오,” 그가 말했다. “그건 내 가슴 속에 있어. 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그것에서 도망칠 수 없어.”

마법사가 없어도 그들은 그것이 그에게 놀라울 정도로 고통을 안겨 준 그의 목격 기억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는 단편적인 말들만 늘어놓았다. 결국, 그들은 이런 내용을 모아낼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해가 밝은 동안, 그는 신나게 걸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_미로_의 중심부에 도달해 보석을 얻었다. 그리고 기쁨에 차서 돌아오는 길을 나섰다. 하지만 밤이 내리자, _숲의 모든 짐승들이 움직이는 시간_에, 그는 자신과 같은 속도로 걷는 어떤 생물이 있음을,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바대로 _그가 있는 골목 옆 골목에서 그를 엿보고 바라보고 있는_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멈추면 그 동행자도 멈췄다. 이는 그의 정신에 일종의 동요를 일으켰다.

실제로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에게는 한 명보다 더 많은, 어쩌면 그러한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있는 것 같았다. 적어도 그는 덤불 사이에서 그들이 일으키는 소리와 부러지는 소리들로 그렇게 판단했다. 게다가 어떤 때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그들 사이의 회의를 암시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묻자,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를 거부했다.

청중들이 밤중에 들렸던 비명들이 무엇이었는지 물었을 때(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는 이렇게 답했다.

“자정쯤 되었을 때(내가 판단하기로는), 나는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내 형제라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멈춰 서서, 내 최대의 성량으로 외쳤다. 나는 _메아리_나 내 비명의 소리가 잠시 동안 더 작은 소리를 가렸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나는 내 바로 뒤에서 매우 가까이 다가오는 발걸음의 구르는 소리(크지는 않았지만)를 구분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리에 그는 크게 위축되었고, 결국 자신도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했다.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힐 때,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추격자들이 어둠 속에서 그를 지나쳐 버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그들은 규칙적으로 멈추곤 했다. 그는 그들이 마치 길을 잃은 사냥개처럼 헐떡이고 코를 킁킁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극단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들을 따르는 냄새를 끊어내기 위해 다시 달리고 방향을 바꾸는 행위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이 노력 자체가 이미 충분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면, 그는 앞서 들었고,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본 적이 있는 _구덩이_나 _덧_에 빠질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도 안고 있었다. 몇몇은 골목 옆쪽에, 또 다른 몇몇은 한가운데에 있었다.

“결국,” 그가 말했다. “인간이 _미로_에서 겪었던 그 밤보다 더 끔찍한 밤은 없었다. 내 주머니에 있던 그 보석이나, _인도_에서 가져온 그 어떤 가장 풍부한 보물도, 내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었다.”

이 남자의 더 깊은 비극은 기록하지 않겠다. 독자의 총명함이라면 내가 그리는 _평행_을 저절로 읽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석이 세상의 쾌락에 빠진 자가 되찾아 올 만족의 정확한 상징이 아니던가? 그리고 이 _미로_는 바로 그 보석(설에 따르면 세상에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이 숨겨진 세계 자체의 이미지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때쯤 Humphreys는 카드놀이(페이션스)나 한 판 하는 게 기분 전환에 좋겠다 싶었다. 작가의 '개선'된 비유는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책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궁금해졌다. 그의 삼촌이 그 구절을 우연히 발견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그 구절이 삼촌의 상상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삼촌이 미로라는 개념을 싫어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정원에 있는 미로를 봉쇄하기로 결정하게 만들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침대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쿠퍼 씨와 함께 부지 관리를 위해 한바탕 고된 일을 치렀다. 쿠퍼 씨는 말솜씨가 과장되기도 했지만, 부지 일은 손끝에서 흐르듯 능숙하게 처리했다. 그날 아침 쿠퍼 씨는 유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로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잊지 않았고, 작업은 바로 그 순간에도 진행 중이었다. 그의 딸도 그 일에 대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쿠퍼 씨는 Humphreys(험프리스)가 밤새 평온하게 잤기를 바랐고, 우리도 이렇게 상쾌한 날씨가 계속되기를 희망했다. 점심 식사 시간, 그는 식당에 걸린 그림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신전과 미로를 설계한 사

람의 초상화를 가리켰다. 험프리스는 이 그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의 작품으로, 윌슨 씨가 젊은 시절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려진 것이었다. 배경에는 콜로세움이 그려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마른 편이었으며, 눈이 유난히 컸다. 손에는 반쯤 펼쳐진 종이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는데, 위에는 원형 건물의 평면도가 그려져 있었다. 신전의 설계도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미로의 일부도 함께 그려져 있었다.

험프리스는 의자에 올라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림이 충분히 선명하지 않아 복사할 가치는 없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미로에도 평면도를 그려 현관에 걸어두면 방문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쿠퍼 부인과 미스 쿠퍼가 도착해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바랄 때, 그는 그들을 중심으로 전혀 안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원사들은 그들이 사용해 왔던 길표시를 모두 치워 버린 뒤였다. 클러터햄까지 불러들여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남들만큼이나 할 일을 모르고 있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윌슨 씨—아니, 엄프리즈 씨가 맞겠군요—이 미궁들은 오해의 소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아주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를 따라주신다면, 제가 올바른 길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모자를 시작점으로 두고 가겠습니다.”

그는 툭툭 거리는 걸음으로 앞서 나갔다. 5분이 지나자 그는 무사히 모자 자리에 돌아왔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그는 당황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분명히 그 모자를 가시덤불 바로 앞에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길에는 가시덤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험프리스 씨—이름이 맞죠, 맞죠?—저는 이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 한 명을 부르겠습니다.”

윌리엄 크랙이 여러 번의 외침에 답하듯 도착했다. 그는 무리 쪽으로 다가가는 데 다소 애를 먹었다. 그는 먼저 안쪽 골목에서 모습을 드러내거나 목소리가 들렸고, 거의 동시에 바깥쪽 골목에서도 확인되었다. 결국 그는 그들에게 합류했고, 먼저 의견을 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런 다음 그를 모자 옆에 세워 두었다. 클러터햄은 그 모자를 여전히 땅에 둔 채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작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45분 동안이나 헛된 방황을 거듭했다. 험프리스는 쿠퍼 부인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는, 쿠퍼 양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차를 마시러 물러나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당신은 포스터 양과의 내기에서 이겼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미로 안을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먼저 할 일은 미로의 정확한 평면을 그리며,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필요한 일입니다, 선생님,” 클러터햄이 말했다. “누군가 평면을 그려서 옆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누군가 그곳에 들어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출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중간으로 지름길을 낸다면 사정이 달라지겠지요. 저는 각 생울타리에서 직선으로 나무 두 그루씩 베어내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흰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미로의 매력이 사라지겠지만, 제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직 그건 하지 않겠소. 먼저 계획을 세우고, 사본을 드리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당신의 말씀도 다시 생각해 보겠소.”

Humphreys는 오후의 실패에 대해 분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미로의 중심에 도달하기 위해 그날 저녁 다시 한 번 시도하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미로의 중심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더 짜증이 났다. 그는 즉시 계획을 시작하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빛이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작업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험프리스는 그림판과 연필, 컴퍼스, 도화지 등을 챙겨 미지의 미궁 한가운데로 향했다. 이 도구들은 쿠퍼 가에서 빌린 것도 있었고, 도서관 찬장에서 찾아낸 것도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미궁의 중심부로 들어섰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잠시 발이 묶였다.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기둥과 구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들이 모두 치워졌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물체들의 정체를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기둥은 특징이 없었다. 해시계가 올려지는 기둥과 비슷했다. 하지만 구는 달랐다. 험프리스는 이전에 이 구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숫자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처음에는 천구(celestial globe)로 보였지만, 곧 자신이 기억하던 천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특징은 낮익게 느껴졌다. 날개 달린 뱀, 즉 ‘드라코(Draco)’가 지구본에서 적도선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을 감싸고 있었다. 반면, 구의 상반구 상당 부분은 큰 형상의 펼쳐진 날개로 덮여 있었다. 이 형상의 머리는 구의 정점, 즉 북극점에 있는 고리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그 머리 주변에는 ‘princeps tenebrarum(어둠의 군주)’이라는 글자가 판독되었다.

하반구에는 십자선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은 ‘umbra mortis(죽음의 그림자)’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근처에는 산맥이 이어져 있었고, 그 중 불꽃이 치솟는 계곡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vallis filiorum Hinnom(힌놈의 아들들의 계곡)’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드라코 위아래에는 일반적인 별자리 그림과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여러 형상이 윤곽으로 그려져 있었다. 예를 들어, 방망이를 든 벌거숭이 남자는 ‘헤라클레스’가 아니라 ‘카인’으로 묘사되었다. 땅속에 허리

까지 파묻혀 절망적으로 팔을 뻗은 형상은 ‘오피후쿠스’가 아니라 ‘코레’였다. 또 다른 하나는 뱀나무에 머리카락으로 매달린 ‘압살롬’이었다.

마지막 형상 근처에는 긴 로브와 높은 모자를 쓴 남자가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그는 두 마리의 거친 털을 가진 악마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는데, 이 악마들은 그 바깥을 맴돌고 있었다. 이 남자는 ‘Hostanes magus(마법사 호스테스)’로 표기되었다. 호스테스는 험프리스에게 낯선 인물이었다.

전체적인 구도는 악의 조상들을 집합한 것처럼 보였다. 단테의 작품을 연구한 영향이 없지 않아 보였다. 험프리스는 이 작품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의 독특한 취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이 작품을 이탈리아에서 구매했고, 자세히 살펴볼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만약 그가 이 작품을 소중히 여겼다면, 바람과 비에 노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구를 두드려 보았다. 속이 비어 있고 두께가 그리 두껍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구에서 시선을 돌려 자신의 계획에 착수했다. 반 시간 쯤 작업한 후, 그는 실마리 없이는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클러터햄으로부터 줄 한 뭉치를 가져와, 입구에서 중심부까지의 길에 따라 늘어놓았다. 그리고 구 꼭대기의 고리에 줄 끝을 매듭지었다.

이 방법으로 그는 점심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오후에는 더 깔끔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차 시간쯤 되어 쿠퍼 씨가 그에게 다가왔다. 쿠퍼 씨는 그의 진척도에 큰 흥미를 보였다.

“이것은……” 쿠퍼 씨가 구에 손을 얹었다가, 급히 손을 뗐다. “후우! 열을 놀랍도록 잘 유지하네요, 험프리스 씨. 이 금속, 구리죠? 절연체나 전도체, 뭐 그런 거죠?”

“오후 내내 해가 꽤 강했지.” Humphreys는 과학적인 쟁점을 피하며 말했다. “하지만 구가 뜨거워진 건 눈치채지 못했어.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군.”

“이상하군!” 쿠퍼 씨가 말했다. “이제 내 손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군. 우리 두 사람의 체질 차이 때문이겠지. Humphreys 씨, 당신 같은 경우는 찬 기운에 민감한 사람인 모양이오. 나는 그렇지 않소. 그 점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거요. 이번 여름 내내, 믿거나 말거나지만,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소. 아침 목욕도 가능한 한 차게 했지. 낮이나 밤이나 마찬가지였소. 자, 그 끈을 내가 도와주마.”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연필 같은 것들 좀 주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걸 챙긴 것 같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네요.”

그들은 미로를 빠져나왔다. Humphreys는 길을 가면서 실을 감으며 갔다.

밤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쿠퍼의 탓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전날 밤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한 단 하나의 물건이 바로 그 도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연한 일이지만, 비에 젖은 탓에 도면은 망가졌다.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작업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따라서 단서는 다시 제자리에 놓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햄프리스는 얼마 일을 못 하고 칼턴이 전보를 들고 나타나 방해했다. 런던에 있는 그의 전직 상사가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짧은 면담만 필요했지만, 소환은 긴급했다. 이는 성가신 일이었지만, 크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다. 반 시간 후 열차가 있었고, 일이 잘 풀린다면 오후 다섯 시에는, 늦어도 여덟 시까지는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칼턴에게 도면을 가져가 집으로 전달하라고 했지만, 단서를 치우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그가 바랐던 대로 흘러갔다. 그는 저녁을 도서관에서 보냈는데, 꽤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드문 책들이 보관된 찬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침실로 올라가자, 하인이 커튼을 치지 않고 창문을 열어둔 채로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다. 그는 불을 끄고, 정원 및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창가로 다가갔다.

그 밤은 달빛이 선명하게 빛나는 밤이었다. 몇 주 뒤면 가을의 울림이 이 고요를 깨뜨릴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멀리 있는 숲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잔디밭의 경사면은 이슬에 반짝이고 있었

고, 일부 꽃들의 색상은 거의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달빛은 신전의 처마와 납으로 된 돔의 곡선을 살짝 비추고 있었다. 해프리즈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 시대의 이러한 장식이 이렇게 비취질 때, 실로 아름다운 모습을 띠는 것을.

요컨대, 빛, 숲의 향기, 그리고 완전한 고요함이 그의 마음속에 따듯한 옛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 기억들을 오랫동안 되새겼다. 창가에서 몸을 돌릴 때, 그는 그 어떤 풍경보다도 완벽하다고 느꼈다.

그에게 불협화음을 느끼게 한 유일한 특징은 작은 아일랜드 주목나무 하나였다. 가늘고 검은색을 띤 이 나무는 관목 숲의 전초 기지처럼 돋보였다. 미로를 향해 가는 길은 이 관목 숲을 통해 접근했다. 그는 그것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이 위치에 이 나무가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 * * * *

다음 날 아침, 쿠퍼 씨와 함께 서신을 답하고 장부를 정리하느라 바쁜 와중에 아일랜드 주목나무 이야기는 저절로 잊혔다. 다만, 이날 도착한 한 통의 편지는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었다. 미스 쿠퍼가 말했던 워드롭 부인으로부터 온 편지였다. 그것은 그녀가 전에 윌슨 씨에게 보냈던 요청을 다시 한번 간곡히 되풀이한 것이었다.

우선 그녀는 자기가 곧 '미로의 책(Book of Mazes)'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 윌스트로프 미로의 평면도를 꼭 포함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또한 Humphreys 씨가 가능하면 조속히 그 미로

를 보여줄 수 있다면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곧 겨울을 나기 위해 해외로 떠날 예정이라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집은 Bentley에 있었는데,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다. Humphreys 씨는 손편지를 직접 전달하며 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 방문을 제안했다. 심부름꾼이 돌아오자마자 감사의 답장이 도착했는데, 내일은 그녀에게 아주 적합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일 일어난 또 다른 일은 미로의 평면도가 무사히 완성되었다는 점이었다.

이 밤도 맑고 환하며 고요했다. Humphreys는 창가에 오래 머물렀다. 커튼을 당기려던 순간, 그의 머릿속에 다시 아일랜드 주목나무가 떠올랐다. 하지만 어젯밤의 그림자에 속았거나, 혹은 그 나무가 그가 생각했던 만큼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었다. 어쨌든 그는 그 나무를 건드릴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있었다. 집 벽을 따라 자리 잡은 어두운 덩불이었다. 그 덩불은 아래층 창문 중 하나를 가릴 듯이 위협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지할 가치가 없어 보였다. 그는 그것이 축축하고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그는 그것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다음 날이었다. 월요일에 월스토르프로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금요일이었다.

점심 식사 직후, 워드롭 부인이 자신의 차로 찾아왔다. 그녀는 살이 많이 오른 노부인이었으며, 온갖 잡담을 늘어놓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험프리스에게 상냥하게 굴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험프리스가 그녀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어 그녀를 무척 기쁘게 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그 곳을 구석구석 꼼꼼히 둘러보았다. 워드롭 부인은 주인장이 정원에 대해 실제로 일가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의 평가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그녀는 Humphreys 씨의 개선 계획에 열정적으로 동의했지만, 집 근처의 독특한 정원 배치에 손을 대는 것은 야만적인 파괴 행위나 다름없다고도 말했다.

그녀는 특히 신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알고 계세요, Humphreys 씨? 제 생각엔 당신의 토지 관리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글자가 새겨진 그 돌덩이들 말이에요. 제 미로 하나가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멍청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부수어 버렸어요. 햄프셔에 있던 곳인데, 길이 그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거기 는 타일이었지만, 당신의 것과 똑같이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글자를 올바른 순서로 읽으면 문구가 완성되는데… 뭐였는지 기억나지 않네요.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문구 사본과 미로 도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당신의 미로를 손상시킨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알다시피, 그런 미로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매년 하나씩 파헤쳐진다는 소식을 들곤 하죠.”

“자, 이제 바로 가볼까요? 만약 바쁘다면 괜찮아요. 제 눈으로 봐도 길을 잘 알고 있어서 미로에서 헤매지 않을 자신 있어요. 미로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깐요.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버스버리에 있던 미로에서 길을 잃어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고요. 물론, 당신이 함께 오실 수 있다면 더 좋겠지 만요.”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서막이 끝난 뒤라면, 정의를 위해 Lady Wardrop은 Wilsthorpe의 미로에 완전히 정신이 혼란스러워져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새로운 표본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즐거움을 모두 얻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녀는 확실히, 날카롭게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Humphreys에게 지면에 있는 작은 함몰들을 가리키며, 그것이 문자가 새겨진 블록들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그의 미로와 배열이 가장 유사한 다른 미로들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고, 어떻게 미로의 평면을 통해 보통 20년 이내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 미로는 이미 그녀가 알고 있듯이, 대략 1780년경의 것으로 보였고, 그 특징들은 예상대로였다. 또한 구는 그녀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것은 그녀의 경험에서 유일무이한 것이었고,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의 탁본을 떠 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만약 가능하면요. 네, 당신은 정말 친절하게 해줄 거라는 걸 알아야, Humphreys 씨, 하지만 저 때문에 시도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정말로요. 여기서 함부로 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것이 불쾌해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제 고백해 보세요," 그녀가 계속하며

Humphreys를 돌아보며 그를 마주했다. "우리가 들어온 순간부터,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을 넘으면—음, 무언가 덮쳐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요? _저_는 그래요.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저 문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을 때, 그녀가 말했다.

“결국엔 그 곳의 답답한 공기와 무거운 열기 때문에 내 머리가 어질렀던 걸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그녀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했던 말을 일부는 되돌려야겠어. 내년 봄에 그 미로가 완전히 제거되어 있다면, 나는 너를 용서할지도 모른다고.”

“그 일이 어떻게 됐든, 워드롭 부인, 도면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렸으니까요. 오늘 밤 중이면 사본을 그려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연필로 대강의 윤곽만 그려 주시면 충분합니다. 축척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머지 판화들과 맞춰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내일 그걸 드릴게요. 그런데 블록 퍼즐 해결하는 데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여름 별장 돌들 말이야? 정말 수수께끼군. 돌들이 아무런 질서 없이 놓여 있잖아. 물론이지. 하지만 그 돌들을 세운 사람들은 분명히

무언가 지시를 받았을 거야. 아마 네 삼촌 물품들 속에 관련 서류가 있을지도 몰라. 만약 없다면, 암호 전문가를 불러야겠군.”

“다른 건 좀 말해 주세요,” 험프리스가 말했다. “서재 창문 아래 그림불 같은 거, 치워 주시겠어요? 맞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거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워드롭 부인이 말했다.

“이 거리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보기 흉하진 않아요.”

“아마도 당신이 옳을지도 모르겠군요. 다만 어제 밤 제 창밖을 내다 보았을 때, 바로 그 위쪽에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네요. 확실히 그렇군요. 알겠어요, 잠시 동안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다음 차례였다. 곧이어 워드롭 부인이 차를 몰고 떠났다. 그러나 드라이브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차를 세우고, 아직 현관 계단에 서 있던 험프리스를 불렀다. 그는 부인의 작별 인사를 듣기 위해 달려갔다. 부인이 한 말은 이랬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돌들 아래쪽을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번호가 매겨졌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또 안녕. 집으로 가주세요.”

이 밤의 주요 임무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워드롭 부인을 위한 도면을 따라 그려 베끼는 작업과 원본과의 치밀한 대조는 최소한 두 시간의 노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밤 아홉 시가 조금 지나 Humphreys는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들을 펼치고 작업을 시작했다.

그날 밤은 고요했고 공기는 탁했다. 창문을 열어두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박쥐와 여러 차례 불쾌한 조우를 했다. 이러한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일들은 그가 시선 끝으로 창문을 계속 살피게 만들었다. 한두 번쯤은 박쥐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그에게 합류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만약 누군가 소리 없이 창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웅크리고 있다면 얼마나 불쾌하겠는가.

그는 계획을 따라 그어 넣는 작업을 마쳤다. 이제 남은 일은 이를 원본과 대조해, 잘못된 곳으로 막혀 있거나 열려 있는 길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하나씩 누르며, 입구에서부터 따라야 할 길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다. 한두 군데는 사소한 실수가 있었으나, 중심부 근처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빚어져 있었다. 아마도 두 번째나 세 번째 박쥐가 끼어든 탓이었으리라.

사본을 수정하기 전에, 그는 원본에서 마지막 길목들의 방향을 꼼꼼히 다시 따라갔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정확했다. 그 길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중앙 공간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사본에 다시 그릴 필요 없는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었다. 실링 동전만 한 크기의 보기 흉한 검은

얼룩이었다. 잉크일까? 아니었다. 그것은 구멍처럼 보였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곳에 구멍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그 자리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는 작업은 매우 고된 것이었고, 그는 나른함과 답답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구멍이었다. 그것은 종이를 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이 위에 놓인 탁자까지 뚫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아래 바닥, 더 깊은 곳, 끝없는 심연까지 뚫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고개를 쪽 빼고 그 구멍을 내려다보며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릴 적, 이불의 한 평방 인치를 응시하다 그것이 나무가 우거진 언덕과 교회, 가옥으로 이루어진 풍경이 되어버리고, 자신과 이불의 진정한 크기를 모두 잊어버렸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 구멍은 순간 Humphreys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처럼 보였다. 처음부터 그는 그 구멍을 혐오스럽게 여겼지만, 불안감이 밀려오기 전까지 몇 초간 그 자리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찾아왔다. 점점 더 강렬해지며, 그 속에서 무언가가 솟구쳐 나올까 봐 두려워졌다. 그는 도망칠 수 없는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는, 참을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오, 맞다. 아주 깊은 곳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위로, 표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것은 회색빛 검은색을 띠고 있었으며, 여러 개의 어두운 구멍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것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얼굴이었다. 인간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타버린 인간의 얼굴이었다. 썩은 사과에서 말벌이 기

어 나오듯, 혐오스러운 몸짓으로 한 형체의 모습이 기어 나왔다. 그것은 아래로 굽힌 머리를 안아들 준비를 한 채, 검은 팔을 흔들었다.

절망적인 경련과 함께 Humphreys는 몸을 뒤로 던졌다. 머리를 매달린 램프에 부딪쳤고, 그는 쓰러졌다.

뇌진탕과 전신 쇼크가 찾아왔고, 그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의사는 증상 자체로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Humphreys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건넨 한 가지 요청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미로에 있는 공을 하나 열어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거기선 작업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제 댄스 시대가 이미 끝났으니,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환자분께서 직접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Humphreys는 투덜거리며 돌아누워 잠들었다. 의사는 간호사들에게 환자가 아직 위기를 벗어난 게 아니라고 알렸다.

상태가 좀 나아지자 Humphreys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그 일은 즉시 진행되기로 약속받았다. 그는 결과가 궁금해 안달이 났고, 다음 날 아침 묘한 표정을 짓던 의사는 보고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글쎄요. 공은 망가진 것 같습니다. 금속이 얇아졌나 봅니다. 첫 끌질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 계속 말해봐.” Humphreys가 조금하게 재촉했다.

“아, 안쪽에서 무언가 발견한 게 궁금한 거죠? 그 안은 재 같은 물질로 반쯤 차 있어.”

“재? 그게 무슨 뜻이야?”

“아직 완전히 분석하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Cooper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한 말에서 유추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화장된 시신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의사는 진정하라고 타일렀다. “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네, 나도 그가 맞을 것 같아.”

미로는 사라졌고, 워드롭 부인은 Humphreys를 용서했다. 사실 나는 그가 그녀의 조카와 결혼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신전의 돌들에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추측한 것도 적중했다. 각 돌의 바닥에는 숫자가 칠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숫자는 마모되어 지워졌지만, Humphreys가 비문을 재구성할 만큼의 숫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죽음의 내부로 침투하다

Humphreys에게 삼촌의 기억은 고마운 것이었지만, 그는 한 가지 일로 삼촌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 제임스 윌슨이 윌스토르프에 미로와 신전을 남긴 인물인데, 삼촌은 그 윌슨의 일기와 편지를 모두 불태워버린 것이다.

그 조상의 죽음과 매장 과정에 대해서는 전승이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유언장은 거의 유일한 기록이었는데, 그곳에는 이탈리아 계 이름을 가진 하인에게 유달리 관대한 유산을 남기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쿠퍼 씨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토록 많은 엄숙한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 만약 우리의 제한된 지성이 그것을 해체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반면 칼턴 씨는 이제 세상을 떠난 이모를 떠올렸다. 그 이모는 1866년 무렵, 코벤트 가든의 미궁에서, 혹은 햄프턴 코트에서였을지도 모르지만,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이 일련의 사건들 중 가장 기이한 점은, ‘비유’가 적힌 책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다. Humphreys는 워드롭 부인에게 그 구절을 보내기 위해 필사한 이후로, 그 책을 단 한 번도 찾아내지 못했다.